예술중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예술중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북

발행인
이주호

발행일
2012. 02

발행처
교육과학기술부

협조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록
KACES-1170-R010

문의
Tel. (02)2100-6291
Fax. (02)2100-6295
E-mail. amoeba1199@gmail.com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예술중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북」을 제출합니다.

2012년 2월

연구진

기획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이진규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과장 최은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박우양

연구·집필위원

책임 최용철(문화체육관광부)

공동 김흥수(구로문화재단)

민경창(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양정무(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연구보조원

김영재(선화예술학교)

김아영(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연구소)

박수연(음악사연구회)

이충렬(미술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홍승찬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술중점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가이드북

머리말

이 책은 예술중점학교에서 심화된 예술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미래의 직업을 꿈꿀 때 도움을 주고자 집필되었다. 학생들이 선택한 예술가의 길이 어떻게 사회 속에 뻗어 나갈 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고자 했다.

미술 영역에서 13개, 음악 영역에서 37개 총 50개의 직업군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연주자'나 '미술=작가'라는 고전적 등식보다는, 예술과 관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찾아 가급적 자세하게 소개하려 하였다. 미술의 경우, 작가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행정가, 기자, 비평가, 경매사, 영화감독 등이 제시되었고, 음악에서는 연주가와 작곡가를 비롯하여 비평가, 기획가, 음향 및 콘텐츠 제작자, 악기 제작자, 음악치료사, 교육자 등이 제시되었다.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도 제시된 직업군에 없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중에는 일부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중 전공과 일치하는 예술가는 50% 정도라고 한다.(『예술 분야 일자리 특징 및 인력 정책 방향』, 201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 수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술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되며, 반대로 예술교육을 받은 사람 중 절반은 예술가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술과 음악의 장르 개념은 지난 세기에 비해 오늘날에는 대단히 확장되고 있다. 미술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다루고, 음악은 '소리 나는 모든 것'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 교육을 받는다고 반드시 작가가 되기보다는,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개척할 수도 있다. 특히 예술은 어떤 분야보다 인간의 감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다양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 이 책은 현재의 시점에서 예술 전공 교육과 직간접 연관되는 직업군을 뽑아 보여 주고 있지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많은 직업들도 예술과 관계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한편 이 책은 해당 직업군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가급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려 하였다. 예술인으로의 길은 직업적 만족도는 높은 대신 사회적 인정이나 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먼저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직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꿈을 꾸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물론 미래의 삶은 언제나 학생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앞선 사례가 자신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진로정보도 담고 있다. 해당 직업과 연계되는 대학의 학과들을 소개하여 진로를 개척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선택을 가능하게 하였고, 미술 분야의 경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보여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추가하였음을 밝힌다.

2012. 2.

목 차

I 미술 분야 직업 소개 1

1. 큐레이터 3
2. 미술비평가 15
3. 미술경매사 26
4. 미술작가 32
5. 디자이너 41
6. 사진작가 50
7. 미술교사 61
8. 미술전문기자 73
9. 에듀케이터 84
10. 영화감독 겸 미술작가 90
11. 보존수복전문가 101
12. 예술행정가 107
13. 미술 심리치료사 113

II 음악 분야 직업 소개 122

1. 작곡가 및 편곡가 124
   1-1. 작곡가(서양음악, 국악, 대중음악, 전자 및 컴퓨터) 124
   1-2. 편곡가 144
2. 연주가 I (서양음악) 149
   2-1. 지휘자 149
   2-2. 연주가 159
   2-3. 성악가 169

3. 연주가 Ⅱ (국악) 174
4. 연주가 Ⅲ (실용음악) 183
4-1. 실용(대중)음악 기악 183
4-2. 실용(대중)음악 성악 190
5. 교육가 197
5-1. 중등학교 교사 197
5-2.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202
5-3. 음악대학 교수 207
6. 기획 및 제작자 213
6-1. 공연기획자(공연, 축제, 대중음악) 213
6-2. 음악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 226
6-3. 방송 기획 및 제작자 231
6-4. 음악 매니지먼트 236
7. 문화산업 전문가 241
7-1. 악기제작자 241
7-2. 음향제작자 / 레코딩 엔지니어 245
7-3. 음악출판 전문가 252
8. 연구 및 비평가 257
8-1. 음악학자 257
8-2. 음악평론가 263
8-3. 음악기자 269
9. 응용 및 실용음악 전문가 271
9-1. 영상음악 전문가 271
9-2. 음악치료사 275
9-3. 사운드 디자이너 280
9-4. 저작권 관련 284
9-5. 컴퓨터음악 전문가 290
10. 문화예술행정가 297

Ⅲ 포트폴리오(미술) 299

1. 작품 포트폴리오 308
1) 작품 포트폴리오 설명 310
2) 학생작품 포트폴리오 예시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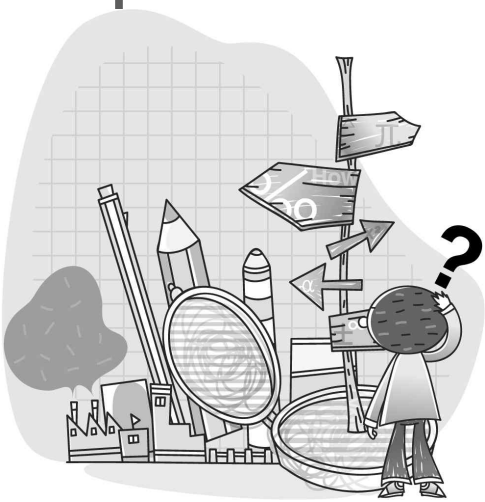
2.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324
1) 입학사정관제 324
2) 포트폴리오와 에듀팟 324
3)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326
4)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예시 341
① 자기소개서 342
② 미술 전시 감상 347
③ 독서 노트 352
④ 활동 노트 359

Ⅳ 부 록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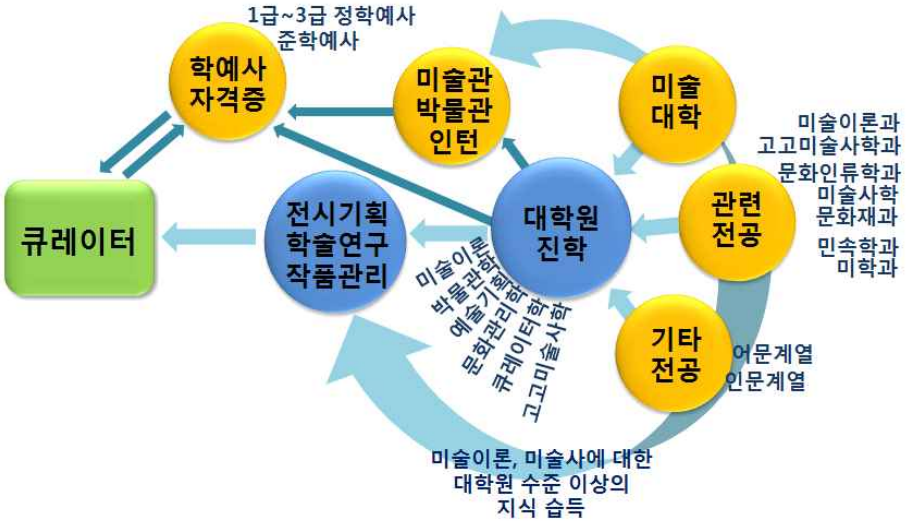
1. 미술 직업별 개설대학 및 학과 안내 370
2. 음악 분야별 개설대학 및 학과 안내 384

I 미술 분야 직업 소개

1. 큐레이터
2. 미술비평가
3. 미술경매사
4. 미술작가
5. 디자이너
6. 사진작가
7. 미술교사
8. 미술전문기자
9. 에듀케이터
10. 영화감독 겸 미술작가
11. 보존수복전문가
12. 예술행정가
13. 미술 심리치료사



큐레이터



큐레이터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문화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할 때 기획과 학술연구 및 작품관리를 담당한다. 학예사라고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미술관·박물관에서 전시 및 학술연구, 작품 관리 등을 책임지는 전문인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리고 대규모 상업화랑(갤러리)에서 전시기획을 전담하는 전문가도 큐레이터로 지칭한다.

큐레이터는 전시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미술관의 여러 사람들과 힘을 합해 좋은 전시를 기획한다. 또한 대중에게 전시를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작가들에게는 냉정한 비판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직업은 예술적 성취감, 직업에 대한 자기만족과 함께 미술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대형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수가 적기 때문에 정식 큐레이터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관련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경

쟁률 역시 높다. 하지만 생활수준 향상과 미술품과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큐레이터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근 로봇 박물관, 생활사 박물관 등 특색 있는 전문분야의 박물관과 중·소 미술관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큐레이터의 수요도 증가될 전망이다.

큐레이터와 관련된 대학 교육과정은 미술이론, 큐레이터학, 고고미술사학, 문화인류학, 미학 등을 비롯하여 미술관련 학과, 인문학 계열 등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선택한다. 그 후 대학원 과정에서 미술이론, 박물관학, 예술기획, 고고미술사학, 미학, 큐레이터학 등을 거쳐 미술이론, 미술사에 대한 대학원 수준 이상의 지식 습득을 갖춰야 한다. 또한 동·서양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한자, 영어 등 관련 어학능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준학예사는 학사 학위 이상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나 학사 학위로만은 1~3급 학예사가 될 수 없다.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미술관·박물관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 후에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 기준을 충족시키면 1급~3급 정학예사가 된다.

학예사 자격증 제도 안내

명 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부여	1,2,3급 정학예사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준학예사 :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시행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1급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급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정학예사】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실무경력 요건】

☞ 국·공립 및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십, 학예분야 자원봉사 및 실무연수과정 등의 경력

【실무경력의 시기】

☞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음

【실무경력기간 산정】

☞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2년과 4,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1년과 1,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비 고】

☞ 실무경력은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처: http://www.museum.go.kr/main/publish/view.jsp?menuID=001007004001

이관훈 큐레이터

이관훈 _ 1963년생
사루비아다방(사단법인, 전문예술법인체) 큐레이터

【학 력】
경원대학교 회화과 졸업

【경 력】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동아갤러리 큐레이터를 지냈으며, 이 때 주요 전시기획으로는 <도미야마 다에코>(1995), <실크로드 미술기행 V>(1996), <이 작가를 주목한다>(1997, 1998 공동기획) 등이 있다.
사루비아다방에서 <함진-공상일기>(1999), <정승운-Horizon>(2000), <꺼풀>(2000), <김을-옥하리 265번지>(2002) 등을 기획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91년 12월경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만 해도 큐레이터란 제도나 개념도 없었고, 현장이란 말과 의미조차도 없었다. 호기심의 발동과 취직한다는 빌미로 이 일을 시작해서 20년째 일하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동아갤러리(동아그룹)에서 8년, 비영리 전시 공간(대안공간)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사단법인, 전문예술법인체)에서 12년, 흑백논리처럼 전혀 다른 두 곳의 시스템을 경험한 나로서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무슨 일을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명감이 깊어만 간다.

현재 나의 학력은 입문할 당시와 같은 학사다. 고학력 시대 특히 미술계는 자리 못 잡은 고학력자들이 수두룩하다. 그런 덕분에 대개는 나를 석사출신으로 알고 있다. 겸연쩍게도 몇몇 지인들이 전큐(전설적인 큐레이터의 약칭)라고 부른다.

현재의 큐레이터 자격은 그때의 환경과는 많이 다르다.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다. 그때보다는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많아졌다. 하지만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장에서의 공부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현장을 겪으며 갖추어야 할 몇 가지를 적어본다.

- 동시대 작가들 알아가기 : 인터넷이라 책자를 통해 주간마다 체계적으로 작가들을 서치(search)하여 작가 아카이브를 만든다. 스스로 텍스트를 써보거나 작가들을 만나며 서치 한 이미지와 텍스트 비교 분석한다.
- 직관 갖기 : 미술의 프레임을 통해 미술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삶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미술을 생각하기.
- 다양한 책을 곁에 두고, 쉽고 편안 것부터 읽고 생각하기.
- 전시연출 능력 갖추기 : 다양한 공간연구 및 시점 놀이하기.
- 언어능력 키우기 :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는 영어 능력. 기타 언어 능력은 선택.
- 인성 및 체력 기르기.

아직 확립되거나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큐레이터는 2차 생산자로서 자기가 처한 곳의 살림살이에서부터 전시를 올리고 평가를 받는 검증까지 총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1차 생산자(작가)를 위해 혹은 평행선상에서 조력자로서 다양한 일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 역할은 작가와 작품 보는 직관을 길러야 하고, 이를 위해 미술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과 온갖 사회적 경험을 쌓아야한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작가(작품)선정과 전시 구성 및 연출(기획, 공간연구)을 해

야 한다. 이에 적절한 기획 글과 작가론을 써야 하고, 작가들과 사람들의 태를 쫓아 화술적인 능력을 갖추어야하며, 특히 전체의 미술계 흐름을 인식하며 이슈를 생산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참모역할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큐레이터는 연출가, 영화감독, 무대감독 등과 같은 동격을 의미한다.

큐레이터는 행정가, 기획자로서 나침반과 같이 작가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작가들을 위해 사회에서 통용하는 규범과 원칙을 대행하며, 복덕방처럼 작가와 작가-작가와 비평가-작가와 공간, 작가와 콜렉터 등을 연결하는 미술계의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는 정보의 흐름이며, 신뢰의 흐름이며, 자본의 흐름이며, 시스템의 흐름일 뿐 아니라 끊임없는 렌털(rental)의 개념과 서포터(조력자)의 역할을 지닌다. 말하자면 무형의 존재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2000년대 기점으로 국내미술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90년대와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문화재단, 레지던시, 시립미술관, 대안공간 등 부재된 시스템을 계속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작가들 또한 젊어졌다. 따라서 큐레이터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작가들과의 교감이 서서히 나에게 영양분을 주듯 작업실에서, 길거리에서, 카페와 뒤풀이에서, 여행에서, 그리고 전시장에서 거침없는 대화와 논쟁, 삶의 에피소드를 나누고 공감함으로써 수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 속에서 작가들의 감성 언어를 배워나갔고, 무질서와 질서와의 혼용하는 법을 깨달았으며, 조형의 낱낱들이 어떻게

언어화되어가는 지를, 작가적 태도를 견지하며 드로잉적인 행위로 살아가야하는 당위성을, 드로잉적 사유를 통해 모든 장르가 하나로 직결된다는 점을 알아갔다. 그리고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만의 연출방식을 몸소 체득해나갔다. 다시 말하면 현장자체는 작가이며, 작가들로부터 현장이론의 뼈대를 만들었고, 그 위에 책, 잡지, 영화, 인터넷 등에서 얻은 지식과 필자의 도시 골목, 자연 체험을 통한 지식의 살점을 올려서 필자의 직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는 '관계 짓기'였으며 이를 통해 미술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안타깝게도 국립·시립 미술관이나 기업(형) 미술관, 센터, 갤러리 등을 제외하고는 연봉의 기준점이 없다. 큐레이터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갤러리나 기타 전시공간의 오너들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채용한 사람에게 그 정도(?)의 연봉이 당연하다는 인식부터가 문제다. 큐레이터에 대한 존중과 태도,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책'을 보기 이전 사유의 경험을 갖는 것이 좋다. 자연, 도시 등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시한 것들을 통해 사유하는 사고를 길렀으면 한다. 그런 후 시, 수필 등의 책을 읽어보는 것이 어떨까?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누군가가 큐레이터는 미술문화의 꽃이라 했다. 나는 작가가 미술문화의 꽃이라 생각한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공기와 빛과 거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큐레이터는 꽃이 아니라 땅 속의 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김경운 학예연구사

김경운

2000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학 력】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학위논문】

<하이퍼리얼리티, 도시의 삶, 그리고 텍스트-로버트 롱고의 예술과 미디어 문화>(2002)

【경 력】

<젊은 모색 2002>(2002), <일상의 연금술>(2004), <고 백남준 타계 1주기 추모특별전-부퍼탈의 추억>(2007), <한국의 행위미술 1967~2007>(2007), <올해의 작가 2009-서용선>(2009)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저는 미술관에서 일하는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고

교 시절에 특히 영화나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 및 시각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 시 비교적 관련성이 있는 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 학과에서는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전공을 살려서 취업할 경우 대개 학예연구사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자연스럽게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시각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시각영상문화는 시각언어나 영상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므로, “언어”에 대한 소양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시각언어나 영상언어를 우리의 일상 언어로 번역해주는 것이 학예연구사의 가장 큰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소양을 키우려면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인간언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려면 광범위한 인문학에 대한 섭렵이 중요하지요. 이러한 인문학적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폭넓고 심도 있게 공부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채용할 때 석박사급 학위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원에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교육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직업의 수요는 한정되어있으나 관심도가 높아지고 관련 교육기관의 배출학생수가 늘어감에 따라 졸업 후 바로 취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들이 주로 취업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 이수 후 관련 기관에서의 현장교육이나 실무경력을 쌓으면서 유리한 조건의 채용수요가 발생할 기회를 꾸준히 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미술관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학예연구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박물관에서 일하는 전문직이라, 박물관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박물관에서 일할 것이냐에 따라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훈련과 전문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의 경우는 역사학의 전공분야, 미술박물관의 경우는 미술사학의 전공분야, 과학박물관의 경우는 과학사의 전공분야에 관한 고도의 지식수준이 필요하겠지요. 해당 박물관이 다루는 소장품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많이 축적해놓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식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풍부한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가 쌓아올린 전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그 동향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지니고 있어야 더욱 원활한 소통을 일구어갈 수 있겠지요?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고, 그 결과로 각종 문화기관들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새로이 부각되는 직업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기관들의 수가 필요보다 지나치게 많은 한국사회의 속성상 이 직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공급, 즉 배출되는 전공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형편이라, 또 그렇게 많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교육기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기다려서라도 이 직업을 갖고자 할 만큼의 열망이 있는가, 과연 그만큼 기다릴 끈기와 인내가 있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앞서도 서술하였듯이 학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전문적인 영역의 직업이기 때문에 대학 및 대학원의 진학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공도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세심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사실 학예연구사나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그러한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등의 투자 자본에 비해 결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은 직업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직업이라 할 수 있지요. 10년을 활동하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같은 기간 일했을 경우의 연봉보다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 명예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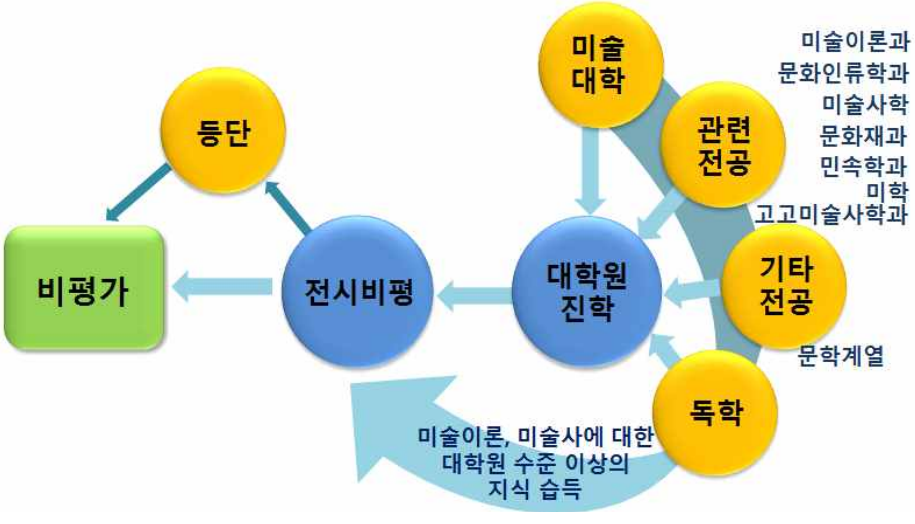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현대미술가 출신의 영화감독 줄리앙 슈나벨의 <바스키아>와 같은 영화를 보면 우리 시대의 미술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관한 단면을 엿볼 수 있어 현장에 대한 실감을 느끼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의 종류만큼이나 학예연구사, 큐레이터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관심 분야에 따라 많은 책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분야에 주력하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양서적은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수차례 강조하는 바이지만, 본 직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예연구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다림을 인내할 만큼 자신이 있고 열정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인문교양을 기르는데 열과 성을 다하십시오.

미술비평가



미술비평가는 미술 작품과 전시를 비교·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다. 전시장에서의 작품 및 전시기획 등을 직접 감상하고 살펴보는 현장조사, 자료 분석, 작가 인터뷰 등을 거쳐 평론에 반영한다. 작품과 전시 비평을 통해 비평가 자신의 가치관, 주제의식을 표현하며 독자와 관람객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미술비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비판적 호기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을 글로 잘 표현할 줄 아는 문장력과 언어감각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독서와 전시 감상, 그리고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예술 작품에 대한 흥미와 더불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문학작품, 영화,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가 필요하다. 동·서양 미술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한자, 영어 등 관련 어학능력도 중요하다.

대학 교육 과정에서 미술관련 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미학, 인문학 계열 등 다

양한 분야를 전공할 수 있다. 그 후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된 미술사, 미술이론 등을 전공하면서 시각문화와 작품, 작가, 전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훈련을 거친다. 독학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미술이론, 미술사에 대한 대학원 수준 이상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전시비평의 경우 학위 취득 후 개별 전시에 대한 비평 기고를 통해서 활동하거나 문학과 마찬가지로 미술잡지의 평론 공모, 일간지의 공모를 통한 등단을 거쳐 활동하기도 한다.

강수미 비평가

강수미 _ 1969년생

현재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학 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미학과 박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과 석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대표논문】

- 「인간학적 유물론과 예술의 생산과 수용: 발터 벤야민의 '초현실주의'를 중심으로」
- 「꿈과 각성의 시각적 무의식 공간: 프로이트 정신분석학과 함께 벤야민 후기 예술론 읽기」
- 「모두를 위한 엘리트주의: 공동체적 가치의 담론 장으로서 미술비평」
-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시각예술이미지의 조직(Ⅰ): 아방가르드와 대중문화예술의 교차점」

【저 서】

- 『아이스테시스: 발터베냐민과 사유하는 미학』, 글항아리, 2011
- 『오늘의 미술가를 말하다』(공저), 학고재, 2011
- 『한국미술의 원더풀 리얼리티 : 탐미와 위반, 29인의 성좌』, 현실문화연구, 2009
- 『푸른 대양청춘의 개화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미학』, M&K. 2007
- 『모더니티와 기억의 정치』(공저), 현실문화연구, 2006
- 『서울생활의 발견』(기획 및 공저), 현실문화연구, 2003
- 『서울생활의 재발견』, 현실문화연구, 2003

【수 상】

- 올해의 예술상(2005) – 『「번역에 저항한다」전』
- 2008년 제3회 석남젊은미술이론가상–『푸른 대양 · 청춘의 개화: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미학』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술비평가란 미술작품에 대해 평(評)하는 이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현대미술계에서 미술비평가는 단지 '미술작품'에 대해서만 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전시를 포함해서 미술계 전반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언어로 쓰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품, 작가의 예술활동, 그리고 미술계의 여러 다양한 행사들은 많은 경우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술비평가는 그러한 감각과 경험의 산물들, 또는 현상들을 논리와 개념의 언어로 해석하고, 그 예술적 가치와 의미를 논한다는 점에서 '언어'를 직업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요컨대 미술비평가는 미술을 말과 문자 언어로 탁월하게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은 미술비평이 '미술'과 '언어'라는 두 가지 다른 영역에 대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미술비평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 창작 및 미술 활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말하기 및 글쓰기를 위한 언어적 지식과 표현 능력이 필수인 것이죠.

제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취미활동을 넘어 미술가가 되기 위해 학교의 특별활동과 미술학원 강습을 통해 전문적인 훈련을 했죠. 이후 미술대학 회화과에 진학해 4년 동안 서양화 실기 및 이론을 전공했고, 대학원 석사과정 2년 또한 창작과 이론을 병행해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작가로 활동하며 개인전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미술비평가로 전향했습니다. 그 계기는 간단히 말하면 그림보다 글을 더 잘 써서입니다. 또는 제 그림보

다 제 말과 글이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됐으며, 더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죠. 십여 년 전 젊은(신진) 작가들 6명과 함께 하는 전시를 기획하면서 기획 글을 썼는데, 당시 미술계 전문가 및 다른 작가들의 평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술잡지, 전시도록 등에 비평을 기고할 기회들이 만들어졌고, 점차 활동이 늘어났죠. 그렇게 신진 미술비평가로 활동하면서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예술과 인문학 지식을 더 깊이 쌓을 필요성을 자각했습니다. 그 후 미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해 공부하면서 미술비평을 계속 했죠. 미학이라는 학문은 미술에 대한 학(學)이 아니라, 예술과 인간의 감각적 지각 전반을 아우르며 사유하고 논리화하는 철학입니다. 저는 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미학적 사유와 논리화 과정은 '예술'을 단지 시각적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미적 가치, 미적 경험, 미적 기준을 따지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앞서 밝혔듯이 전 어린 시절부터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는 미학(예술철학)을 공부했죠. 비단 제 경우가 최고의 사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술비평가로 일하는 데 창작을 해본 경험, 작가로서 활동해본 경험, 그리고 인간과 예술에 대해 통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유하는 지적 학습과정은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비평에서 통찰력과 구체적 분석의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 핵심은 현재진행형의 다양한 미술 활동을 놓치지 않고 보고, 이해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입니다. 현대미술계는 끊임없이 전시가 열리고, 작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제시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아트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미술비평가는 추상적인 미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재 여기의 미술을 직접 경험하고, 언어적으로 사고하고, 말과 문자로 외부에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네요.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문화의 차원, 그리고 예술의 역량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그만큼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미래의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죠. 미술비평가는 그런 문화 활동 및 미술 창작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또한 미술 속에서 가상으로 실현된 꿈과 희망의 세계를 더 가깝게 끌어오는 사람입니다. 현상과 정보들이 각종 첨단 미디어를 통해 급속하고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사회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의미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점에서 미술비평가라는 직업은 매력적인 미래를 갖고 있죠.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미술비평가가 되기 위해서 미술 실기를 반드시 전공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창작 활동을 경험하는 일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미학, 미술사, 예술학, 미술이론 등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미술은 의학이나 법조계만큼이나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대학에서 미술/예술 관련 전공을 공부하지 않은 경우 미술비평가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하는 경우 대체로 미술대중서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술계 내부 전문가들의 이해와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대부분의 미술비평가는 일반 회사원처럼 특정 업체나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수치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개인의 역량과 활동 수준에 따라 수입과 사회적 지위의 고저(高低)가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미술비평가는 지면에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 강의, 자문 등 여타 일을 포괄하며 비평 활동을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한 비평가가 엄격하게 자신의 연구 실력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미술계에 기여하는 비평을 내놓으며,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받는다고 가

정할 때 연 수입은 4천~5천만 원 정도이고, 사회적 지위는 통상 대학의 선임연구원이나 전임 강사 정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에른스트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메리 앤 스타니제프스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John Berger, Ways of Seeing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아직은 미술비평가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은 이 시기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공부하기도 벅찰 것입니다. 그러나 규정된 시간과 학습 범위를 벗어나 무엇이든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도록 해요. 그리고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 읽고 경험한 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각으로 정리하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답을 생각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김장언 비평가

김장언 _ 1975년생

- 독립큐레이터, 미술평론가로 퍼포먼스, 출판, 강연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덕션 진행
- Ring-Project 기획전
- 공간, 포럼에이 등 잡지 기고

【학 력】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 협동과정에서 석사과정

【경 력】

큐레이터

- 대안공간 풀
- 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어시스턴트큐레이터
- 안양공공예술재단
- 광주비엔날레 2008 제안전

전시기획

- 《Mr. Kim 과 Mr. Lee의 모험》(작가 정서영, LIG 아트홀)
- 《God save the Mona Lisa》(갤러리 플랜트, 서울, 2010)
- 《돌아갈 곳 없는 자들의 향락에 관하여》(광주비엔날레, 2008)
- 《tactical media stage 전》(아트스페이스 휴, 서울, 2004)
- 《open studio project》(서울, 경기도, 2004~)

【경 력】

- 「상징과 소통 – 지금 한국에서 공공미술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Visual, 2010 vol7)
- 「지금, 여기 공공미술이 위치하는 지점들」(계간 문화예술 2008년 봄호)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저는 현재 큐레이터이자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라고 활동하고 있지만, 평론가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와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지속적으로 그에 대한 글을 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우리는 글쓰기와 글읽기를 생각할 때, 대부분 문학적 글쓰기와 문학적 글 읽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향된 글쓰기와 글읽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에 대한 논리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비단 평론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며, 비판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평론가라는 직업은 너무나 고전적인 혹은 고답적인 직업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전적 의미의 평론가의 역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청소년들에게는 평론가라는 용어 보다 블로거라는 용어가 더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평론가의 의미와 그 역할이 새로운 과학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평론가의 의미와 역할은 분명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미디어를 통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비평, 평론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평론가는 특수한

직업군이라기 보다는 세상에 대해서 말걸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적 시야를 갖고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서 문제를 던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선언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비판적 지식인, 평론가로서 세상과 대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블로거나 홈페이지에 자신이 경험한 일상과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글쓰기 시작한다면 바로 평론가로서 혹은 비평가로서 이 세계와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답적인 의미의 평론가는 흥미롭지 않지만, 누군가 유연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세계와 삶에 대한 자신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새로운 평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고전적인 의미의 평론가라는 직업은 그다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론가라는 직업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 같군요. 비판적 언어로 세계와 이야기하는 사람을 평론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평론가라는 직업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지금은 어떤 차원에서 모든 개인이 미디어가 되는 사회이고 누구나 사회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구체적으로 미술평론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이론, 미술사, 미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대미술분야와 관련되어서는 사회 정치 경제 등 문화 전 분야에 대한 이해 역시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현대미술은 더 이상 미술 그 자체에 국한되어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평론가는 금전적으로 그 가치가 환산되기보다 어쩌면 자신의 비판적 지식과 그 지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 역할이 환산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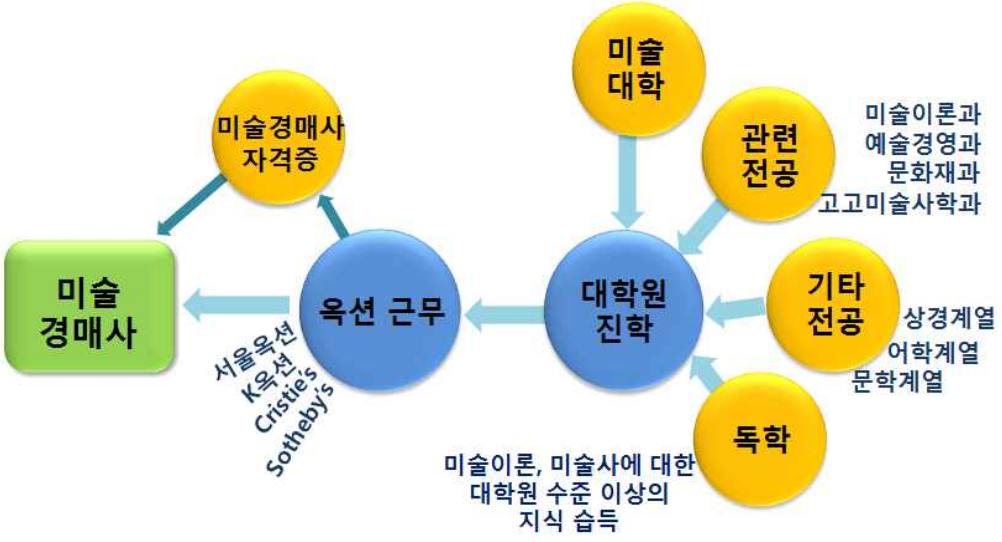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서경석의 <나의 서양미술순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미술관련 연구서는 아니지만, 미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삶과 세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관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평론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우선 미술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론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언어라기 보다는 자신이 궁금한 것을 혹은 던지고 싶은 질문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유쾌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경매사



미술경매사는 예술적 가치 및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사고파는 일을 중개하는 직업이다. 미술품 경매는 일반 시장 원리로는 쉽게 그 가치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술작품들에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유통방식의 하나로써, 경매라는 가격 결정 구조를 갖는다. 예술품의 가격, 즉 작품 시세를 부여하는 것은 물건의 진위성, 보존 상태, 작품 출처의 확인, 역사적·사회적인 의미 파악 그리고 시장성 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매겨진 미술품의 추정가격이 경매에 참가한 최종 소비자인 컬렉터에 의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경매이다.

미술경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미술품 시장의 흐름, 경매 작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무대에 서서 경매를 진행할 때, 경매과정이 경직되거나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미술경매사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을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선명하고 뚜렷한 발음, 스피치의 강약 등의 스킬을 갖춰야 한다.

대학 교육 과정에서 미술 관련학과, 예술경영, 미술사, 경영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가능하다. 전문적인 미술경매사 자격증을 습득하는 경우는 Sotheby's, Cristie's 등 유명 옥션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서 1년 반 동안 공부하면서 석사학위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습득한 미술경매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적다. 관련학과를 거치지 않은 독학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술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와 미술이론, 미술사에 대한 대학원 수준이상의 지식을 습득한 후 옥션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경매 시장에 참여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미술품경매회사로는 서울옥션, K옥션 등이 있다. 미술작품의 구매층 확대와 유통성 확대로 새로운 미술품 시장의 개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미술품 경매 시장은 보다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박혜경 미술품 경매사

박혜경 _ 1967년생

단국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대기업 홍보실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경 력】

- 1996년 갤러리 아트디렉터로 미술시장 입문
- 1998년 서울옥션 창립멤버로 미술품 경매사를 시작
- 12년간 180여회의 미술품 경매 진행
- 2010년 미술품 경매사로 독립
- <ait institute>를 설립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대학시절 사학을 전공했는데 대체로 저희 과 출신들은 언론매체로 많이 진출했어요. 저 역시 저널리스트를 꿈꾸었고, 모교 방송부에서 아나운서로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기에 광고대행사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대기업의 광고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 그룹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하는 여성' 이라는 컨셉트로 그룹 사내보의 표지에 실리

게 되었는데, 당시 아트 비즈니스를 위하여 메스미디어 홍보에 대한 감각을 지닌 사람을 물색하던 현재의 서울옥션 이효재 회장이 우연히 그것을 보고 제게 아트 디렉터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트 디렉터로서 첫 발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트 디렉터로서 저는 다양한 고객들과의 만남을 위해 구 LG홈쇼핑에서 'TV컬렉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품 판매를 시작했고 좋은 호응과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미술품 판매가 중단이 되었기에 회사 측에서 이를 정면돌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술품 경매를 떠올리게 됐어요. 저는 대학 방송 및 사대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수락할 수 있었고 미술품 경매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서른에 제 전문분야가 아닌 아트 디렉터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술지식을 쌓아야 했습니다. 작품의 작가를 일일이 찾아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고, 작가에게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며 지식과 정보를 얻었어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운영하는 미술사 강의 등을 통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미술품 경매사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의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직업을 희망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it institute>를 설립해 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학습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문화예술분야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적이면서도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술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일반인들과 CEO,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예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는 이제는 미술품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미술을 또 다른 재화의 하나로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 돈을 떠나 예술 콘텐츠를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된 시대이구요.

미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경제력이 커질수록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목마름은 더 깊어지지요. 좋은 미술품을 늘 곁에 두고 감상하고픈 욕구가 생겨나고, 미술품이 하나의 중요한 투자처가 되면서 미술품 경매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사실 저 역시 미술 전공자가 아니며, 저와 같이 미술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비 미술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미술 전공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미술과 관련된 부전공을 한다면, 그 학생에게 메리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미술품 경매사로서 저는 미술품을 자주 접하고 보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스피치 역량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음이나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청중에게 듣기 좋은 목소리와 부드럽고 세련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술품 경매사는 단순한 경매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좌중의 분위기를 이끌어서 리드미컬하게 진행해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력과 순발력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일반 화랑에 비해서는 미술품 경매회사에서의 대우가 더 좋은 편입니다. 미술품 경매사 역시 회사 소속이므로 경매회사에 소속된 모든 파트의 근무자들과는 같은

대우를 받아요. 또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팀장급 이상이 되거나 화랑의 디렉터(실장)급이 되면 웬만한 대기업의 중간관리자 정도의 연봉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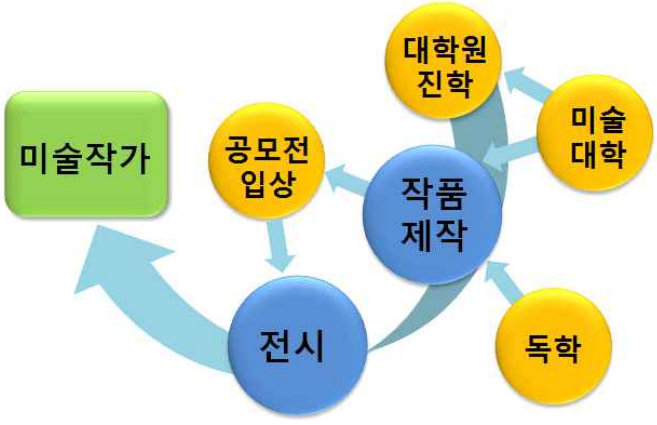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2004), 미키블루아이즈(1999), 폴락(20010, 냉정과 열정 사이(2003)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미술품 경매사는 그림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품을 비롯해 인류의 생활사와 함께해온 모든 예술품이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집품이나 예술품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아이템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는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술 관련 영화를 보고 예술문화가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전시나 예술계에서 개최하는 쇼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그런 큰 이벤트가 1년에 10~20번 정도 열립니다. 예술계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은데 직접 이런 곳을 찾아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적성에 맞을 겁니다. 늘 새로운 작품을 만나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와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미술작가



미술작가는 자신의 세계를 구현하는 작품을 통해 자유로운 상상과 예술적 감수성 등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직업이다. 과거에는 화가나 조각가 등으로 미술작가를 구분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감각, 주변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 자유롭고 풍부한 표현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작업할 수 있는 끈기와 작업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다.

미술작가는 예술적 성취와 경제적인 안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제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작가로서의 인지도를 높일 때까지 작품 활동 외에도 디자인, 인테리어, 미술학원 강사 등의 다른 부업과 병행한다. 그러나 미술작가로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작품 활동에 전념하거나 작품 활동과 더불어 대학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기도 한다.

한 해에 졸업하는 전국 미대 졸업생은 1만 4천명 이상이며, 이 중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수천 명에 이른다. 하지만 졸업 후 전업 작가로 활동하거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미술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연구, 작품 제작활동을 지속하면서 전시를 통해 작가로 데뷔하기도 한다.

작가는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 전시 공간 외에도 웹 활용, 그래피티, 출판, 공공미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때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김지원 작가

김지원 _ 1961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교수

【학 력】

- Staatliche Hochschule Fur Bildende Kunste Frankfurt Am Main(Stadel Schule)
-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학사)

【전시경력】

개인전
- 2010 김지원 (PKM TRINITY GALLERY, 서울)
- 2009 맨드라미 (분도갤러리, 대구)
- 2007 김 지원 (pkm 갤러리, 서울)
- 2006 계몽적인 그림 (Andrewshire gallery, Los Angeles)
- 2005 비행 飛行 (가 갤러리, 서울)
- 2005 회화적 회화 (pkm 갤러리)
- 2004 맨드라미 (갤러리 피쉬, 서울)
- 2003 정물화, 화 (대안공간 풀, 서울)
- 1999 그림의 시작 – 구석에서–(서남미술관,서울)
- 1999 비슷한 벽, 똑같은 벽 (아트선재미술관 별관, 경주)
- 1995 김지원 전(금호미술관, 서울)

주요 단체전
- 2010 21&THEIR TIMES (금호미술관, 서울)
- 현대미술의 선물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 한국드로잉 30년 (소마미술관, 서울)
- 한국 근현대미술 거장전–63스카이아트 미술관*고려대학교 박물관 공동기획특별전 (63스카이아트미술관, 서울)
- 2009 2인전 '붉은 낮잠' (그 문화, 서울)
- 이미지의 반란 (KT&G 빌딩, 대구)
- 2008 '아트 인 대구 2008 : 형상성의 귀환과 반란' 2008 대구현대미술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주요작품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 선재미술관
- 리움 삼성미술관
- 부산시립 미술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하나은행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본인은 중학교 때부터 미술부 활동을 하였고, 중2때 유화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과 잘 모르는 그림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었고 막연히 근사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개념은 그 후 천천히 생겨났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유학 후에 본인은 작가이면서 대학에서 10년가량 시간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하는 시간외에는 작업실에서 작업하며 모색하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집적되면서 직업도 학교일에 더 신경 써야만 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고, 작업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미술계 주변과 지인들로부터 객관적인 인정으로 지금에 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학교와 작업실을 오가며 지내고 있고, 여러 전시에 참여하면서 잘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일(작업)과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 작품으로 남들(관람자)을 설득하는 일은 더욱 어렵지 않을까요?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일반적으로는 화가라는 직업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 자신의 보폭으로 캐리어를 쌓아간다면 대가가 있지 않을까 전망 합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대학진학과 최종자신이 하는 일에서, 전공을 완전히 다른 것을 공부하고도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들이 지금은 적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자신의 시선을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한듯합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1번 질문의 답과 동일합니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특별히 추천한다기보다, 자신이 흥미로워하는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의 책읽기와 영화보기가 중요한듯합니다.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
무모하고 익살스럽기도 한 모험여행이 부단히 노력하고 막막한 예술가의 길과 오버랩 됩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예술에 천재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처절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세권 작가

안세권 _ 1968년생

【학 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조형예술과 매체전공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예술사 조형예술과 매체전공 졸업

【전시경력】

주요 개인전

- 2011 <서울, 침묵의 풍경Ⅱ> 성곡미술관
- 2008 <서울, 침묵의 풍경Ⅰ> 청계 창작스튜디오갤러리
- 2008 <The Gleams and Glimmers of Seoul> 175갤러리
- 2006 <서울을 보다> 가나아트 수상전, 인사아트센터
- 2004 <길에서 본 풍경> 일주아트하우스

주요 단체전

- 2011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 리움미술관
- 2011 <서울, 도시탐색전> 서울시립미술관
- 2011 <Move on Asia> 유럽 순회전, 마드리드, 바로셀로나, 스페인
- 2010 <한국모던아트의 물결> 아세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2010 <아를르 사진축제> Jouvene rjfldhk La Liberte 거리, Honore Clair광장, 프랑스

【작품소장】

- 서울 청계천 2004.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뉴타운풍경, 월곡동의 칩, 경기도 미술관
- 서울 청계산 시리즈 Ⅰ,Ⅱ 2004. Art Bank,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 뉴타운풍경, 월곡동의 마지막 겨울, 대구시립미술관
- 부산파노라마시리즈, 부산을 보다, 부산시립미술관
- Dream Ⅱ, 청계 Expressway, DVD(1 Channel video) Art Bank, 국립현대미술관
- 청계 Scape, DVD(Two Channel video), 서울시립미술관

【수상경력】

- 성곡미술관 2010 내일의 작가 선정, 서울, 뉴타운 풍경(2009)
- 서울문화재단 (New Artist Trend) 젊은 예술가지원 공모 개인전, 서울, 침묵의 풍경(2007)
-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시각예술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개인전, 서울의 빛(2006)
- 가나아트갤러리 신진작가공모전 대상 수상(2005)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나는 사진, 영상매체를 통해서 수 년 동안 도시의 변화상을 기록, 발표해온 사진영상작가이다. 예술에 대한 재능은 일찍부터 발견했으며, 초등학교 때 만화와 미술을 좋아하는 취미생활에서부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는 소묘와 수채화를 즐겨했으며, 그리고 싶은 대상을 찾아 풍경스케치와 카메라를 통해 관심 있는 사물과 풍경을 기록하게 됐다. 훗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입학하고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현실성 있는 작업을 하고 싶어진다. 급변하는 도시의 변화상을 대형카메라를 통한 사진매체가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매체라고 인식하고 사라지는 것과 변화상을 기록하며 사진영상작품을 남기며 작가생활을 해오고 있다.

중, 고교시절 미술과 사진에 대한 기초 실기와 이론 경험이 필요하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만큼 적성과 재능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학, 예술관련 출판물, 영화, 공연, 전시회를 통해서 예술과 관련한 폭넓고 섬세한 감성 경험이 필요하다. 예술에 대한 폭넓은 대학교육에 앞서 전문 교육기관, 학원, 작가들을 통한 체계적인 체험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사진관련 직업에는 상업적인 사진과 예술사진으로 서로 다른 차이가 있다.

예술은 현실에서 시간에 대한 구속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기에 예술사진가나 전업작가를 원한다면 협찬, 지원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하다.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거나 본인이 다른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면 사진스튜디오, 갤러리, 학원강

사, 언론기관, 출판관련 잡지사, 광고, 쇼핑물 홍보물관련 등등 사진이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시간 속에 만들어지는 시간예술이다. 현장에서의 사진 작업은 기다림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사진작업으로 인한 직업에 대한 확신은 그동안 쌓아온 본인 스스로 경험에서 확신할 것이다. 현실을 떠나 여행을 통해서 새로움과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사진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충분한 실기 경험이나 역사적인 이론 공부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과거 아날로그 사진에서 디지털사진으로 사진이미지가 소통되는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소형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에 탑재된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는 이제 어느 누구나 소유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술표현 매체일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이 매체를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이 세계를 이야기하고 담아낼 것인가? 이제 DSR 카메라 천만시대이다. 사진의 힘과 가능성은 열려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아날로그 사진에서는 사진기술을 터득하는데 체험과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디지털 사진은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제 사진기술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높은 해상도와, 저렴한 장비들은 우리 가까이 있으며 쉽게 소유할 수 있다.

지속적인 작업은 자신만의 전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 현실에 대한 인식과 통찰, 직관력이 중요하다. 사진과만이 사진작업을 하라는 법은 없다. 시각예술 관련 전공 건축, 미술이론, 디자인, 회화, 조형예술, 사진, 영상, 전공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시각적인 결과물들을 통해서 평가되고 인정을 받게 될 것 이다.

연봉: 1500~4000만원. 스튜디오, 출판관련, 기자, 자유여행가, 영화, 사진영상작가, 강사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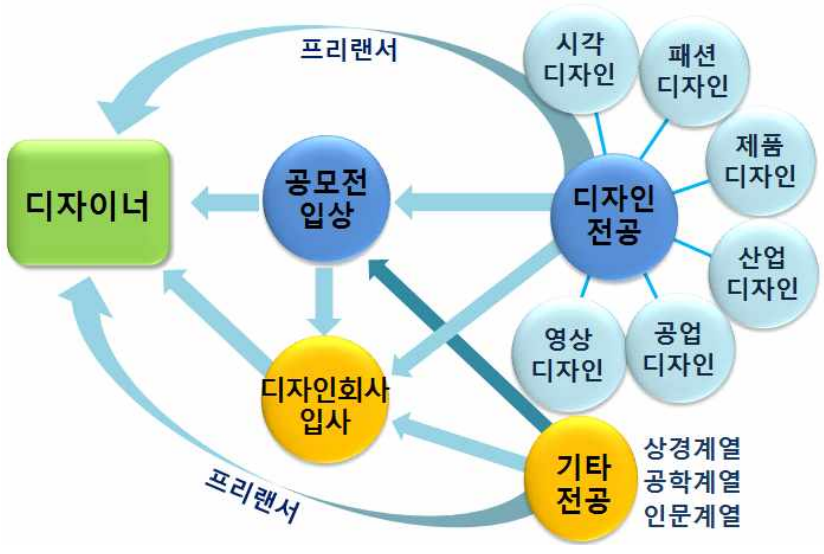
영화: 도시의 엘리스 Alice in the Cities (Wim Wenders 감독: 빔 벤더스) 1974
스틸라이프 Still Life (Jia Zhangke 감독: 지아장커) 2006
코야니시카시 koyaanisqatsi (감독: 갓프레이 레지오) 1983

책: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요(박노해), 느린걸음출판사
사진가의 가방2 (포토넷), 세계사진사 (까치 출판사), 사진가의 사진론 (눈빛), 이미지비평 (이영준)눈빛출판사, 초조한 도시 (이영준)– 안그라픽스 출판사,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예술가의 꿈을 갖는 사람도, 사진매체를 통한 비슷한 직업과 일들도 세상에 수없이 많다. 같은 일이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선과 감정, 직관과 통찰을 통해서 재현된 이미지가 세상에 또 다른 가치의 예술작품으로 탄생될 때, 창조의 기쁨과 예술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계획자 · 고안자 · 발안자 등의 뜻으로, 본래 대상의 유 · 무형에 관계없이 자신의 독창적인 발상이나 착상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 · 설계 · 조직화를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면 현황 분석을 통해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고, 디자인 목적에 맞는 아이디어 스케치 후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한다. 완성된 디자인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의뢰자에게 보내며, 상업용으로 제작될 경우 함께 제작 공정부터 디자인이 시안대로 잘 완성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디자인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제품디자인, 가구디자인, 광고디자인, 포장디자인, 편집디자인, 북 디자인, 서체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웹디자인, 캐릭터디자인, 컴퓨터그래픽디자인 등 눈에 보이는 디자인 뿐 아니라 인터렉션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등의 디자인도 포함된다.

디자이너는 분석적 사고와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혁신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정보력, 색채 감각 및 조형 감각, 기획력이 필요하다. 또한 디자인, 예술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마케팅과 제품 제조 등에 대한 지식과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디자인은 의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필요하다.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 광고디자인, 영상디자인, 조형디자인, 패션디자인, 웹그래픽디자인, 제품디자인 등을 비롯한 디자인 전공 뿐 아니라 순수 미술 전공 출신도 많다. 상경계열, 공학계열, 인문계열을 전공하고 디자인 관련 지식을 습득한 후 공모전 입상이나 디자인회사 입사 후 디자이너로 활동하거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김형진 디자이너

김형진 _1974년생
workroom 공동대표

【학 력】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 동대학원 미술사 졸업
- SADI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경 력】
- 『디자인디비』 기자
- 안그라픽스 디자이너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난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이십대 내내 미술사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디자이너가 되었다. 정말로 그랬다. 다른 분야라면 말도 안 될 일이지만 디자인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디자인의 세부 영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분야의 진입 장벽은 퍽 낮다. 의사가 되기 위해, 혹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할 필수적 과정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선 약간의 재봉기술이,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선 약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의학 지식이나 고시합격증에 비하자면 우스운 수준이다. 어쨌든, 난 그렇게 갑자기 디자이너가 되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그동안 소비만 했던 인쇄된 글자의 세계에 직접 뛰어들고 싶었다. (물론 지금은 인쇄된 글자가 아니라 액정에 디스플레이된 글자겠지만.)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다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른 감각보다 시각에 많이 기대는 디자인의 특성상 눈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소 불필요한 충고일 것이다. 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려하진 않을 테니까. 어떤 구체적인 훈련이나 준비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취향을 갖는 일이다. 바흐가 됐건, 비틀즈가 됐건, 세잔느가 됐건, 뱅크시가 됐건 그 대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취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취향이 지나치게 저열한 것이 아니면 족하다. 자신만의 취향이 있다는 건 분명 디자이너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다. 현대 디자인은 더 이상 기이함이나 독특함을 뽐내는 장소가 아니지만 남들과 차별된 태도와 시각을 가지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가져야할 직업이나 직무는 없다. 디자이너의 공간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디자인은 점진적 세계가 아니라 비약과 단절의 세계다. 물론 대학에서 받는 디자인 기본 교육은 필요할 수 있다. 그 과정을 거친다면 별 다른 노력 없이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타이포그래피 등의 나름 전문 영역에 대한 지식도 비전공자들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로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디자인 전공을 하라고 권하고 싶진 않다. 차라리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지리학을 전공하고 직업으로 디자인을 택하는 편이 그 디자이너의 경쟁력을 보더라도 더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 (한 개인이 일생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전체량을 보더라도 그렇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미래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기란 어렵다. 예컨대 모바일 기기 컨텐츠를 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이너의 (단기적) 전망은 밝을 것이고, 책이나 인쇄물 매체를 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이너의 근미래는 다소 우울할 것이다. 하지만 전망이란 통계학자들, 혹은 경제 분석가들에게나 의미 있는 것이지 그 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지 않나.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디자인 분야는 아마도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전문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기술적 문제는 비교적 단기간의 교육과 훈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취향'을 기르는 일이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이것 역시 '일반적으로 ~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연봉은 대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냐,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큰 에이전시의 아트 디렉터로 있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적 특권은 분명 존재한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그런 게 따로 있을 리 없다. 다만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를 통해 자신만의 '취향'을 기르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디자이너는 거품이 많이 낀 직업이다. 실재의 디자이너는 그 이름만큼 화려하지도, 낭만적이지도 않다. 스타디자이너는 존재하지만 그들을 존중하는 건 기사거리를 찾는 미디어들뿐이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미디어에 비치는 외양에 속은 건 아닌지 꼭 한번은 자문해봐야 한다.

류성원 디자이너

류성원

- Jakarta International School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 졸업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마케팅팀 근무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저는 초등학생 시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민을 가서 10년을 거주하고, 국제학교 졸업한 후 한예종 디자인과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차를 타지 않으면 이동 불가능한 도시에 살았는데,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집안에서 혼자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즐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다녔던 국제학교에서의 교육은 토론과 발표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

럽게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밑바탕을 습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공부한 곳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7:1로 교수/강사와 학생간의 토론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디자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디자인과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학시절 디자인회사(기업 브랜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2회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스타벅스 매장에서 약 1년 반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매장 현장에서 일하면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기업철학과 디자인 등 소비자로서는 접해볼 기회가 없었던 스타벅스의 다른 면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판매만이 아니라 커피관련 재능기부, 봉사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스타벅스라는 회사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현재 마케팅팀 디지털마케팅 담당이 되었고, 온라인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과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디자이너의 범위는 무척 넓습니다. 마케팅 역시 넓은 범위의 디자인(기획) 영역이므로 제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글로벌 음료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브랜드의 로컬 마케팅, 전략 등 할 일이 무척 많기 때문에 스타벅스 마케팅 담당으로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디자인 전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브랜드 디자인 수업과 디자인 마케팅 수업입니다. 두 수업을 통해 다양한 디자인 공모를 준비하며 디자인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 전략 수립 시 창의적 컨텐츠 제작 방법과 그 밖의 고려 사항들 역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공 외에는 예술대학 안에서 공부할 수 없었던 것들을 스스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문제해결 연습, color/design case study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연봉은 사칙상 밝힐 수 없으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경제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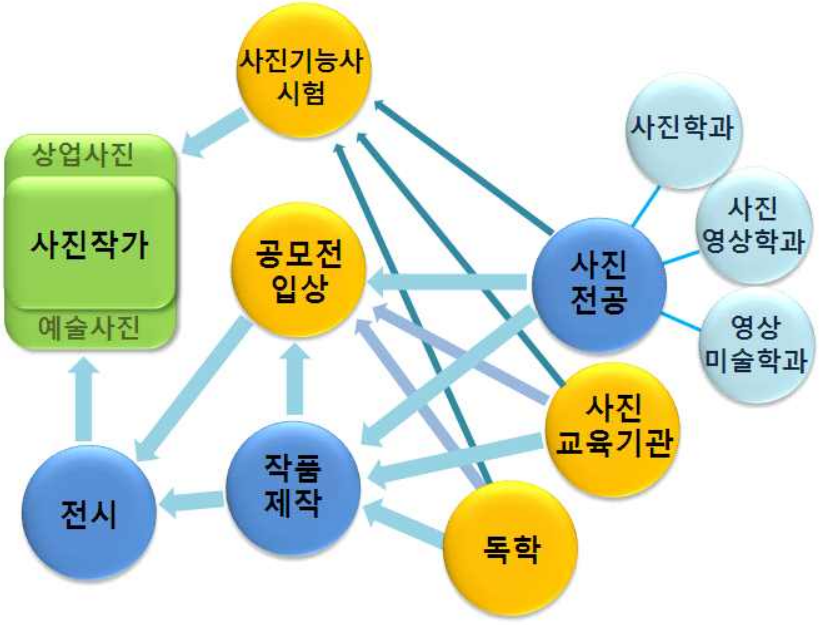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 <circle of innovation(tom peters)>, Vitage Books, 1990
- <이것은 질문입니까?(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입학 인터뷰 질문 60개를 담은 책)>, 랜덤하우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스타벅스 커피는 커피 비지니스가 아닌 사람과 관계에 대한 비지니스입니다. 디자인 역시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되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목표로 일에 임해야 합니다. 비전공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학능력 등 디자이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작가



사진작가는 크게 예술 사진가, 상업 사진가, 보도 사진가로 나눌 수 있다. 예술 사진가는 자신의 생각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표현한다. 상업 사진가는 회사나 단체, 개인의 주문을 받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사진을 제작한다. 보도 사진가는 신문의 기사 내용과 맞는 적절하고 사실적인 사진, 신문 기사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현장의 사진을 찍는다.

사진작가라고 하면 예술 사진가만을 생각하지 쉽지만, 예술 사진만으로 경제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상업 사진이나 보도 사진과 병행하면서 자신의 작품 을 제작한다. 또 상업 사진이나 보도 사진이 미학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거나 의미를 획득하여 전시를 하는 경우 예술 사진과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현대의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는 것으로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편집으로 사진을 기록의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미적인 감각 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활동, 호기심과 적극성, 활동성이 필요하다. 또한 상업 사진을 위주로 찍을 경우에는 주문자의 요구를 잘 이해하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대상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순발력과 관찰력, 신선한 아이디어 등을 필요로 한다.

사진 관련 전공에는 사진학과, 광고 사진과, 사진 영상학과, 영상 미술학과 등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많은 예술 사진가는 사진 전공보다 미술, 인문학 등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한 후 작품 활동을 한다. 상업사진 관련 자격증으로는 사진기능사가 있으며, 시험을 통과하여 전문성을 공인받은 경우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방병상 사진작가

방병상 _1970년생

【학　력】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디자인 전공 졸업

【전시경력】
주요 개인전
- 2010 Too Young To Die, 성곡미술관, 서울
- 2009 SHE IS...,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 2006 Travel Mode, Korea갤러리, 베를린, 독일

단체전
- 70여회

【 수상경력 】
2000 젊은 사진가상 수상, 월간 사진예술.
2003 다음 작가상 수상, 박건희 문화재단
2004-2005 창동미술스튜디오 레지던시 입주작가

【 출판 】
2006 도시를 보는 세 가지 시선, 눈빛, 서울
2004 Looking at the Sunny-Side, 박건희문화재단, 서울
2002 낯선 도시를 걷다, 유나미디어, 서울

【 작품소장 】
경기도미술관(안산,경기),대구시립미술관(대구),국립현대미술관(한국), 동강사진박물관(한국), 박건희문화재단(한국), K-mopa(기요사또,일본)), JGS파운데이션(뉴욕,미국)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사진에 특별히 관심이 생겼던 계기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보고 난후 감동을 받고서였다. 그리고 이후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 만일 미대에(사진전공) 진학하겠다고 진로를 결정했다면, 학교의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독서를 통한 문학적인 소양과 인문학적 이해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을 해석하며 바라보려는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진 전공 관련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적성 분야를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진관련 직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광고사진분야 : 패션 및 광고사진가, 출판사 및 잡지사, 편집 디자이너, 패션사진가, 자영 스튜디오, 디자인기획실, 컴퓨터그래퍼, 기업체 홍보요원, 종합 광고대행사 아트 디렉터 및 AE, 편집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패션사진가, 교수, 사진기자, 디자인기획실, 광고 디자이너.

다큐멘터리사진분야 : 신문사와 잡지사의 사진기자, 저널리스트 및 방송기자, 기업체 홍보요원, 편집 디자이너, 웹 매거진 기획 및 디자이너, 사진예술가, 교수, 촬영감독, 비디오 저널리스트,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비디오 편집

순수사진분야 : 사진예술가, 비디오아티스트, 영화감독, 저널리스트 및 방송기자, CF감독, 촬영감독, 영상 디자이너, 출판사 및 잡지사, 방송국, 등의 사진기자, 기업

체 홍보요원, 교수

디지털미디어 : 신문사 사진기자, 웹진, 카메라 회사, 웹 마스터, 방송국 기자, 비디오 저널리스트, 디지털출력, 전자쇼핑몰, 디지털카메라 판매업, 영상편집, 이미지샵. 멀티미디어 제작, 웹 제작, 홍보실, 방송국, 인터넷 방송국, 모바일 콘텐츠 제작, 영상 디자이너, 교수, 비디오 아티스트.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위의 직업군은 각 전공의 세부 분야에서 서로 중복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좋아하며 관심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몇 가지 세부 분야를 선정하여 방학 기간에 또는 졸업 이후에 실습을 통한 직접적인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히 고집하는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만큼은 다른 전공분야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전공분야의 깊이를 넓힐 수 있게 된다. 오늘날처럼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통용되는 시대에는 또한 그에 걸 맞는 멀티플 인재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사진 분야의 취업률은 2000년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해마다 많은 사진 전공자들이 배출되어 그나마 줄어든 일자리를 경쟁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오프라인에서 소통되고 있는 인쇄매체가 급격히 줄어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SNS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미디어시대의 흐름을 읽는 시대적 관심으로 사진과 영상, 미술, 디지털, 인터넷, 미디어아트 등의 분야를 병행하며 공부를 한다면, 새롭게 창출되는 직종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내 직업을 기준으로 언급하자면, 나는 사진매체를 기본으로 하며 영상작업도 병행하는 작가, 전문가, 선생으로서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굳이 사진 전공을 선택해 공부하기보다는, 사진을 심화해서 배울 수 있는 미술대학으로 진학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사진작가 혹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진 매체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 진로를 선택할 때 학교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길 바란다. 또한 기술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문학, 미술사, 사진사 등의 이론적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병행해야 할 것이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사진관련 분야에서 10년차라면 각종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농익은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대부분 이러한 연륜으로 자신만의 사업체를 꾸려 일할 수 있고, 이는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훨씬 많은 고소득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력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적성도, 시기성, 노력 등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1. 사진입문 1.2.3–눈빛/정상원,
2. PHOTOGRAPHY–타임스페니스/바바라런던
3. 예술사진의 현재–월간사진/수잔브라이트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막연히 사진 분야에 대해 동경하는 것보다는 시대성과 전문적 영역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목표를 정했다면, 그 분야의

롤 모델을 찾아보고 그들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전 조사는 자신이 정한 진로에 대해 더욱 확신이 들게 할 것이다.

민병훈 사진작가

민병훈 _ 1976년생

【학 력】

- 2003 경원대학교 회화과 서양화전공 졸업
- 2007 경원대 디자인문화정보대학원 미디어아트 졸업

【전시경력】

개인전

- 2006 Polaroid Poster展 , 대안공간 루프_Platform L , 서울

그룹전

- 2007 Black Powder + White Party, 경희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06 Living Furniture_ Sea Art Festival, 부산비엔날레, 부산
  circuit diagram展 , 송원아트센터 , 서울
- 2005 trans /REMAKE展 , 대안공간 >>team_preview, 서울
  UN VILLAGE 35호 展 , 한남동 유엔빌리지 35호 주택, 서울
  제3회 시사회 展 –대안공간 >>team_preview, 서울
- 2003 Simmering–Plenty–Funny展, Hall way–Post, 성남
  Strippers Camp展, Gallery Yada, 나고야, 일본
- 2002 3Round展, club 빵, 서울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중·고교시절의 다양한 경험들은 나중에 뛰어난 사진작가가 되기 위한 밑바탕이 됩니다. 음식사진을 찍기 위해선 그 음식의 맛을 알아야하고, 여행사진을 찍기 위해선 현지의 문화와 사람들을 알아야하며 인물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작가를 꿈꾼다면 나중에 어떤 대상과 마주하며 사진을 찍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프로 사진가들이 가져야 할 소양 중 숙련된 사진기술 못지않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사진가가 된 이후에 쌓이기도 하지만 어릴 적 특별한 경험을 통해 얻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자료수집과 취미로 처음 사진을 접하여 점차 그림보다는 사진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미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 하나로 사진을 접하였기 때문에 사진의 깊이감이나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사진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술대학 내에 사진 교양수업이나 타과에 개설된 패션사진 과목을 들으며 사진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진 동아리 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지도교수도 사진을 잘 아는 학생도 없었던 상황이라 서로 책을 보고 먼저 이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학졸업 후에는 주로 영화포스터를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상업사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기업홍보에 관련된 제품 런칭, 워크샵, 세미나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술활동을 하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디지털 사진이 등장하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

려운 기술적 문제는 디지털 장비가 발전하며 보완해주고 있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던 암실작업도 포토샵을 통해 누구나 간단하게 사진수정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취미로 사진을 찍던 사람들도 직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이제 특별한 능력과 센스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있습니다. 앞으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은 새로운 장비에 적응력이 높거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될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김중만(서양화), 강영호(불문과), 조선희(의생활학), 배병우(공예도안과)와 같이 현재 활동하는 유명한 사진작가들 중에도 사진과는 무관한 전공의 학과를 졸업한 이들이 많습니다. 사진작가가 된 다른 계기가 있었겠지만 사진과 전혀 관계없을 것만 같은 이같은 전공들도 훌륭한 사진작가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진이론에만 몰두해 자기세계에 갇힐 위험성도 있습니다. 사진을 전공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대학진학은 사진 외에 다른 분야에 도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미술, 철학, 음악, 건축 등 어떤 과를 선택하든 나중에 사진가가 되었을 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할 전공이 지금 흥미가 있는지 입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직접 자신을 홍보하고 고객과 일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며 거래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화시켜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광고주들이 참신한 생각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젊은 사진작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기에 적은 나이에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 시계태엽 오렌지 (1971)_ 스탠리 큐브릭 (미래를 표현한 셋트가 인상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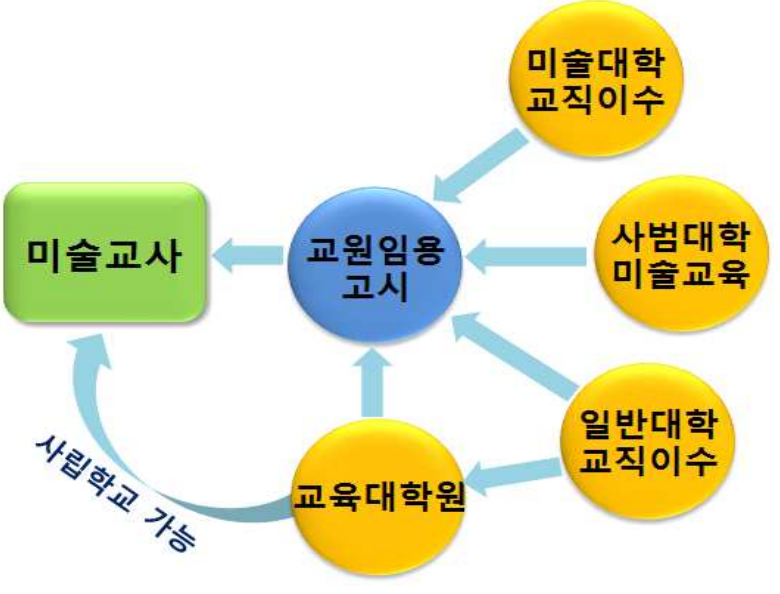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해 강제로 눈을 뜨게 하고 영상으로 세뇌시키는 장면은 매우 전위적입니다.)

- Blow-Up (1966)_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주인공이 사진작가로 등장하는 이탈리아 영화. 예술영화임에도 전개가 지루하지 않고 주인공이 고뇌하는 사진이 갖고 있는 실재에 대한 의심을 철학적으로 다뤘습니다.)
- 전함 포템킨 (1925)_ 세르게이 M (러시아 전위영화로 전체 상황과 클로즈업된 인물이 교차 편집된 몽타주 기법은 당시로선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총격전 속에 계단을 내려오는 유모차의 유명한 장면은 언터쳐블에서 오마쥬로 쓰였습니다.)
- 피크닉 (1996)_ 이와이 슌지 (이와이 슌지 감독의 영화는 모두 추천합니다.)
- 뇌_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출판사_열린책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사진의 역사가 시작된 지 170여년이 지났으며 이젠 어디서도 보지 못한 완벽한 창작사진이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대신 기존의 것을 다른 매체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혹은 편집하느냐로 창작의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려면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훈련과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사고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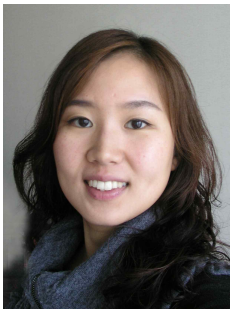
미술교사는 크게 중등학교 미술교사와 미술 실기강사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중·고등학교의 경우 미술교사가 미술 수업을 진행하지만,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 미술중점학교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여러 시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술교사 외에 미술 강사의 수가 더 많다.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사범계열학과를 졸업하거나 비(非)사범계열학과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비사범계열학과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등교원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사립 중·고등학교는 결원이 있을 때,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채용한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채용한다. 미술 실

기강사의 경우 서양화, 동양화, 조소, 판화, 디자인 등 미술관련 전공자가 학교별 자체 시험을 통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역량을 검증받고 실기강사로 임용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등을 필요로 한다. 그중에서도 미술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개성, 장점 등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술교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내고 학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해영 미술교사



서해영 _ 1983년생

- 2002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2009 동대학원 조소과 졸업

【Group Exhibition】

- 2010 <신진작가 ART FESTIVAL '꿈틀'>,공평아트센터, 서울
- 2009 <와우 플라스크 B>홍대 거리미술전, 서울
- 2008 <산산이 부서진 세계-전북도립미술관 전시기회공모전>,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EXODUS 2008, Domino Effect>, 이화여대 미술관, 서울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을까> 갤러리 우덕, 서울
  <우리안의 신화> 토탈 미술관, 서울
- 2007 <현대미술의 소통전>율 갤러리, 분당
- 2006 <Wonder You> 서울대학교 우석홀, 서울

【수상경력】

경향미술대전 조각부문 입상, 경향신문사 주최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혼자 조용히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저의 꿈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조각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절에 부모님의 권유로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이 되어 교생실습을 가게 되었을 때는 정말 괴로웠고 그 스트레스로 휴학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한 달 동안 고등학교에서 교생실습으로 미술수업을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가르치는 일이 참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미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제 전공을 할 때만큼이나 열정을 갖게 했습니다.

교생실습 약 1년 뒤, 예고에서 공채로 11명의 선생님을 충원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제 전공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예고 조소과 강사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고 실기강사는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대학원수업을 듣는 일정과도 병행할 수 있었고, 기술이 중요한 실기과목을 10~12명 정도의 소수학생을 전문성 있게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의 적성과 성격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개인미술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3일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작업이나 개인적인 공부, 수업준비, 취미활동, 휴식 등 자유롭게 일정을 잡을 수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부양가족이 없이 생활하기에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이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6년 정도 예고에서 근무하면서 이 직업이 가진 여러 가지 다른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예고미술

부는 미술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 입시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것과 그러면서도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미래의 예술인으로서의 자질을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한예종을 비롯해 많은 미술대학들 창의성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맞춰 예고에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예고가 예술을 가르지는 것이 아니라 대형 입시 학원 같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획일화되고 개성을 무시하는 교육 방식을 가진 데에 회의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예고에서 재능 있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경직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저 스스로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경제적인 이유와 제 작업 활동을 위한 적당한 직업을 찾기 위한 이유에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저에게 어떤 책임감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몇몇 학생들이 저처럼 예고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예고 선생님의 꿈을 가진 중, 고등학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자신의 적성을 잘 찾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즐겁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일이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잘 배려하고 학생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에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한다면 미래의 예고 선생님으로서의 준비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예고 실기선생님의 장점은 시간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활용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고 강사선생님들은 학교수업이외에도 개인 작품 활동, 대학 강의, 화실운영, 개인적인 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고에서 전문성을 가진 실기선생님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일을 병행해나가면서 자기계발의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제가 알기로는 예고에서 실기강사로 일을 하려면 미술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고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서울대, 홍대, 이대 출신 선생님이 대다수이고, 서양화전공을 하는 학생이 가장 많이 때문에 서양화 전공을 하신 강사선생님들이 제일 많고, 디자인, 동양화, 조소, 소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느냐는 자신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예고 선생님이 되는 것은 그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참고하되 따라가지 말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고민해 본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예고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 홍대 이대, 한예종 등의 대학이 유리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대학을 자세히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예고강사로 10년을 일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연봉은 선생님의 실적과(입시) 그 해에 받는 수업 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제로 월급을 받고, 1,2,3학년의 수업시간과 시간당 급료가 다르고, 방과 후 학교수업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평균 연봉을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지위 또한 10년 동안 쌓은 실적과 자기계발 활동의 양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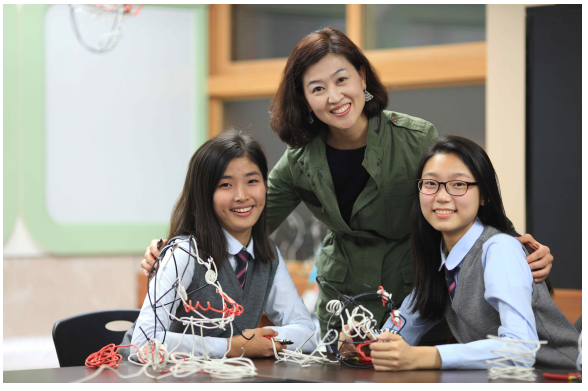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저는 중 고등학교 때 교과서 이외에는 책을 많이 보지 않았지만,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작가들의 삶의 담은 영화와 다큐멘터리는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까미유 끌로델, 반 고흐, 잭슨 폴록, 바스키아 등 미술가의 삶을 다룬 영화들이나 모차르트, 불멸의 연인 등 음악가를 다룬 작품들도 보면 재미도 있고, 다양한 예술가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많으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예고 실기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을 잘 선택하고, 그 재능을 잘 펼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사를 들어갈 때 학교성적이 중요한 것처럼, 예고선생님이 되려면 학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실하게 중·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을 열정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분명 자신이 꿈꾸는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혜정 미술교사



송곡 여자 고등학교 미술교사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중·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어선생님을 좋아했었는데요, 늘 재미난 이야기로 수업시간을 흥미롭게 이끌어주시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진로를 정해 미술학도의 꿈을 키워나가는 중 교직에 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사범대 미술교육과에 진학해 4년 동안 교육학 공부와 전공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사범대학이 없어지는 추세라 미대를 진학해 교직을 따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술을 하면 미대진학은 물론 미술교사가 되는 것이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실기뿐 아니라 학과 공부 또한 잘해야 하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하는 격입니다.

교사는 다른 직종과 달리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라 바른 인성과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감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어떤 그릇된 행동이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며 지탄 받는 것 같습니다. 교사는 사람을 길러내는 직업이라 어떤 바람직한 인간상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육현장 실습입니다. 4주간 진행되는 교생실습을 말하지요. 사회에 나가기 전 대학교 4학년 때 학생들과 생활하며 실제 수업을 해보고 학교생활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해보게 되는데 학과를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체험학습, 동아리지도, 야간자율학습 지도 등 모두 체험하게 됩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학교생활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데 힘들고도 보람됩니다. 얼마 전 EBS 교사 성장 프로젝트 프로그램[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무척 개성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이런 학생들과의 생활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데요, 학생들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요. 어느 정도의 통제와 장악도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리더쉽과 수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학생, 교사,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폭함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술교육이 단순한 전문분야로의 진학 및 특정 직업군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미적 아름다움의 창출자로서 전문 인력으로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과후학교 및 문・예・체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미술교사의 직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술교육을 통해 사회전반 및 교육 분야로 진출해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첫 번째로 사범대학을 진학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교직이수가 되는 미술대학이나 디자인 대학을 진학해서 교직이수를 신청해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직과목을 이수할 자격은 성적이 상위10%이내만 가능하며 전공필수과목과 교직과목 성적관리가 필요하며 세 번째 방법으론 대학 학부 때 교직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교육대학원을 진학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교직 10년차에 연봉은 3200만원~3300만원 정도이며 교육에 종사하는 직업으로, 타 직종에 비해 소득수준은 높지 않으나, 사회적 인지도나 신뢰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생각보다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미술에 있어 좀 더 폭넓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폭넓은 지식을 위해서는 평소 미술계에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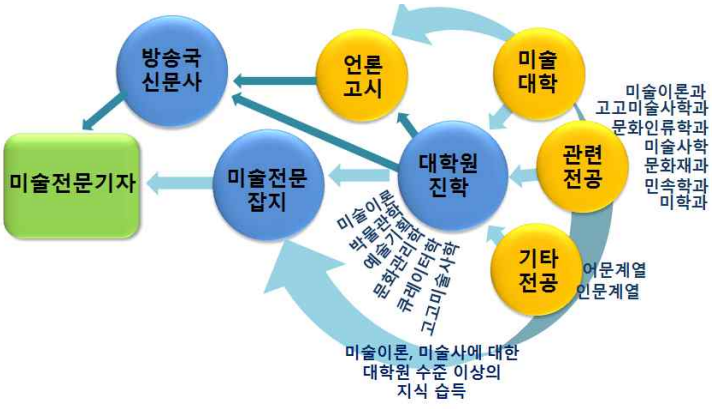
- [나는야 꼬마 큐레이터]/이현/미진사
- [예술가의 방]/김지은/서해문집

미적감수성을 키우는 예술 감성 교육이 소개되며, 우리나라 현대미술작가 10인의 작업실을 찾아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좋은 책으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청소년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1. 어느 분야로 진출하든,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대한 균형 있는 공부가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평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자신의 능력 및 재능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임을 잊지 말고, 향후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교양서적 독서 및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미술전문기자



미술전문기자는 미술계의 소식과 전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매체에 소개한다. 작가와 작품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뿐 아니라 미술계의 이슈를 비판적으로 다루는 기사도 작성한다. 새로운 특집을 기획하고 작가와 큐레이터를 인터뷰하며, 전시 및 작품의 평가와 해석을 글로 표현하기도 한다.

미술전문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작품과 미술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논리적인 글쓰기, 기사에 대한 책임감과 기획력이 필요하다. 인터뷰나 정보 수집 등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교성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매체가 처한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변화하기 때문에, 미술전문기자를 하기 위해서는 순발력과 미술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 평소 미술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소한 부분도 간과하지 않는 섬세함과 호기심이 필요하다.

대학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전공의 제한은 없지만 미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미술이론, 큐레이터학, 고고미술사학, 문화인류학, 미학 등 미술 관련학과나 정치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등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미술전문기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술이론, 미술사에 대한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 하며, 한자, 영어 등 폭넓은 어학능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호경윤 미술전문기자

호경윤 _ 1981년생

미술전문지 월간 [아트인컬처](art in culture) 수석기자

【학 력】
- 동덕여대 큐레이터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전문사 재학

【경 력】
- 전시《출판_기념회》(2008, 갤러리팩토리) 기획
- [네이버] [주간동아] 등 기고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내가 일하고 있는 잡지 <아트인컬처>는 매달 한 번씩 나오는 미술 전문지다.

1999년 창간해서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영어 잡지 <art in ASIA>와 온라인 정보 채널 <art WA>도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역시 매체가 처한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또한 잡지사는 그리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회사 운영 전반에 가담하게 된다. 잡지사에서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 및 진행을 맡게 된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성격과 순발력과 끈기이다. 기자를 하기 위해서는 '스펙'보다는 타고난 천성, 혹은 미술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 평소 부지런하게 현장을 발로 뛰어 다니는 자세와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이 발동하는 성격의 소유자여야 하고,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잡지 기자는 매달 새로운 특집을 기획해야 하고 여러 명의 작가와 큐레이터를 인터뷰해서 글을 써야 한다. 아무리 미술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해도 매달 한권씩 책을 내는 일은 매우 고되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나의 생활 패턴 또한 한 달 주기로 고정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잡지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매력은 자유로움이다. 나는 원래 고등학교 때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 동덕여대 큐레이터에 진학했다. 당시 큐레이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학원비 때문에 미술 실기를 포기했지만 큐레이터를 하면 계속 미술 주변에서 서성일 수 있어서였다. 하지만 막상 대학을 다니면서 현장을 알고 나니 큐레이터는 소속된 갤러리나 미술관에만 하루 종일 박혀 있을 뿐, 다른 전시장을 보러가기가 어려웠다. 그에 반해 기자는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다. 취재 차 해외 출장도 가고, 인터뷰 차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잡지의 두 번째 매력은 수많은 정보들이 모인다는 점이다. 팩트(Fact)를 통해 객관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시기에 중요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수월하다. 세 번째 매력은 잡지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미술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안에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독자에게 관철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나는 조금 특별한 계기로 <아트인컬처>에 들어오게 되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계기로 이틀간 <아트인컬처>의 슬라이드 필름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당시 선배 기자가 시켜 독자 편지를 쓰게 되었고, 학생치고는 글을 잘 쓴다 하여 대학 생활 내내 이곳에서 단신 뉴스 등 잡다한 일들을 돕는 마감 알바를 했다. 졸업과 동시에 정식 기자가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잡지사 기

자로 정신없이 몇 년이 흘렀고, 공부에 대한 목마름과 나 자신의 부족함 등으로 최근 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재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미술이론과 전문사에 재학 중이다. 늘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정신없이 쫓아다녀왔는데, 학교에서 동서양의 미술사, 예술철학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니 일을 할 때도 훨씬 자신감이 붙는다. 또한 미술전문기자로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때로는 패션지나 시사지 등에 미술 관련 원고를 기고하고, 공모전의 심사나 추천을 맡기도 하며 내가 직접 전시를 기획하기도 한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미술잡지 기자는 일간지(신문) 기자와 달리, 언론계보다는 미술계 일원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의 총감독을 맡았던 비체 쿠리거(Bice Curiger)는 원래 미술잡지 <파켓(Parkett)>의 편집장이다. 또한 작년 광주비엔날레의 총감독이자 전세계를 무대로 뛰는 큐레이터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역시 미국 <플래시 아트(Flash Art)>의 편집장 출신이다. 잡지기자는 그 누구보다 미술 현장의 정보를 빨리, 많이 알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력이 붙을수록, 전시기획자, 미술평론가 등 다양한 활동을 겸하며,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나가는 일원이 될 수 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눈으로 본 것을 글로 옮겨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국어 능력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글쓰기(논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글을 맞춤법 교정, 편집하는 능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미술 이론 관련 전공(미술이론, 미술사, 미학, 큐레이터, 예술학 등)을 한 사람만 기자가 되리란 법은 없다. 그러나 배경 지식으로 미술 이론이 깔려 있다면 훨씬 일

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평소에 미술 잡지는 물론 영화 잡지, 시사 주간지, 패션지, 신문 등과 같은 인쇄 매체를 끼고 보되, 그냥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실린 그림, 디자인 레이아웃과 함께 기획, 구성 등을 꼼꼼히 분석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는 연봉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신은 공평하다. 한 달에 일주일 이상 야근과 밤샘 작업을 해도, '칼퇴근' 하는 공무원 월급과 비교도 안될 만큼 연봉은 초라하다. 또한 기자는 '승진'이라는 개념이 없다. 편집장 이하 기자는 '연차'만 존재할 뿐 실장, 과장, 차장 같은 직함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를 오래하다 보면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대신, 10년 정도 활동하다보면 외부로부터 원고료, 심사료, 강의료 등 다른 부수입이 생기곤 한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러브콜이나 혹은 잡지에 실린 내 글을 본 독자의 반응을 통해 이따금씩 나의 사회적 지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 월간 <아트인컬처>: 매달 한국미술 현장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미술전문잡지. 다양한 전시 리뷰와 작가론, 비평문을 통해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와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 미셸 우엘벡 <지도와 영토>: 미술 현장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예술가의 삶과 고민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 사라 손튼 <걸작의 뒷모습>: 아트페어, 비엔날레, 미술대학, 작가스튜디오, 경매장, 미술잡지사, 미술상 등 총 7가지의 주요 미술 기관을 테마로 현대미술의 화려한 무대의 뒷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미술잡지는 종이 위의 전시장이다. 따라서 기자로서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큐레이터의 눈으로, 때로는 평론가의 눈으로 전시를 보면서, 동시대 미술현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잡지 기자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 중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네트워크다. 작가와 큐레이터들과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독자 혹은 대중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민용 미술전문기자

윤민용

경향신문 기자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기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상의 온갖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이를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생 무렵이었습니다. 늘 깨어있으며 뭔가를 배운다는 점이 좋아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보니 그중에서도 문화부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언론고시'라는 관문을 거쳐야 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외에도 기존의 평론가, 칼럼니스트를 비롯해 최근 블로거 등 다양한 지식생산자와 정보전달자들이 생겨나고 매체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한 문화부분의 정보생산은 대부분 언론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기자로 일한 경험에 비춰 감히 말하자면, 기자가 되기 위해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따로 준비하고 체험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깊이있는 독서와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간 주로 문화파트에서 일하며 문화콘텐츠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관련인사들을 인터뷰하며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고, 전시를 보고 와서 기사를 쓰며 느끼는 가장 큰 아쉬움은 '좀 더 고전을 많이 읽어둘 걸', '역사와 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어제에 비춰 오늘을 보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금 일어나는 숱한 사건, 현상이 갖는 의미를 통찰력 있게 파악하는데 역사와 철학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 기사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목적이었지만 최근 추세가 달라지면서 정보 전달은 물론이고 스토리가 있는 기사,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소구하는 기사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자를 매혹하기 위해서는 기자 개인의 남다른 관찰과 해석능력이 중요시된다는 말이죠. 남과 다른 나만의 '눈'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체험과 상상력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한 간접체험과 전시를 보고 음악을 듣고 공연을 보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의 문화예술체험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감성과 문화적 상상력을 확장시켜줍니다. 기자는 늘 '팩트(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쓰지만, 경험과 감성, 상상력이라는 세 박자가 갖춰지지 않으면 깊이있는 기사를, 마음을 움직이는 기사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어시간에 숱하게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글쓰기의 3원칙에 대해 들으셨을 테지요? 기자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이를 글로 풀어쓰는 일을 즐겨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더불어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현재 이슈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범함과 사교성도 필요하죠. 여기에 문화부 기자, 특히 미술전문기자라면 교양 이상의 풍부한 배경지식과 분석력, 미술 작품을 보는 눈을 갖추면 금상첨화겠지요.

다양한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기르지 못하면, 저자가 하는 말에 휘둘리고 말거든요. 특히 미술 작품과 관련해서는, 전시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그림을 보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실마리를 통해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작가에 얽힌 이야기들, 당시 그림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에 관한 책들도 찾아보고, 관련된 영화도 찾아보는 등 가지를 치다보면 감성도, 상상력도 훌쩍 자라있을 겁니다. 이 같은 감성과 상상력은 훗날 삶의 자양분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현재 우리나라 일간지에서 미술전문기자는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일간지의 인력 채용 특성상, 특정 분야의 전문기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수습공채를 통해 선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서별로 배치 후 담당을 배정하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희망, 의지를 배려해 담당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SNS의 발달·모바일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기사 스타일에서 좀 더 분석력 있고 자신만의 시각이 담긴 기사로 기사작성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자 개인의 역량, 전문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소득 상승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진 기자들의 출현과 활동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앞서 언급했듯, 한국의 언론상황에서는 미술전문 기자가 되기보다는 우선 언론사

기자가 되어야 미술전문기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 취업은 공채시험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언론사 성원의 전공은 인문학에서 사회과학, 경영학, 이공학 등 다양합니다. 대학시절 전공은 언론사 입사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타인에 대해, 사회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지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문학과 사학, 철학에 대한 깊이있는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연봉은 언론사마다 정한 기준이 있어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동시에 기자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특별히 사회적 지위에 얽매여서도,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기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란 연령, 성별, 신분을 막론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부터 높은 곳에 있는 이들까지 만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취재원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이, 일반인들이 기자에 대한 인상과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품위있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내가 속한 언론사가, 기자들 전체의 이미지가 평가받으며 이에 따라 기자들의 사회적 지위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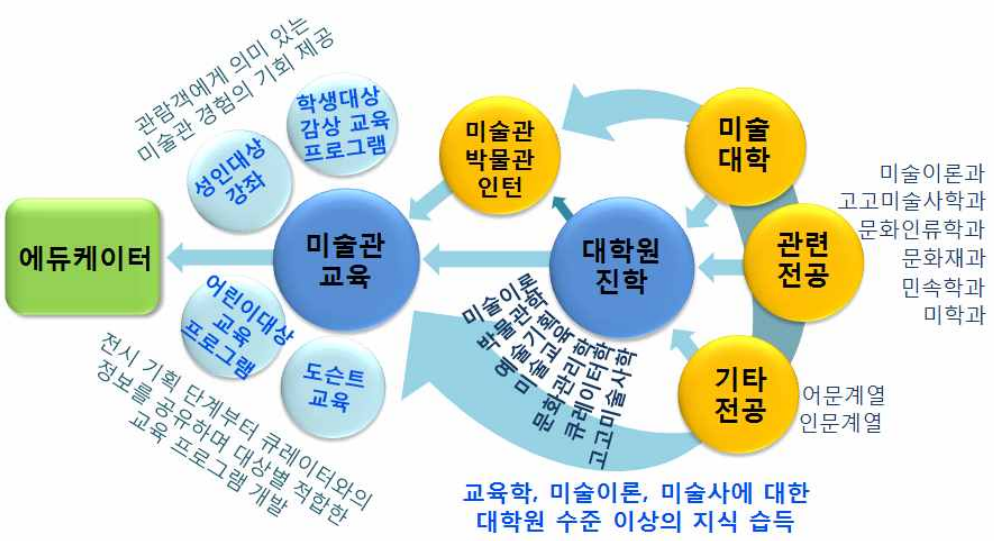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좋은 시와 소설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문학작품 뿐 아니라 역사와 철학 등 인문학의 고전 등을 읽기를 권합니다. 요즘에는 청소년을 위해 쉽게 풀어쓴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른바 명작으로 분리는 영화, 그림,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작품을 읽고 듣고 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미술사 공부를 할 경우에도, 인접한 문화예술과 역사, 철학 등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미술 작품을 해석할 때 몇 중의 수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양분을 청소년기에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글쓰기와 사람만나기를 즐겨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사건과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 순발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 취재와 인터뷰를 위해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요. 늘 깨어있어야 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하는 직업임을 잊지 마세요.

에듀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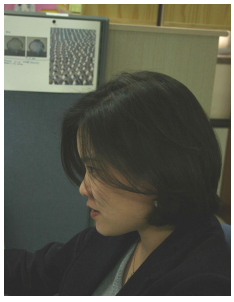
에듀케이터는 미술관교육 전문 인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평가하고 교육관련 인적자원과 재정자원의 운영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람객과의 소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전시품 해설, 도슨트와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지도, 교원실습, 전시강좌 시리즈 운영, 토론회, 세미나 등 여러 교육 활동의 연구와 그 실천이 이에 해당한다.

에듀케이터는 미술관의 특성과 미술관에서 교육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 이해, 교육 목표 설정,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진행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 이상의 교육학, 미술, 그리고 미술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가르치는 과정과 대상에 대한 열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대상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력을 갖춰야 한다. 에듀케이터는 미술관의 모든 업무와 협업을 해야만 하므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성이 필요하다. 미술관 소장품, 전시 작품 등 미술관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미술관 자료와 관련된 학문적 이해와 배경을 갖추고 큐레이터와 원활하게 협업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관 교육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에듀케이터가 단독적인 직책으로 있는 곳은 극소수이다. 아직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에듀케이터는 학예직이나 기타직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미술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육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장은 에듀케이터



조장은 _ 1976년생
국립현대미술관 에듀케이터(교육관)

【학 력】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미술관학과 미술관교육 전공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rt History 전공

【경 력】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에듀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전시 연계 교육, 전문인대상 교육, 국제교류업무, 사회교육 등을 기획 운영하였으며 현재 교육문화창작스튜디오에서 교육문화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관으로 재직 중이다.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에듀케이터입니다. 흔히 미술관에서 일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면, 큐레이터, 즉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을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관은 “문화 ·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을 연구 · 조사 · 전시하며, 작품을 수집하고, 대중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에서의 중요한 활동인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전문가, 에듀케이터 또한 큐레이터만큼이나 중요한 직종입니다.

즉, 에듀케이터는 미술의 창작영역과 소비 영역를 매개하는 영역을 담당합니다. 매개영역은 평론가, 아트 딜러, 미술교사, 에듀케이터, 큐레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 평론은 글로써 매개역할을, 아트딜러는 유통을, 큐레이터는 전시로, 에듀케이터는 미술관교육으로 그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술관에서 전시의 기획 단계부터 큐레이터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대상별 적합한 접근방식을 발굴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시 중심의 공간으로 태어난 국내 미술관의 역사적 특성상, 큐레이터 보다 다소 덜 알려져 있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전시와 작품의 의미는 결국 관람객과의 소통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미술은 작가의 관점이나 이념, 개성, 그리고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결과지어지는 창작물인 만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적 요소가 제공되어야 관람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에듀케이터는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에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와 방향을 제시하여, 각자 자기만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시, 작품일지라도 관람객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케이터는 일반 성인, 학생,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의미 있는 미술관 경험의 기회를 제공 해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직업인 것입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에게 작품을 설명해 주는 해설사(도슨트)의 활동, 성인대상 강좌, 학생을 위한 감상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등은 모두 에듀케이터의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들입니다. 또한 요즘은 온라인 매체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한 교육적 서비스도 활발히 진행 중이어서, 에듀케이터의 역할과 활동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희망은 작가 또는 큐레이터 정도로 매우 한정적입니다.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 해 보면, 보다 다양한 직업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문직종을 찾아 학창시절부터 꾸준히 준비 해 나간다면, 우리 미술계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과 발전 분야도 한층 풍성 해 질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국외 유명 미술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자하는 다양한 변화와 노력을 통해 관람객과의 지속적인 교류, 미술관의 정체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전시로만은 미술관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술관교육 분야는 끊임없이 발전, 진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나갈 유능한 에듀케이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작품을 직접 창작하는 것보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 해석하는 것, 또는 다양한 작품과 작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관람객에게 이들을 소개 해 주는 매개자인 에듀케이터를 꿈 꿔보는 것은 분명 경쟁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미술관교육 업무를 위해서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도, 교육적 지식, 문화예술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 지식과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술사, 교육학 관련 분야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많은 작품을 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작품을 자주 접하다보면 작품을 해석하는 본인만의 관점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람객과의 소통의 방식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미술관이라는 공간은 일반 기업과 같이, 명확한 승진체계(career path)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국공립 미술관인 경우, 경력이 쌓이면 연봉이 올라갈 것이고 사립미술관인 경우, 미술관 마다 정해진 연봉 체계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의 경력이라면 본인 스스로 느끼는 보람과 성장의 발견, 인맥의 확장 등 연봉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자원이 직업인으로서의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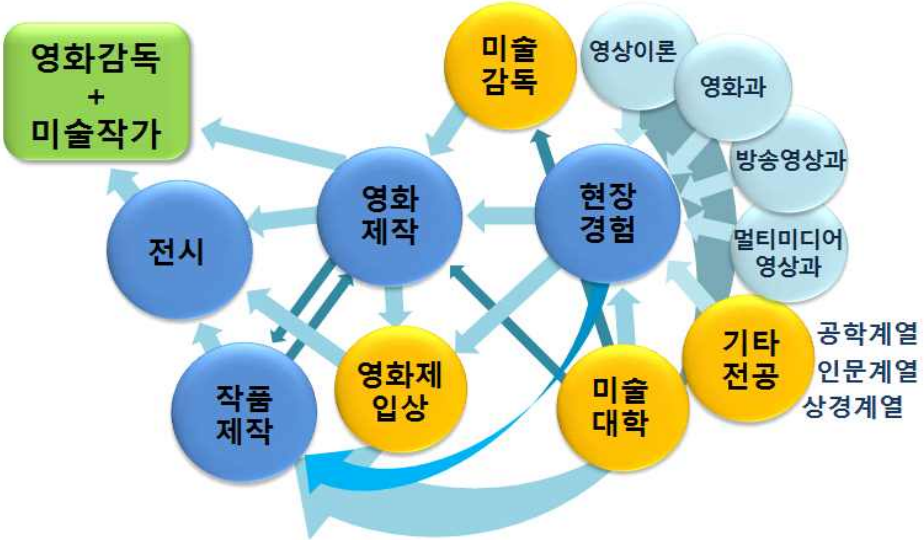
최근 현대미술 또는 시각예술 관련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이론 중심의 서적도 필요하지만,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서 서술 한 편안한 책들을 먼저 접하면 현대미술에 대한 부담감 없이 쉽게 다다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광고, 디자인, 건축, 영화, 교육학 및 인문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양서를 고루 접하는 것이 향후 에듀케이터로 활동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미술관교육은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등 동시대적 감각을 반영하는 시각 예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접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선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강건한 체력,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사회현상도 빠르게 익혀야 합니다. 요즘 뭐가 유행이고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미술계는 인력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큐레이터에만 직업을 한정하기 보다는 에듀케이터, 전시디자이너 등 발전 가능성 있는 전문직종을 개척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우리 미술계가 더 풍요로워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화감독 겸 미술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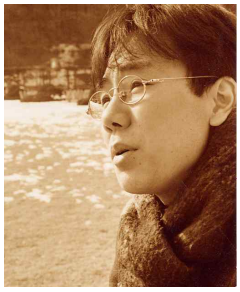
영화감독이 하는 일은 작품의 주제, 성격, 제작방침,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배역을 선정하고 제작진을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촬영현장의 답사와 세트 디자인을 결정하고 촬영계획을 세우며, 촬영의 개시, 종료를 결정한다. 촬영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제작진과 출연자를 조정, 지휘하고 촬영현장 및 준비과정을 확인한다. 리허설을 감독하고 연기를 지도하며, 촬영 후 작품의 성격에 맞게 편집하며 음악효과나 특수효과 등의 녹음을 지도한다. 최근에는 미술을 전공한 후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거나, 영화를 전공한 후 미술작가(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영화감독 겸 미술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기획력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을 지휘해야 하므로 통솔력이 있어야 하며, 예술, 문학, 역사 등 다방면의 기초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불규칙한 촬영시간이나 야외촬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영화는 감독이 쓴 시나리오로 영화제작에 들어가므로,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와 글을 많이 쓰는 훈련이 요구된다.

대학 교육 과정에서 영상화, 방송영상과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영화 관련 아카데미 등에서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문학, 미술, 음악 등의 전공도 도움이 된다. 독립영화 등으로 현장경험을 쌓은 후 영화감독이 되기도 한다. 단편영화제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게 되거나 스테프와 조감독을 거쳐 감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시나리오 공모에 당첨이 되면 영화사의 제작지원을 받아 감독이 되기도 한다.

김영남 영화감독 겸 미술작가



김영남 _ 1972년생

【학 력】

- 2009~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재학
- 2001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영상연출전공) 졸업

【경 력】

제 11회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2010)

【필모그래피】

- <그녀들의 로망백서>, <황금시대>, <보트> (2009)
- <내 청춘에 고함> (2006)
- <뜨거운 차 한잔> (2005)
- <길위의 여름>(2000) : 대만국제학생영화제, 케랄라국제영화제 초청
- <나는 날아가고 너는 마법에 걸려 있으니까...>(2001) : 칸느영화제, 동경국제영화제, 홍콩한국영화제 초청
- <뜨거운 차 한잔>(2005) : 부산국제영화제 초청

【전시경력】

- 2011 'Testing The Water', SHOWROOM Arnhem, Arnhem, Netherlands
- 2010 '청춘 열전', Kring Cinema, 금호아시아나, Seoul, Korea
- 2009 'Awkward Harmony', KHM Flyer Gallery, Koln, Germany
- 2009 'Connect(이음)', KNUA Gallery, Seoul, Korea
- 2009 'Suggestive Moments', Space HaaM (스페이스 함), Seoul, Korea
- 2009 'Managing Utopia', Gallery 175 (갤러리 175), Seoul, Korea
- 2006 'Dir. KIM Youngnam's Short films Special Screening' (김영남 감독 중편 특별전), Film Forum, Seoul, Korea
- 2005 '3 Short Films Screening', Korea Film Archive (영상자료원), Seoul, Korea
- 2003 'Legend Of The White Horse', Kyungju World Culture Expo(경주세계문화엑스포), Korea
- 2001 'Mimesis 영상미술제', Ssamzzie Space (쌈지 스페이스), Seoul, Korea
- 1997 '우리 사진 이야기', KODAK Yonkang Hall (코닥 연강홀), Seoul, Korea

【수 상】

- 2011 <Minds On Tide>, Tokyo Int'l Film Festival (TIFFCOM)-Masters Category Project, Mori Tower/Tokyo, Japan
- 2010 <On Your Journey>, Tokyo Int'l Film Festival (TIFFCOM) Project, Tokyo, Japan
- 2009 <A Hundred Nail And A Deer's Antler>, 개막작, Jeonju Int'l Film Festival
- 2007 <A Thousand Winds>, Hong Kong Int'l Film Festival, HAF Project, Hong Kong
- 2007 <Don't Look Back>, Special Jury Prize, Taipei Film Festival, Taiwan
- 2006 <Don't Look Back>, FIPRESCI Award 국제비평가상, NETPAC Prize, Locarno Int'l Film Festival, Switzerland
- 2006 <Don't Look Back>, 폐막작, Jeonju Int'l Film Festival
- 2005 <A Duck's Grin>, Pusan Int'l Film Festival, PPP Project
- 2005 <A Bowl Of Tea>, Sonje Award, Pusan Int'l Film Festival
- 1999 <The Rain>, 3rd Prize, Samsung Unitel Visual Festival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딱히, 직업으로써 이것을 택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직업으로써의 의미도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나,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선택을 하다 보니,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것 같다. 일상의 삶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 그 지점까진 이르진 않은 것 같다. 하고 있는 직업을 쉽게 이야기하면 기술적으로 영상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특히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하게 알고 싶었고, 그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하는 욕구가 강해서 여러 시도와 도전을 하는 편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가진 삶의 시선이 차곡 차곡 쌓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결과로 현재 영화와 미술 분야의 예술가로서의 길을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역시 앞으로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직업을 선택하며 얻은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 매력적인 것 같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영화를 공부하고, 지금은 미술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때로는 익숙한 것들에 의해 흔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마음의 진심에게 질문하고, 응당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한번쯤 부정해 보고, 나와 다른 사람(사물) 사이에 대해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서로의 지금의 순간을 인정하려는 태도 등을 지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삶의 사이'를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자기만의 세상에 대한 태도가 있다면,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이 직업을 갖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직업은 당장 이루어내서 그 끝의 결과를 알게 되는, 답이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하나씩은 지니고 있을 어떤 습관처럼, 오래된 싸움 혹은 오래된 즐기기와 같은 것이다. 이 직업의 속성이 '자신의 진심을 통해 세상에 말을 걸기'와 같은 것인데, 그 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아주 끈기 있게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다면, 삶의 매 순간이 흥분과 기대로 가득찰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FAQ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개인 성취도는 높다고 본다. 앞으로 이 직업과 유사한 직

업군에 있어서 전망도 좋다고 본다.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은 삶의 정신적인 무언가를 얻기를 희망할 것이며, 그 무언가는 때로는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만을 떼어놓고 이야기한다면, 원하는 일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후 예술가에 대한 사회 제도의 안전망이 제공된다면 그 전망은 좋다고 본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에 있어 전공이 중요하나, 시간을 보내고 보니, 결국 전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전공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전공의 공부를 하다보면, 꼭 같은 계열의 직업을 갖지는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태도에 있어 좋은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해 주는 것 같다. 결국 인생이나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세상'과 '나'를 어떻게 연결 지으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으로 볼 때, 다양한 경험과 여러 학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심과 포착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일 텐데, 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개인의 욕망과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 절대적이거나 고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도 하고, 때론 상대적이기도 하다. 단지 지위와 연봉으로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평가한다면, 너무 정량적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하는 일의 가치가 연봉과 사회적 지위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물론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기대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어떤 누군가와 매우 가치 있게 만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마음 속의 다다르고자 하는 지점은 끝이 없으니, 아울러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창작의 만족도와 성취도도 함께 평가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무엇에 비

할 것이 있을까?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도움이 될 책과 아닌 책을 구분해서 보는 것보다, 이 시기엔 여러 책을 만나는 게 좋을 듯 싶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책도, 영화도 때론 도움이 된다. 왜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의 책과 영화와 친숙해지다 보면, 점점 좋은 것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점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때 그것들의 가장 원천이 되는 원전(고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온 것들은 대부분 거의 고전에서 출발한 것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그것들과 구별될 자신의 생각들을 차츰 더듬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세상의 평가와 기준만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자기에게 질문을 해라. 나는 왜 이것을 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려 하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등의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자신의 마음 속에서 찾아가다 보면, 이 직업이라는 것이 어느새 옆에 있는 친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윤재연 영화감독 겸 미술작가

윤재연 _ 1972년생

【학 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예술사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필모그래피】
- 2009 요가학원
- 2003 여고괴담 3 : 여우계단

【수 상】
제 3회 서울여성영화제 우수상(싸이코 드라마), 2001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한 기획, 시나리오 개발, 영화 촬영을 위한 준비와 촬영과 후반작업의 책임을 지는 일이 영화감독의 역할이다. 기획과 시나리오를 다른 작가와 프로듀서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결국 영화를 완성시키는 책임을

갖는 사람은 감독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견을 갖고 마지막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영화는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 다양한 분야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감독은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재능 혹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영화는 결과적으로 산업이다. 영화는 투자와 배급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해지는데 이 경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영화는 산업적으로 이익을 창출해야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모든 영화가 그런 것은 아니고 독립된 자본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경우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작업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래서 독립된 방법으로 영화감독이 아닌 작가로는 하고 싶은 작업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도할 수 있다. 관습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시도하고 소통한다. 하지만 관습적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작가로서 독립된 작업을 하면 대중들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화처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때로는 상업 영화를, 때로는 독립된 작업을 하며 서로 보안하고 발전시킨다.

내가 작업을 계속 하는 까닭은 내 안에 어떤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작업을 통해 드러낸다. 관계를 통해, 사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질문한다.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 작업을 하게 된다. 앞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도 결국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권유를 하고 싶다. 단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이 훨씬 빠르고 평탄할지 모른다. 이 길은 보이기는 화려할지 몰라도 힘들고 외로운 길이고 자기와의 싸움을 필요로 한 곳이다. 또 오랜 시간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다양한 표현기법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문학, 미술 장르에서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잘 만든다던지, 화면에 표현력이 있다든지. 그러려면 당연히 문학과 미술 장르 등에 좀 더 익숙해야 할 것이다. 막연하게 영화가 혹은 영화 보는 것이 좋아서라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지 진짜 그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영화는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협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영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혼자만의 노력 뿐 아니라 관계도 중요하다. 나는 미술을 통해 직관력 등의 감각을 습득했다면 또한 영화를 통해 소통과 사회를 배웠던 것 같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일정 부분 자라고 배

우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실험을 하는 도전 정신과 끈기 또한 매우 필요로 하다. 결국 예술이란 무엇인가? 사실 더 나은 모습을 꿈꾸는 정신이 있지 않다면 사회에서 소모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새롭고 근본적이고 진정한 것에 대한 갈구와 탐구는 당연히 작가에게 매우 필요하다.

작가와 영화감독, 작가를 하기 위해 영화를 한다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또 영화를 하는 데에도 작가로서 갖는 태도가 원동력이 되고 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현재 영화감독, 작가로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전망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진다. 불안정하다. 하지만 재능과 노력으로 작업을 한다면 전망이 없지도 않다. 사회에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이다. 그것을 완성해 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멀고 긴 시간을 가야한다.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사회가 다양한 콘텐츠와 새로운 목소리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일단 문학이나 미술 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화를 찍기 위한 기술과 방법, 콘티뉴어티 나 연기, 편집 등 경험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미술이나 문학 등에 기본적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공부하며, 영화를 찍기 위한 학교나 기관에서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학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졸업할 때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떤 선배님께서 10년 지나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10년 쯤 지나니까 이제 뭔가 눈에 들어온다. 10년이 지나니까 뭔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그동안 형성된 인맥과 경력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갈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연봉이나 경제적인 문제는 어렵다.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면 이제부터 시작인 작업이 이쪽 분야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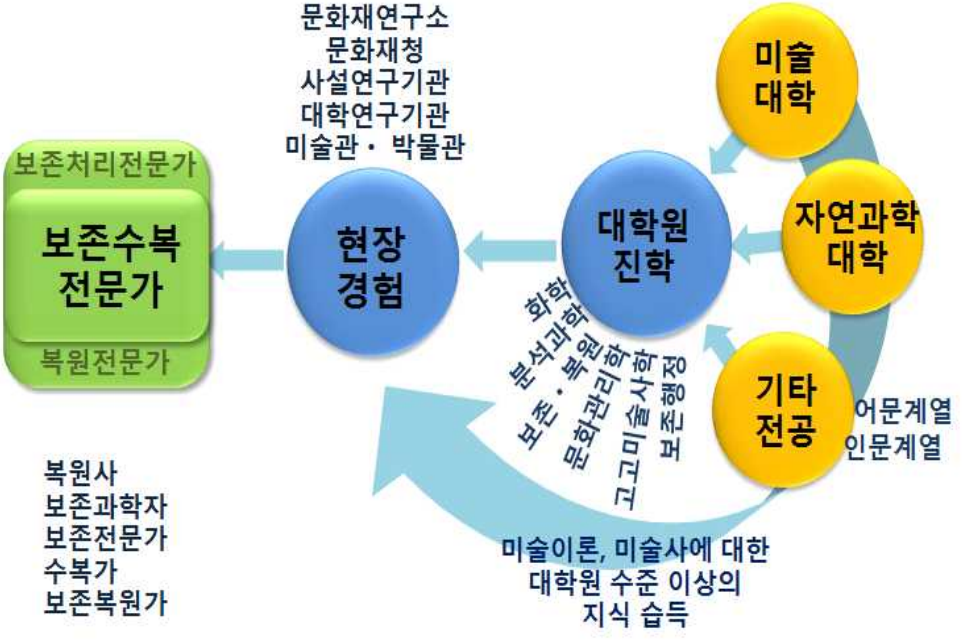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긴 시간이 지나도 인정받는 문학들, 세익스피어의 희곡들, 도스트예프스키의 소설 등 요즘 유행하는 소설보다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낡지 않는 작업들을 읽고 그 가치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또 르네상스 시대에서 인상파,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감상하되 그 시대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구체적인 작품 감상을 해 보길 권유한다.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좋은 훈련이 될 것 같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막연하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런 분야에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느낀다면 자신감을 갖고 성취를 해보라. 갈 길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루다 보면 성공도 따라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작업을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존수복전문가



보존수복전문가는 복원사, 보존과학자, 보존전문가, 수복가, 보존복원가 등으로도 불린다. 흔히 외국에서 '보존처리전문가(conservator)'나 '복원전문가(restorer)'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보존처리전문가'는 소장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물, 혹은 미술작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관 방법, 보관 환경 등에 관한 연구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복원전문가'는 손상된 유물이나 미술작품에 수작업으로 필요한 정도의 복원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단순히 외형의 복원뿐만 아니라 작업한 유물이 오랫동안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복원전문가'와 '보존수복전문가'를 일반적으로 보존복원가로 지칭한다.

보존수복전문가는 다양한 재료들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미술사조,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품 재료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과 미술사에 대한 이해, 실기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과의 작품 교류와 새로운 정보, 기술의 교류에 적합한 능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춰야 한다.

보존관련 교육체계는 크게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분석과학전공과, 미술대학에 속해 있는 보존복원과정으로 나뉜다. 두 가지 과정 모두 공통된 수업내용을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와 미술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하며, 미술작품과 작품제작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화학, 복원행정, 예방보존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해야한다.

김은진 보존수복전문가

김은진 _ 1976년생
국립현대미술관 회화보존수복담당

【학 력】
- KAIST 산업디자인과 졸업
- 영국 노썸브리아대학원 미술품보존학 석사 졸업

【학위논문】
<하이퍼리얼리티, 도시의 삶, 그리고 텍스트-로버트 롱고의 예술과 미디어 문화>(2002)

【경 력】
- 삼성문화재단 문화재보존연구소 현대미술보존 연구원
- 주경 '경음악', 안젤름 키퍼 '멜랑콜리아' 등 근현대 회화작품 다수 보존수복처리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저는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는 의외의 인물 중 한명입니다. 과학고등학교를 다녔

고 KAIST라는 이공계 중심의 대학을 나온 이력은 미술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림을 보는 것도 너무나 좋아했었던 저는 대학시절 배낭여행 중 우연히 이탈리아 시스틴 성당의 천정벽화 복원장면을 마주하고 마치 운명처럼 이 세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물리, 화학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림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손상된 그림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져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이 직업이야 말로 저의 천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라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도 없었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어 외국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술품 보존'을 공부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의 미술시장이 커지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여러 번 소개가 되면서 지금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문화재 보존학 또는 보존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유물 보존처리 중심의 학과가 운영중입니다. 아쉽게도 현대 미술품의 보존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이 있는 곳은 없지만 차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같은 직업군에서도 재질에 따라, 회화, 지류, 사진, 조각 등 전문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어, 일정한 학업을 마친 후에는 전문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반복적인 업무의 형태라기보다는 작품마다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방주사와 처방전을 내려야 하는 일의 특성상, 풍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미술은 작품의 재료나 표현양식이 다양하고 그들의 노화현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편이라,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미술품의 보존수복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요구하게 되고 끊임없는 실험과 연구, 보존처리가의 자기 개발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등이 보존수복 전문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서너 곳의 사설업체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주요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도 실무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꾸준히 준비해 도전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림을 치료하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늘 가까이 어루만질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아프고 병든 그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미술품에 대한 애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술품의 보존복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배출되고 있는 인력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보존수복 전문가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성취감과 보람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굳이 기관에서 일하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무궁무진하게 밝은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미술품 보존수복 전문가의 머리와 가슴, 손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미술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이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 미술품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일컫는 머리와 미술품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올바른 윤리의식을 뜻하는 가슴, 그리고 이러한 머리와 가슴이 어우러져 나오는 손끝의 섬세한 기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훌륭한 보존수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추기 위한 일차적인 전공의 선택 후, 심도 깊은 세부 전공 분야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이차적 공부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학문분야를 어우르는 분야이므로 자신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한 후, 인문학

적 접근, 이화학적 접근 모두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높은 연봉에 대한 기대보다는 직업적인 성취도와 미술작품에 대한 애정에서 오는 만족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10년 정도 일을 했다면 전문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것이며 희소성을 가진 직업군으로 기술에 대한 인정과 명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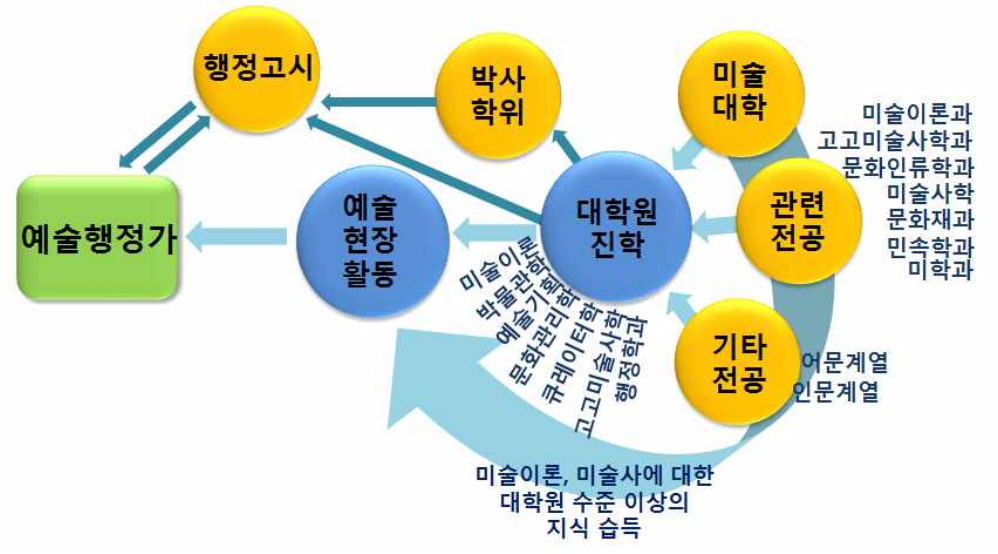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일본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남자주인공 준세이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미술품 보존수복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근의 한국영화 '인사동 스캔들'에서도 남자주인공 이강준 역으로 출연한 김래원씨가 미술품을 복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 영화는 감흥의 배가를 위해 다소 과장되어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술품 보존수복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술사, 일반화학, 보존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풍부한 배경지식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미술품 보존수복전문가는 결코 고상하고 우아한 직업이 아닙니다. 섬세한 미술품을 다루는 일이기에 정적인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때로는 못질, 톱질도 서슴지 않고 해내야 하며, 크고 무거운 작품도 직접 옮겨가며 일해야 하기도 합니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더딘 일도 끈기있게 작업할 수 있는 적성이 중요하며,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돈보다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즐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술행정가



예술(미술)행정은 예술 작품들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와 감상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말한다. 개별 미술관·박물관, 협회, 문화재단, 문화예술관련 정부산하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예술(미술) 분야의 서류 작업 및 문서관리부터 프로젝트의 기획 및 총괄 진행까지 다양한 업무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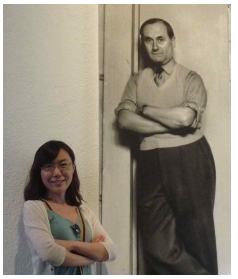
예술행정가는 문화 전반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예술의 생산을 감상자에게 더욱 가까이 전달해줌으로써 예술 발전 전반에 관여하는 예술행정가가 전문화되어 근무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그러나 현재 대학원이나 대학 강좌 중에 예술행정가 전문가 양성과정이 점점 많이 개설되고 있는 중이며, 예술행정가에 대한 전문성 역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예술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문화 공연 및 전시를 많이 접하고,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문화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키워야 한다. 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에 대한 감각을 동시에 지니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경영·행정적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지식,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예술경영 및 행정은 실무에서 체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현장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행정가(미술)와 관련된 대학 교육과정은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미술이론, 큐레이터학, 고고미술사학, 문화인류학, 미학 등을 비롯하여 미술관련 학과, 인문학 계열 등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선택한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경영 관련학과가 늘어나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하기도 한다. 대학원 과정에서 행정학, 미술이론, 박물관학, 예술기획, 고고미술사학, 미학, 큐레이터학 등을 거쳐 미술이론, 미술사에 대한 대학원 수준 이상의 지식 습득을 갖춰야 한다.

박선민 예술행정가



박선민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광고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학사)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박물관미술관경영 전공(예술경영학 석사)
- 현재(2012년 1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기획실장

【주요경력】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기획실장(2005.1~2012.1 현재)
- 자립형미술관네트워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전신) 간사(2004.7~2004.12)
- 감앤필(광고대행사) 디자이너(2003.3~2004.5)

【연구참여】

<국내 사립미술관 홍보실태조사 및 성공적인 홍보방안>(연구원) 外 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실시한 미술관 관련한 다수의 연구·발간물 기획 및 진행, 현황조사 등에 직간접 참여

【미술관 발전방안 및 정책관련 세미나 기획 및 진행】

- 미술관 협력망을 위한 전국 미술관 관장회의, 전국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워크숍(2011)
- 사립미술관 공공성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워크숍(2011)
- 버츄얼미술관 구축 및 국내 사립미술관 모바일전시안내서비스 시스템 도입을 위한 워크숍(2010)
- 한국의 사립미술관, 정체성 확립과 공공적 기능 세미나(2009)
- 국내 미술관 교류·협력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2008)
- 미술관 전문인 교육 – 에듀케이터 전문 과정 운영(2006)
- 사립박물관미술관 에듀케이터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2006)
- 뮤지엄주간 – 전문인 워크숍(2005)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출범기념 심포지움 – 세계화 시대의 미술관의 역할(2005) 등

【미술관 연합 행사 기획 및 진행 참여】

- 뮤지엄데이(2010, 2011)
- 뮤지엄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2006~2011) 등

【기 타】

- 사립미술관 인력지원사업 추진
- 사립미술관 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 한국사립미술과협회 연차보고서 기획, 진행
- 기타 미술관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기획 및 진행 총괄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예술경영인 또는 예술행정가로서 미술분야에 종사하는 저는 우리나라 미술관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찾아 그것을 연구, 행사,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획,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한편, 미술관은 공익적인 성격을 지닌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 또는 기업의 후원이 상당부분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술관의 사회적 기능과 활동상을 알리고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및 각종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교류와 업무협조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현하게 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마인드로 다져진 정부관계자 또는 경영마인드로 무장한 기업인들이 예술적인 기질이 다분한 미술관인들을 (또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디자이너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또는 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지니고, 어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기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명감과 서비스정신, 그리고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업무 추진 시 많은 대상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더 나아가서는 이를 통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성과에 크게 작용하는데, 그 과정은 문서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수시로 전화 또는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말과 글의 단어 선택 또는 작은 표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는 세심함과 정

확한 의사 전달,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늘 지녀야합니다. 이는 모든 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국의 미술관 관계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그리고 타협회 및 다른 유관기관 등 다양하고 많은 대상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직업의 특성 상 더욱 중요하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의 심각한 차질과 심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다양하고 많은 대상을 접하는 만큼, 이러한 난관은 본인의 노력 여부와 무관하게 찾아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신무장으로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하지 않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술경영, 예술행정이란 문화예술 전반에서 통용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관심이 한 장르에 국한되어있지 않다면 다양한 분야와 기관으로의 이직이 가능합니다. 한편 '예술경영/행정'이라는 말이 매우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단순한 서류작업과 문서관리에서부터 큰 프로젝트의 기획, 총괄까지 모두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직을 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겠으나, 본인이 어떤 분야 또는 업무를 목표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개별 미술관 안에서도 경영, 행정의 직무는 이루어지며 각 분야의 다양한 협회는 물론이고 지역 및 기업의 문화재단, 문화예술 관련 정부산하기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예술경영 또는 예술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술현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면서 경영, 행정학적인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다면 직접적으로 예술을 다루는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의 직군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최근에는 문화예술경영 관련 학과, 전공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커리큘럼 또한 보다 전문화되어 많은 대학과 대학원을 통하여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경영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술경영'을 전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 또는 행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양이 잘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보다 주력하는 부분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 외의 경험과 지식, 식견을 늘여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의 예술경영 및 예술행정은 학문적 접근보다는 실무에서 체득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경영이 학문으로서 확산된 것이 얼마되지 않았기에 현재 이 직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실기를 비롯하여 다른 다양한 종류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공부를 오래하는 것보다는 현장경험이 중요하므로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세부분야를 찾아 상위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예술계 안에서의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기획력이 요구되는 만큼 학생 때부터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국내외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때 예술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공유되는 과정과 시스템 또는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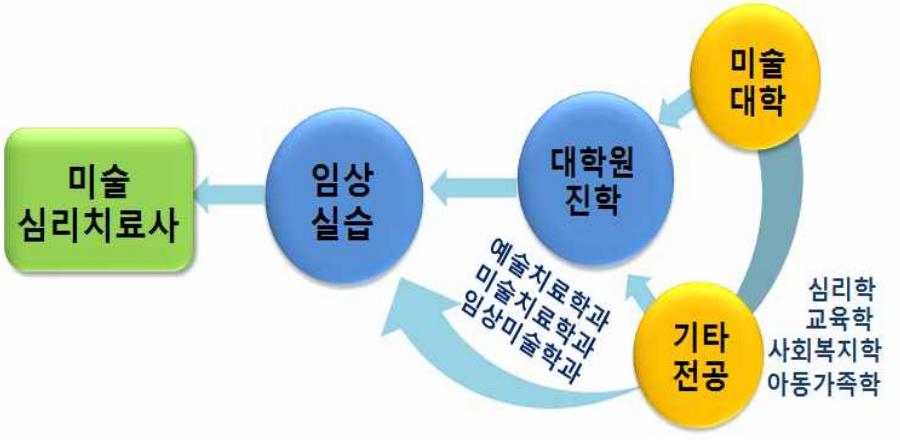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미술계의 다른 직군과 마찬가지로 예술경영/예술행정 또한 급여수준이 일반 기업의 연봉과 비교하여 만족할 만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한 기관에서 경력이 쌓이면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느 기관으로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급여수준과 안정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Q 4.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현재는 예술을 다루는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의 직군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경쟁력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앞으로 이 직업을 선택할 학생들이 이 부분을 유념하고 진로선택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은 녹록치 않으므로 일반 기업과 비교하지 말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함께 이 분야의 발전에 일조하겠다는 일종의 사명의식이 있는지 등을 신중히 생각해야한다는 사족을 붙여봅니다.

미술 심리치료사



미술 치료는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여 내면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성장을 촉진시키는 치료법이다. 이는 심리 치료의 일종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감정이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국내의 경우 미술치료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치료 현장에서 이용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미술 치료는 아동의 경우 놀이 치료, 음악 치료와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리 치료로 인식되고 있다. 1992년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설립된 이후로 여러 대학원에서 미술 치료를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미술 치료사 양성 과정도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 미술 심리치료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며, 각 기관마다 각각의 기준으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통의 심사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의 임상 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습 장소와 임상 실습을 감독할 수 있는 미술 심리치료사가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미술치료를 강의하는 곳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향후 미술치료를 위한 제반시설이 질적, 양적으

로 좋아질 것이라 기대된다.

미술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치료학, 상담이론, 임상미술학, 정신분석학, 심리치료학, 행동치료, 교육학, 예술학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을 갖춰야만 한다. 아직 대학 과정에서 독립된 전공과정으로 가르치는 곳은 극소수이므로, 미술 분야의 다양한 전공 또는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등을 전공한 후 대학원 과정에 미술 심리치료학을 배우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인정 기관의 임상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간호, 아동복지, 교육 관련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한국미술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임상미술 분야에서 1년 이상의 미술치료 경험을 가진 후 소정의 미술치료 연수 과정과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다.

박승숙 미술 심리치료사

박승숙

【학 력】

-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U.S.A. 미술치료학 석사(M.A.A.T)
- 논문: Absurdity and the Creative Urge: Based on Otto Rank's Will Psychology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S.A. 심리학부 수강
- 홍익대학교 대학원 예술학 석사 (M.A)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 학사 (B.A)

【임상경력】

- 2000년~현재. 밝은 미술치료실 운영
- 한국 성폭력 상담소 내 하담센터
-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 주한외국인단체(FOCUS) 카운슬링 팀
- 마포노인 종합 복지관
- 서울 시립 은평 병원
- 미국 Chicago Metropolitan Child & Adolescent Services
- 미국 Northtown/Rogers Park Mental Health Center

【자 격】

- American Art Therapy Association, 공인 미술치료사 (ATR)
- 표현예술치료협회 전문임상감독자

【강의 경력】

- 2008~현재. 박승숙 미술치료연구소 운영
- 1999~2008.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미술치료 과정 운영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의
- 명지 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강의
- 원광대 환경보건대학원 강의
- 그 외 각종 학교 및 단체와 협회를 위한 워크샵 및 특강

【저 술】

- <나는 그림으로 아이와 대화한다.> 인물과 사상, 2007.4.
- <아이와 함께 크는 엄마> 들녘 출판사, 2005. 5.
- <미술치료사가 들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여행> 들녘 출판사, 2003. 12.
- Philip Sandblom, <창조성과 고통 (Creativity and Disease, 1982)> 번역, 아트북스, 2003. 7.
- <소원나무가 자라는 나라로의 여행>들녘출판사, 2001. 9.
- <미술치료사가 들려주는 미술의 힘>들녘 출판사, 2001. 6.
- <마음이 아플 때 만나는 미술치료>들녘 출판사, 2001. 4.
- <영화로 배우는 미술치료>들녘 출판사, 2000. 12.
- <미술치료사가 들려주는 정직한 미술치료 이야기> 들녘 출판사, 2000. 5.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귀하의 직업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직업을 갖게 된 계기와 본 직업을 갖기 위해 중·고교 시기에 준비할 것과 요구되는 성격이나 소질

☞ 학교 졸업 후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직업이나 직무

☞ 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직업현장에서 해야 하는 학습이나 경험

제가 미술치료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의 대학원에서 예술학을 전공한 뒤 평소의 관심을 따라 미술과 심리학을 연계해서 연구할 길이 있을까 알아보려고 미국에 갔을 때입니다. 미술과 심리학을 접목시킨 분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알고 좌절에 빠졌을 때 룸메이트였던 미국인 친구가 자신의 정신과 의사에게 저를 소개시켜주었는데 그 때 처음 그에게서 미술치료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던 것이 이런 것일까 생각한 저는 입학 조건을 갖추기 위해 UC 샌디에고에서 심리학부 과목들을 수강하여 학점을 딴 뒤 곧장 대학원에 응시를 해서 다음 해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의 미술치료 석사과정에 입학했지요.

미술치료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입니다. 미국미술치료협회는 역사도 깊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영향력이 큽니다. 협회에서 규정하는 커리큘럼 및 시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국내 대학원들을 검증하여 7년에 한 번씩 석사 과정들에 인가를 내주고 있지요. 미술치료는 심리학과 미술 실기에 있어 대학 전공 수준의 기초 지식과 경험을 쌓은 자가 석사과정에서 심리치료와 정신병리학을 배우면서 선배 미술치료사의 지도하에 실습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습득해가야 되는 실천분야라서 미국에는 학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미술치료사가 되는 거라면 대학에서는 미술실기와 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본격적인 미술치료 공부는 대학원에 가서 하십시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미술치료사의 길로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미술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연륜입니다.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복잡한 정신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 치료사가 성숙해야 하고 삶에 대한 체험도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술치료사의 꿈을 가진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미술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직접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감상 차원을 넘어 미술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만들어져 가는 것인지 심리학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책을 읽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편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갖고 다양한 체험을 쌓아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사회의 다양한 이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원봉사를 나가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자신의 발달 상황에서 지나가야 하는 모든 고민과 과제들을 완수해나가세요. 성공적인 것만이 인생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니 실패와 고민과 방황을 통해서도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학에서 미술치료에 가까운 인접 학문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미술치료를 전공하시면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해,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시면서 타인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쪽 분야에 입문하기 위한 여러분 수준에서의 가장 큰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래 질문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Q 1. 직업에 대한 향후 전망?

앞으로도 복지와 건강은 정책적으로나 개인의 관심사에 있어서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은 정신질환이나 장애와 싸우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 및 문화의 병폐 그리고 교육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해 균형을 잃은 현대인들을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을 책임지

는 여러 직업들 중 예술치료는 정신치료 혹은 심리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라는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 부담 없이 스스로에게 긍지를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고 체험을 바꾸게 도와줍니다. 똑같은 심리치료더라도 미술치료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말로만 상담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경하던 미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편안해 하지요. 특히 학교에서 미술을 포함한 예술 교육의 비중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술치료는 특별한 활동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관심과 취미를 중요시 여기는 어른들에게도 물론 자신을 만나는 새로운 세계가 되지요. 따라서 증진되는 국가의 복지정책 및 웰빙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미술치료는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2.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공부가 필요한가요?

– 대학진학과 전공의 선택의 중요도가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기술

예술치료 전반을 비교해보면 미술은 하는 방법을 다 잊었거나 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용이나 음악 등의 다른 예술 매체보다 더 쉽게 다가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치료나 음악치료, 연극치료 등에는 겁을 먹는 사람들이 미술치료에는 편안히 신청을 하곤 하지요. 바로 그 용이성 때문에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술치료를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게 되지요. 실제로 미술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미술치료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미술은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술 실기 경험 하나도 없이, 미술에서 쓸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창작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미술치료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내에는 미술과 심리학에 대한 기반이 없이도 석사과정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끝내고 왔어야 하는 두 기초 분야를 석사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미술치료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방법론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못해 미술치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학에도 미술치료 과정이 없고 박사과정에도 없습니다. 미술치료는 심리학과 미술 실기에 있어 대학 전공 수준의 기초 지식과 경험을 쌓은 자가 석사과정에서 심리치료와 정신병리학을 배우면서 선배 미술치료사의 지도 하에 실습을 통

해 직접적인 경험을 습득해가야 되는 실천분야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도 미술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박사과정에서도 미술치료를 전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도 미술치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심리학과 미술 양쪽의 기초를 토대로 해서 배워야 하는 '실무'이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가볍게 접근하거나 박사 단계에서 이론적으로 깊이 공부할 학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과정으로 미술치료를 전공할 생각을 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미술 실기나 심리학을 전공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미술과 심리학에 대한 기초 교육을 어디서든 따로 배우거나 독학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대학 전공을 그 두 분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복지학과나 교육학이나 사회학과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아예 문학이나 음악, 연극 등 다른 예술 분야를 전공해도 좋고, 직접적으로 미술치료에 연결되지 않는 학과도 좋습니다. 폭넓은 생각을 하고 사람과 자연 혹은 사회구조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학과라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내 대학원의 입학 조건이 미국처럼 바뀌지 않는다면 대학까지는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Q 3. 활동 후 10년 차에 기대할 수 있는 연봉과 사회적 지위?

미술치료에서는 아직까지 연봉 개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술치료사들이 정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프리랜서로 자신이 담당하는 치료 일만큼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지요. 공채로 미술치료사를 뽑는 공기관이나 시립병원 등이 간혹 있지만 현재 로선 수가 극히 적은 데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 기대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미술치료사들이 일을 할 곳은 많고 계속 더 많아질 것입니다만, 보수나 대우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점에선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실습단계에서 현장 일을 배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 치료사들도 많고 미술전공자나 미술교육 쪽에서도 봉사 차원에서 미술치료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술치료를 전공한 경험 많은 전문 인력을 월급을 주고 쓰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과 법안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바뀔 것이고, 미술치료를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의 수준을 조정하고 심사할 메타 기관이 생겨나 미술치료가 전문성을 되찾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향방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4.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나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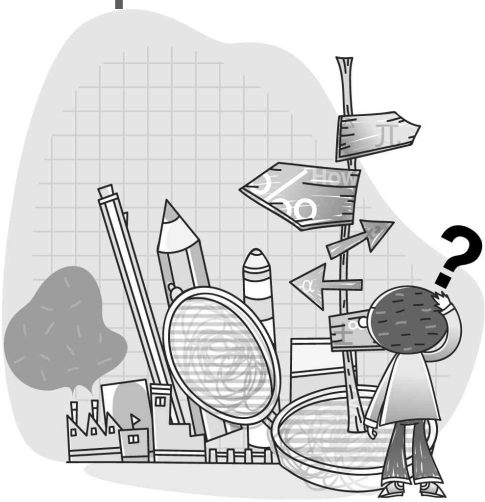
미술치료 관련 서적은 아직은 읽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이 많지도 않고, 대부분의 책들이 이론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실제와 다른 인상을 갖게 되거나 헛된 환상 등을 키우기 쉽답니다. 그래도 미술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해주는지 조금은 맛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쓴 책인 <나는 그림으로 아이와 대화한다>(인물과사상, 2007) 정도를 읽어보세요. 그 외에는 어떤 책이든 본인의 관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읽어나가세요. 독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쪽 일에 다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 같은 스테디셀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Q 5. 본 직업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한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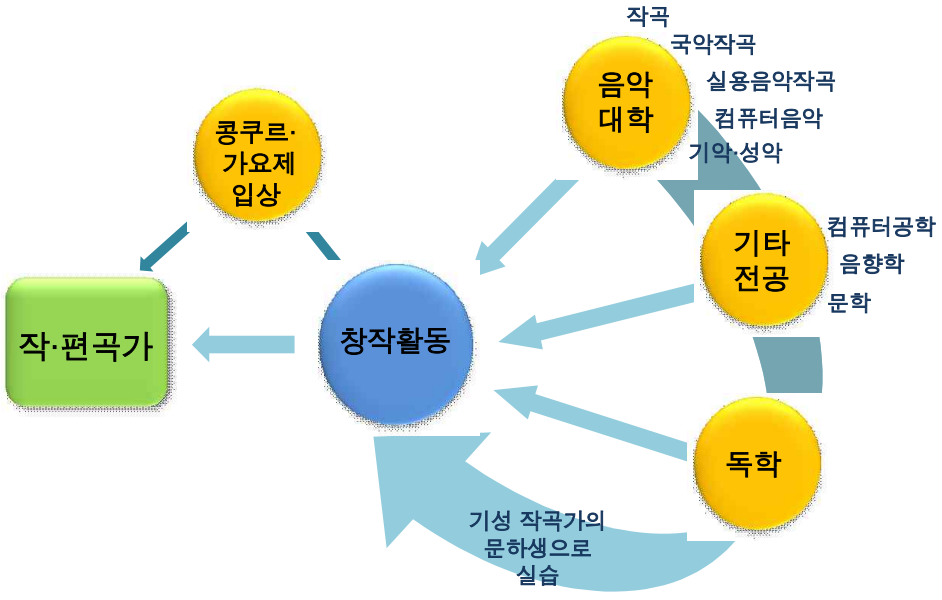
남을 돕는 직업은 '성공하겠다'든지 '돈을 많이 벌겠다'든지 '널리 이름을 내겠다'는 식의 욕심을 안고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가장 시끄럽고 괴로운 삶의 바닥과 가장 모순되고 어지러운 정신의 영역에서 일을 해야 하므로 치료사 자신의 행복과 건강도 자주 위협을 받곤 하지요. 가장 스트레스 많은 일이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러니 유망한 직종이라고 유행처럼 이 직업을 택하지는 마십시오. 치료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치료사는 타고 나야 하는 것이라는 인디언들의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계속 배우고 노력하며 남을 돕는 것이 정말로 자기답게 행복한 일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꿈입니다.

Ⅱ 음악 분야 직업 소개

1. 작곡 및 편곡가
2. 연주가 Ⅰ(서양음악)
3. 연주가 Ⅱ (국악)
4. 연주가 Ⅲ (대중음악)
5. 교육자
6. 기획 및 제작자
7. 문화산업 전문가
8. 연구 및 비평가
9. 응용 및 실용음악 전문가
10. 문화예술행정가



작곡가 및 편곡가



작곡가는 음악 작품을 창작하여 자신의 세계관과 미적 이념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한다. 기존의 음악과는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음향 표현을 추구하는 작곡가도 있고 대중과의 공감과 소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작곡가도 있지만 어떤 유형의 작곡가에게나 소리의 특성에 대한 민감성, 미적 감수성, 혁신적인 사고와 신선한 감각, 새로운 음향과 매체에 대한 호기심, 음악 어법에 대한 이해력, 자유롭고 풍부한 표현력이 요구된다.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소리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분별하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은 어린 시기에 완성되는 경우가 많다. 작곡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청각적 재능을 바탕으로 평소에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좋은 음악 작품들을 풍부하게 접하고 그 특징과 차이점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악기나 음향 매체, 컴퓨터 작곡 프로그램을 다뤄보는 것이 좋다. 소리를 특정한 의미나 효과를 지닌 흐름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익히려면 대위법, 화성법, 관현악법, 음악분석 등 다양한 음악이론과 기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작품을 연주자나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험하고 작업할 수 있는 끈기도 있어야 한다.

작곡가를 위한 대학교육과정으로는 음악대학에 개설된 작곡과(국악작곡 포함), 실용음악과 등이 있다. 입시에서는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시창청음, 화성법(분석 포함), 대위법, 작곡실기, 악기연주(국악의 경우는 피아노 외 국악기 1종 등) 시험을 본다. 작곡 전공자들은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작품발표회를 여는 한편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서 전속 작·편곡가로 일하거나, 음악학원, 학교, 음악방송, 음악콘텐츠 및 음반 관련 직종에서 활동한다. 관련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취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작곡가는 연예기획사나 음악콘텐츠 관련회사의 의뢰를 받아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음악 작곡가, 창작뮤지컬 및 음악극 작곡가, 가요 작곡가, 광고음악 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레코딩 엔지니어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으나 보통 기성 작곡가의 하청을 받아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거나 작품(공연) 한 편 당 계약을 맺으므로 고용 안정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아지면 작품 창작만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며, 작품 활동과 더불어 대학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취하기도 한다.

작곡가는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으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기에 음악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곡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스스로 음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 창작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작곡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공부하면서 연예기획사 및 음악콘텐츠 관련업체에 접촉하거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데뷔하기도 한다. 창작가요제나 작곡콩쿠르에서 입상하여 이름을 알리고 업계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용 작곡가

이건용
작곡가

【학 력】
- 서울예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음대 (디플롬)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주요 경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서울대학교 교수
- 효성여자대학교 교수

【저서, 작품집, 음반】
- 저서 <한국음악의 논리와 윤리>,<현대음악강의> 등
- 작품집 <우리가 물이 되어>,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예수그리스도의 수난> 등
- 음반 <AILM을 위한 미사>, <들의 노래>, <저녁 노래>, <혼자 사랑> 등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작곡과 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과 교수는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의 작곡 기술을 가르친다.

나에게 음악 작곡의 소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때부터 음악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 점차 작곡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작곡을 공부하고 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다시 음악대학으로 유학을 가는 등 12년간 작곡 관련 공부를 하였다.

음악대학에는 대부분 작곡과가 있어서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필요하다. 또 음악대학의 여러 과목 중에는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가르쳐야 하는 과목들이 많다. 외국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자 곧 대학의 작곡과 교수가 될 수 있었다. 그 후 지금까지 33년간 작곡을 가르치고 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음악을 많이 다양하게 듣고 익힌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2. 악기(특히 피아노)를 익숙하게 다룬다.
3. 악보를 능숙하게 읽고 그린다.
4. 중학교 정도에서는 고전시대 주요 작곡가들의 작품을 악보로 읽고 익힌다.
5.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본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작곡가는 매우 오랜 수련기간이 필요하므로 대학을 졸업한 후 곧 취업하기는 어렵다.

작곡과 관련된 일, 예를 들면, 사보, 지휘, 편곡, 음악지도, 반주 등의 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입 수준은 다양하다. 많을 경우 연간 2,500만원도 가능하겠으나 적을 경우는 매우 미미한 액수가 될 것이다.

3,40대의 작곡가 역시 작품으로 수입을 올리기는 매우 힘들다. (매우 뛰어난 작곡가의 경우는 작품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나 드물다.) 강의, 지휘, 편곡, 음악지도, 반주 등의 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수입의 편차는 매우 크다.

작곡과 교수가 되면 안정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작곡가들의 직업이 교수인 이유이다. 역시 편차가 있으나 3,40대라면 연간 3,000 –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

학생 중에는 소질이 적은 학생도 있는데 이들을 일정 정도의 실력을 갖춘 음악가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작곡은 창조적인 작업이므로 이 역시 가르치는 방법이 일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려울 때가 많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자유롭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예들이 있다.

작곡은 창조적인 작업이므로 이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다른 관련 분야로 옮겨야 한다.

이론적인 작업, 악보 출판, 서적 출판 등의 기술적인 분야, 방송, 연예 등 음악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곡가를 직업으로 택하기 전에 이 분야에 충분한 소질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작곡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대중음악을 모두 포함하지만 대중음악분야와 고전 및 현대음악 분야는 별개의 교육과정, 별도의 음악계를 가지므로 완전히 다른 분야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클래식 작곡의 경우에는 현대음악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허걸재 국악작곡가

허걸재
국악작곡가

【학 력】
- 서울 대원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경 력】
- 현재 (2011년 12월) : 한국합창작곡가협회 회장
- 서울국제아카펠라축제 대표
- 광명뮤지컬단 예술감독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주요 경력 및 저서, 작품집, 음반】
- 석사학위논문 <한국적 합창 음악 창작에 관한 연구>(2009)
- 역서 <재즈화성의 기초지식>(2010)
- 소품 '새타령', '물레타령', '해녀의 노래'
- 오페라 "들불", "겨울그림자", 뮤지컬 "청춘불패" 등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국악작곡가 (프리랜서)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작곡가'란 '국악'과 '작곡가'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로, 국악스타일의 음악작품을 창작하는 작곡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분야이기도 한 '국악'+'작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악작곡' 고유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악작곡만 하는 전업국악작곡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악연주단체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순수하게 창작 업무만 맡게 되지는 않고, 국악에 관련된 행정업무나 연구 및 연주 등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많은 경우는 특정 연주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채 연주활동이나 학교강의 및 개인레슨 등을 병행하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작품을 필요로 하는 여러 단체나 연주자들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씁니다.

저 역시 고정적인 임금을 약속한 어느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국악작곡가'로 소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국악 이외의 스타일의 음악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으며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병행할 수도 있고, 서양음악 작곡가나 대중음악 작곡가 집단의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가 인력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는 점들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음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작곡가의 성향은 중요하지 않지만, 좁게는 집중력과 체력에 바탕을 둔 치밀함과 넓게는 창의력과 끊임없는 인문적 호기심이 요구됩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악기 최소 1종과 피아노의 연주가 가능하여야 하고 작곡과 화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야 관련 전공의 입시를 치를 수 있습니다.

국악 및 월드뮤직, 서양음악, 대중음악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을 고루 감상하되, 해당 음악에 관한 음악적·인문학적인 호기심 또한 꾸준히 유지하며 충족시켜 나가길 바라며, 특히 전문국악공연장을 자주 찾아 감상하기를 권합니다.

일단 입시를 통과하셨다면 관람이나 여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더 넓은 예술분야의 작품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도 어느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관심을 고정시키지 않은 채 다양한 영역에 대한 충만한 호기심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 등 창의성 관련 서적, 문화사, 시학 관련 서적을 추천합니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일자리의 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국·공립 국악연주단체에 소속되어 성실하게 일한다면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받는 평균 정도의 연봉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유사 규모의 작품료를 서양음악분야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후한 편이지만, 대중음악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아직은 음악저작권의 권리행사가 여의치 않지만 향후 저작권의 영향력이 국악 및 클래식음악 분야까지 강화된다면 그 격차는 다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경력에 따른 작품 당 작품료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만, 꾸준히 연구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작품을 쓸 수 있게 되는 30, 40대가 되면 작품을 쓸 기회가 부쩍 많아지게 되고 활동영역 또한 관련분야 및 인접 예술분야로 확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서양음악작곡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악양식의 곡을 짓기도 하고, 대중음악작곡가나 싱어송라이터의 경우에도 간간히 국악양식의 노래를 만들 수 있듯이 국악작곡가역시 국악스타일의 음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서양음악이나 대중적인 음악양

식까지 다루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국악'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서양'음악적인 논리성과 가요나 팝음악에서 말하는 '대중'성까지 고루 아우를 수 있는 창작에 있어서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국악작곡가로 교육을 받는 과정은 상당히 다양한 경험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하고 여기에 더하여 약간씩의 개인적인 준비과정이 있다면, 음악교사나 음악교수 등 전통적인 진출분야인 교육계나 연주계통, 공연 및 예술행정계통, 타 장르음악 작곡 등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컴퓨터음악 및 극장 또는 영화 등의 매체에 관한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다면 영화음악이나 극음악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고, 특히 세계 각국의 전통음악을 현대화한 음악이 각광을 받는 현대음악시장의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서양악기에 의하여 연주되는 국악스타일의 음악을 창작하여 해외에 소개하거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작곡가가 국악스타일의 곡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스타일과 예술 및 기술을 융합하여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 한 분야입니다.

국악작곡가는 국악인이며 작곡가여야 하거나 작곡가이면서 국악인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국악이나 작곡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철학적인 내면의 세계를 동경하고 내적 성찰과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창의성으로 승부를 내려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황성호 현대음악/컴퓨터음악 작곡가

황 성 호

현대음악/컴퓨터음악 작곡가

【학 력】

- 보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 브뤼셀 왕립음악원 (디플롬)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주요 경력】

- 추계예술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교수
- 2006년도 대한민국작곡상 수상
- 2006년도 올해의 공연예술상 수상
- 윤이상국제작곡상 심사위원
- ICMC 뉴올리언즈 대회 심사위원
- YTN 24 News 시그널 작곡
- MBC TV Best 극장, 특집드라마 등 음악 작곡
- MBC 어린이 뮤지컬 프로그램 “꽃나라 별나라” 작곡 및 음악감독

【저서, 작품집, 음반】

- <전자음악신디사이저 입문> 번역
- <전자음악의 이해> 편역
- ‘비디오 칸타타’, ‘슬픈 강’(Orchestra), ‘파랑도’(Orchestra), ‘Bach Nori’, ‘TV Scherzo’, ‘Triskelion’ 등의 작품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현대음악/컴퓨터음악 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작곡과 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곡을 전공하여 현재 교수로 있으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작품 활동의 범위는 일반 현대음악에서부터 방송음악, 무용음악, 컴퓨터음악, 그리고 음악극창작 분야에 걸쳐 있다.

본인은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여 처음에는 클라리넷 연주가가 되고 싶었으나 월등히 잘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발견되면서 그러한 사람이 없던 작곡을 선택하게 되었다.

교수란 직업은 전공 활동과 생업을 양립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택하게 되었고 이는 삶에 있어서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수 이전에 TV 드라마 및 연극, 무용의 음악 작업과 KBS FM이나 MBC FM의 음악 프로그램 MC로 활동하면서 교수로 안착되는 것에 대한 갈등도 잠시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현재 학교에서 이러한 분야의 교육도 맡게 되었다.

작곡가는 음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며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 커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음악을 단순히 즐기는 기호품이 아니라 고차원의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만 표현도 가능하며 소리 이상의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많은 영재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장이 멈추는 이유는 그들의 특출함이 주변에서 특별한 재간(당시 나이에 비해)으로만 인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 예술에 대한 진지한 표현과 이해력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양서를 통해 많은 단어와 수사법을 익히듯이 좋은 음악가, 음악전문가가 되려면 좋은 음악들을 통해 음악적 단어와 수사법과 문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단순히 타고난 재간만으로 자만한다면 그의 생명은 짧을 것이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자기 정도의 사람은 주변에 널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넓혀야 한다. 기초 음악이론에서부터 음악사, 작곡이론, 악기론, 관현악법 등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필요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자습하려는 태도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다. 공부에 목말라야 한다. 그리하여 지식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컴퓨터 게임에서 필상의 무기를 얻는 것 이상의 기쁨을 만끽해야 한다. 컴퓨터음악을 원하는 경우라도 음악의 일반적인 지식은 갖추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소리에 대한 세심한 태도, 균형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좋은 교사를 만나 기초를 건실하게 다져가야 할 것이다.

교사를 선택할 때 자신에 대한 칭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교사에 대한 주변의 평가에 주목하길 바란다.

또한 음악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악기 하나 정도는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피아노가 좋겠다. 피아노 학습은 연주 기술 터득에 그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음악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잘 치지 않더라도 다양한 악보를 무조건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로서 초견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

컴퓨터음악을 하려면 MIDI에 대한 이해와 Sequencing Program 경험이 필요하며 소리에 관한 물리적 지식도 필요하다. 이미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Sound Editing, Recording 등을 경험하면 좋을 것이다. 이 또한 익숙한 사람이라면 MAX/MSP 등 본격적인 컴퓨터음악 프로그램을 선행학습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소리와 음악 작업은 시간을 바탕으로 한 작업이다. 음악가의 작업이란 그것이 작

곡이든 연주이든 시간 흐름 속에서 듣는 이의 심리를 고려하여 작전을 펼친다. 이것이 형식과 구조, 내용을 만든다. 따라서 영화 및 연극 등 타 분야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대사를 언어로 이해하지 말고 음의 고조와 강약, 리듬 등 음악과 소리로 해석하라. 시간 흐름 속에서 각 부분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라. 이러한 주변 예술 분야(특히 성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여러분의 통찰력은 개발될 것이다. 또한 인문학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라. 나중에 당신이 소리와 음악 전문가가 되었다면 분명 다른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 기회가 많을 것이다. 이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작품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길 원한다면 그런 공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일개 기능인으로 머물게 된다. 그러한 기능인은 언젠가 당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더 싼 비용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는 학생 및 일반인들을 위한 작곡교실과 컴퓨터음악교실을 '즐거운 주말 음악교실'이라는 국고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바 있다. 주변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검색해 보길 바란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다음과 같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은 천차만별이다.

1. Sound Designer: 방송. 영화 및 게임 분야의 음악/사운드 제작 전문가.
2. 대중음악분야의 작/편곡 및 레코딩 엔지니어
3. 연극, 뮤지컬, 서커스 등 모든 공연물의 음향 제작자
4. Sound Archive 전문가: 디지털 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의 소리 자료 담당자
5. 공연예술가: Interactive Artist, Media Artist, Music Tech Composer, 교육자 등
6. 미디를 이용한 교육기자재, 의료 재활 시스템 등의 설계 엔지니어

테크놀로지에 기초한 분야이기에 앞으로도 수많은 직업이 나타날 것이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 필요로 하는 학생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매칭

2. 기초적인 교육과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3.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을 문화적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통로 부재: 이는 기업에서도 새로운 기술 및 상품의 문화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수준 높은 소비자를 얻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하다.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Apple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T 강국이라면 테크놀로지가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미래 문화를 주도할 책무가 있지 않을까?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이 분야는 개인의 능력과 경험, 정보력만 인정된다면 수요는 높아 얼마든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취미활동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분야와 같이 전문성을 가질 때만 대접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결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자체 기능만으로 사용자를 일반적 수준까지는 쉽게 이끌어 준다. 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라.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내어 남들보다 더 섬세하며 더 정교하고, 이제껏 없던 초유의 무엇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 예술가가 아니라 산업 전문가이길 원한다면 시장 흐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직업 생명이 길 것이다.

곽영준 대중음악 작곡가

곽 영 준
대중음악 작곡가

【학 력】
- 인하대학교 (공학사)
- 단국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대중음악 제작·경영 (예술학석사)

【경 력】
- 현재 (2011년 12월) : 밴드 코지카페 리더로 활동 중
- 한양여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주요 경력 및 작품】
- 드라마 "마이걸" 타이틀곡 '첨부터'(연우) 작/편곡
- 드라마 "나도야 간다"의 '내일로 내일로'(김건모) 작/편곡
- 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의 'Loving you'(브라운아이드걸스) 작/편곡
- 드라마 "눈의 여왕"의 '첫눈애愛'(강성민) 작/편곡
- 드라마 "하얀 거탑"의 '체온'(장혜진) 작/편곡
- 휘성 1집, 빅마마 1집, 춘자 3집, 견우, 앤썸 등 프로듀싱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대중음악 작곡가 (프리랜서)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고 발표하게 만드는 직업입니다.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가수들을 발굴하고 음반을 프로듀싱하고 제작하는 일을 병행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즐겨 듣고 따라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악기 다루는 일에 흥미가 많았고 무대에 서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엔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서 대학은 일반대학으로 진학, 동아리 활동으로 음악 생활을 병행하며 시작하였으며, 대학원은 음악관련 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작곡가가 되려면, 일단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하며, 악기를 한 가지 이상 적정 수준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끈기와 집중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물론 음감이나 박자감이 있어야 좋겠지만 반복적인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음악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무엇보다도 끈기와 열정이 중요한 직업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작곡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은 따로 필요 없지만 아무래도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용음악 작곡전공 학부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악기 하나를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주로 건반(피아노) 악기를 연습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학 입학 실기 시험이 건반악기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화성학 등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요즈음은 컴퓨터를 이용한 작곡이 대부분이라서, 미디(MIDI)를 공부 하여 미디 작업이 능숙하면 전공공부는 물론 사회에 진출해서도 쉽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사실 초기에는 연봉수준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작곡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작곡가들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배우면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권장할 만한 활동은 직접 음반을 제작하는 일입니다.

컴퓨터와 기기들의 도움으로 홈 레코딩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제작하여 30,40대에 자기 콘텐츠를 100여 개 가진다면 음원수익, 저작권료, 기타 부 수익 등으로 연봉 5,000만 원 이상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프리랜서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긴 직업이라서 초기에 적은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녹음 이전에 창작물을 만들 때까지는 혼자 일을 해야 하므로 철저한 자기관리가 없으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또한 자신의 곡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을 갖고 천천히 기다려야 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작곡가로서 경력이 많아지면 일단 프로듀서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프로듀서는 가수를 발굴하고, 트레이닝하고, 음반을 기획하고, 녹음을 하는 등 한 명의 가수가 나올 때까지 전체적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음반기획 회사나 제작자로 진출도 가능합니다.

교수, 강사 등 교육계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타 직업처럼 취직을 하고 일정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이런 힘든 시기를 오랫동안 겪지 않으려면 좋은 곡을 쓰고 편곡하는 능력을 어린 시기에 빨리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음악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연습하고 작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며칠 쉬었다가 한 번에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1-2. 편곡가

편곡은 한 작품(또는 기존의 곡 구성)을 원래와는 다른 악기나 편성, 장르에 맞게 변형시키거나, 단순한 음악적 아이디어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편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곡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작곡가와 마찬가지로 귀가 예민하고, 여러 가지 악기와 음향 매체의 특성을 알고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음악 장르에 익숙해야 한다.

편곡을 하는 목적은 무척 다양하다. 기존 작품이 식상해져서 새로운 분위기를 내고 싶을 수도 있고, 공간의 크기나 음향환경, 섭외할 수 있는 악기의 종류와 연주자의 수, 연주자의 나이와 연주수준, 연주에 할당된 시간,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해서 곡을 재구성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좋은 편곡가가 되려면 편곡 목적을 재빨리 파악해서 알맞은 매체와 장르, 템포, 규모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편곡가들은 편곡만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을 공부하면서 부수적으로 편곡기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경우가 많다. 작곡과, 실용음악과 등 음악대학의 관련 학과에는 화성법, 대위법, 악기론, 관현악법, 전자음악 등의 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음악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획득해야 편곡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편곡가 역시 작곡가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습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무대음악, 대중음악, 각종 공연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있으나 프리랜서가 많아 인지도를 쌓기 전에는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인지도가 높아지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연예기획사 또는 음악콘텐츠 관련 기업에서 작업을 의뢰받기도 한다.

이재준 대중음악 편곡가

이 재 준
대중음악 편곡가

【학 력】
- 홍익사대부속고등학교
- Berklee College of Music (학사)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호원대학교 작곡과 외래교수

【주요 경력 및 음반】
- 미니시리즈 "연애시대" 작/편곡, 믹싱
-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작/편곡
- 미니시리즈 "로맨스가 필요해" 작/편곡, 음악감독
- "연애시대" OST
- "로맨스가 필요해" OST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편곡가 (프리랜서)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작곡가의 손끝에서 멜로디, 화성, 리듬의 형태로 만들어진 후

수많은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CD의 형태나 그 파일을 작게 만든 MP3 파일로 소비자에게 오게 됩니다. 저는 음악을 창조하는 것을 마치 사람의 몸을 만드는데 비유한다면 '편곡'은 그 몸에 옷과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를 갖추게 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옷이 날개"란 속담이 있지요? 우리가 알몸으로 밖에 나갈 수 없듯이 음악이 작곡가에 의해 만들어진 후 편곡이란 작업을 거치치 않는다면 절대로 그 만들어진 음악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 여러 가지 악기의 특성을 잘 살려서 (때로는 멜로디를 뺀 화성과 리듬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매력을 발산 할 수 있도록 '옷'을 입히는 작업을 편곡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 팝에 매료되고 재즈와 보사노바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영상음악을 접하면서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 음악을 만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곡과 편곡은 따로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음악을 편곡하기 위해선 음악을 들을 때 악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 악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악기가 나타내는 느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재 많은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어있습니다. 편곡과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작/편곡과'로 통합 되어 있으므로 편곡 혹은 작곡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작/편곡과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작/편곡과는 피아노

실력과 즉흥해서 작곡할 수 있는 능력, 화성학 이해도 그리고 자작 입시곡 등으로 입시 응시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음악적 능력을 학교에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은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을 선택하여 피아노와 작/편곡, 미디, 화성학 등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성학 책 중에 추천할 만한 도서는 도어즈에서 나오는 <경음악편곡법>이 있습니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드라마음악 작/편곡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의 편곡을 맡아서 여러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기 전에는 뚜렷한 연봉은 없습니다. 자신이 일을 하는 만큼 연봉을 받게 되겠지요. 따로 편곡비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력과 숙련도에 따라 50~200만 원 정도가 편곡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력이 늘고 점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면 연봉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 직업의 애로사항이라 한다면 업무량의 불규칙성과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한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 가지 음악 장르나 악기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음악분야를 공부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음악 작업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의 분야만 잘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편곡을 하다 보면 분명히 피아노를 치게 될 것이고 피아노를 치다 보면 작곡을 하게 될 것이고 작곡을 하다 보면 컴퓨터음악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편곡가가 피아노 연주도 하고 작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어느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하나만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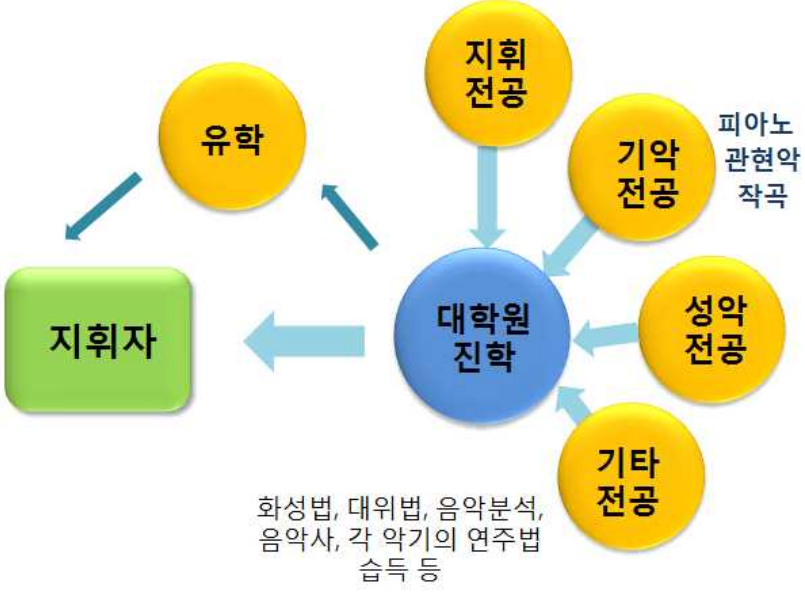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음악은 감정을 교감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소통수단이기에 누구나 좋아할 겁니다. 그만큼 음악을 직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 귀의 예민함과 음악적 소양을 파악하고 음악이 스스로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쉽게 음악을 자신의 길로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만큼 만족도와 성취감도 좋은 직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만큼 험난한 직업입니다.

연주가 1 - 서양음악

2-1. 지휘자



지휘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나 합창에서 곡의 전체적인 빠르기 · 박자 · 셈여림의 변화 등을 지시하며 연주를 조화롭게 이끄는 사람이다. 즉 악보를 재해석하여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휘자는 크게 합창지휘자와 기악지휘자로 구분된다. 합창지휘자는 2/3/4부, 남성, 여성, 혼성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서로 화성을 이루면서 각각의 선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지휘하며, 기악지휘자는 주로 관악기, 현악기 및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지휘자는 화성법, 대위법, 음악분석, 음악사 등 음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다양한 악기의 연주법, 합창발성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 음악 자체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에게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단원의 선발, 연주곡의 선정, 공연연습 등 무대에 올리는 공연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휘자에게는 단원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통솔력 등이 필요하다.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관현악과, 기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음악과, 작곡과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휘자의 경우 지휘만 전공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기악관련 전공을 하다가 지휘 분야 공부를 해서 지휘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여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하며 폭넓은 음악 감상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소양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지휘자는 국·공립 또는 사립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또는 교회 성가대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 음악가로 활동하게 된다.

김지환 지휘자

김 지 환

지휘자 (오케스트라)

【학 력】

- 용산중학교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전문사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대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 (석사)

【경 력】

- 현재(2011년 12월) : 앙상블 PAN(판) 음악감독
- 트리니타스 첨버오케스트라 전임지휘자

【주요 경력】

- 서울대, 성공회대, 삼육대, 예원학교 출강
- 2011 이상근 국제음악제 지휘
- 국내외 오케스트라 지휘 : 독일 Jena Philharmonie Orchestra, West Saechsisch Orchestra, Leipzig Musikalische Komedie Orchestra, Greifswald Theater Orchestra, Cottbus Theater Orchestra, 한국 Philharmoniea Corea Orchestra, Trinitas Chamber Orchestra,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지휘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지휘자 (오케스트라)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쉽게 알 수 있는 직업임에 불구하고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직업적 지휘자가 되는지는 다른 직업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은 연주장에서 지휘자를 보게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며 막연하게 멋있는 직업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지휘자는 연주에 수반되는 모든 준비를 한다. 단원의 선발, 관리, 음악회 프로그램 준비, 연습일정, 기타 모든 것을 관리한다. 그와 동시에 음악을 준비한다. 지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악을 준비하는 것이다. 누구나 잘 흔들면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잘 흔들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음악을 잘 알고, 잘 듣는 것. 다른 한 가지는 훈련된 신체이다. 골프를 예를 들자. 사람들은 골프를 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투자하는가? 그 이후도 많은 시간을 자세 교정과 기타 등등에 투자한다. 지휘자에게도 이러한 보이지 않는 많은 시간이 있다.

내가 어떠한 계기로 지휘자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가정 환경상 고등학교까지 별다른 예술교육을 받지 못했다. 우연한(?) 기회에 음악이론을 전공하는 과에 입학한 후 연주자가 되고 싶은 생각에 늦게 시작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르가 지휘라고 생각했으며, 그 후 매진하였다. 지휘자에게 요구되는 소질과 성격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을 뛰어 넘는 것은 음악에 대한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이라 생각된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보편적인 조건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노출되는 것, 악기 기술 습득과 음악회, 음악 감상 등 문화적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음악대학 지휘과 또는 기타 음악 관련학과에 진학해서 지휘자의 길을 모색한다. 악기 중 지휘자에게는 피아노가 필수적이다. 물론 세계적 지휘자 중에는 다른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서구 문화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이다. 서구 문화권의 다른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은, 심지어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정 수준 이상의 피아노 실력을 가지고 있다. 서양음악에 있어 피아노는 필수적이며, 많은 도움을 준다. 그 외 음악이론이나 음악사 등 음악 전반에 대한 또한 중요하다. 지휘자는 음악 전반에 관한 가장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직업이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 직업이다. 대학부터 시작해서 근 10여년 정도 교육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직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다. 예술가에게 정년이 보장된 직업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 뿐 이다. 그 또한 점점 비정년화 되고 있다. 특히 초보 지휘자에게 보장된 것은 없다. 대학이나 기타 예술계 학교 강사로 시작할 수 있다. 특정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가 된다면 연 5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력과 능력이 쌓인 후에야 가능하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예술은 자신의 능력으로만 평가 되지 않는다. 능력을 정의함에 여러 기준이 있기도 하다. 최근에 들어서 예술 또한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예술을 판단할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임명, 변경되는 많은 부분들이 예술가로서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지휘자의 경우, 건강과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겸직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단체의 고문이나 단체장이 될 수는 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은 단체 운영의 가장 큰 형태이기에 그렇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흥수 지휘자

김 흥 수

한국 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조교수(합창 지휘)

【학 력】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사)
- 한양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전문사, 석사에 해당)
- University of North Texas (DMA in Choral Comducting)

【경 력】

- 현재(2011년 1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조교수
- Seoul Choral Musiciains 상임지휘자
- 동안교회 시온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지휘자

【주요 경력】

- 서울시립합창단 단원
- UNT A cappella choir 부지휘자
- 국립합창단 부지휘자
- 저서, 작품집, 음반
- SCM 성가합창곡 음반 “가장귀한사랑”
- 코랄 21 성가합창곡집 “Big & Bright” 등 다수 편집 및 번역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합창 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지휘과 조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기를 위주로 교육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합창지휘과의 전임 교수로 학생들의 실기 지도를 그 첫째 임무로 하며, 그 밖에 학교 발전과 업무에 필요한 기타 활동을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하고 보람 있게 생각하여 선택한 직업이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과 능력에 우선하여,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 기본적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지휘와 합창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기 능력이 요구된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기 능력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지휘자의 인성과 기본적 지식을 갖추기 위한 라틴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불어, 영어 등에 대한 기본적 능력 습득, 다양한 연주자와 단체의 연주 관람 및 음악 감상, 폭 넓은 독서, 합창단이나 연주단체에서의 풍부한 경험 등이 필요.

합창지휘전공의 박사학위나 그에 상응하는 학위가 필요하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연봉 3000만원 이상을 처음에 기대할 수 있으며, 여러 합창 활동이나 음반, 집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지휘자로서 연주자들을 지도하는 것, 더구나 지휘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많은 제반 지식과 악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휘자는 실력 외에 사람들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까지도 잘 조절하고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없이 지휘하는 어린 학생들은 많은 갈등을 경험하며 성장해야 한다. 지휘자의 경우 교수를 비롯한 소수의 직종 겸직하지 않으면,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여러 음악적 경험과 능력을 갖춘 지휘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다면 다른 직종을 가지는 것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음악평론이나 음악 메니지먼트, 음악교사, 혹은 작곡이나 지휘 외의 전공연주자로서의 활동, 합창단원, 집필, 음악 엔지니어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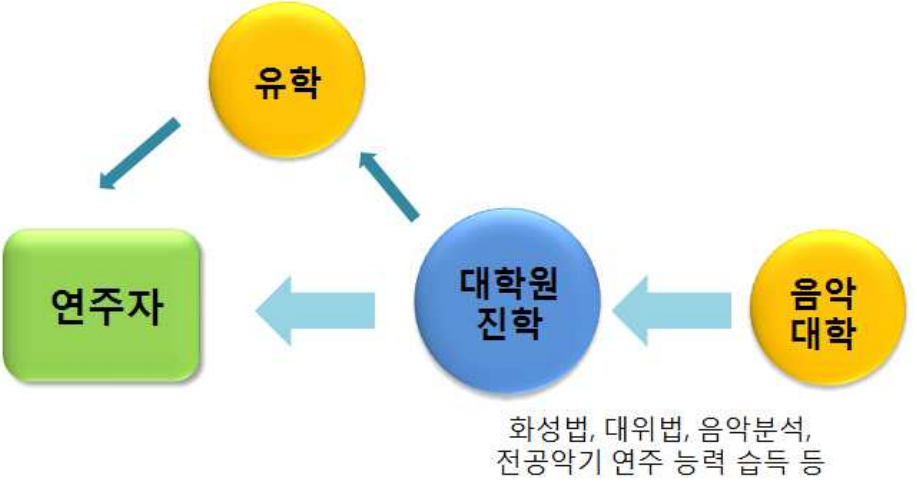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업을 갖기 위해 지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지휘자를 만드는 것이다. 진학을 위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지휘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면 지금 중단하라고 권하고 싶다. 음악을 사랑한다 해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해서도 지휘자에는 맞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업은 아니다. 단 합창단원이 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성악을 전공한 후 전문합창단 시험에 합격하면 가능하다.

2-2. 연주가



연주가는 이미 작곡가에 의해 작곡되어 있는 음악을 악기라는 매개체를 통해 청중들에게 들려주는 사람이다. 통상 특정악기의 연주를 전문으로 하며, 다루는 악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건반악기(피아노, 오르간, 첨발로 등), 현악기(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 등), 관악기(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롬본, 오보에, 플루트 등), 타악기(마림바, 팀파니 등). 혼자서 연주하거나(독주), 오케스트라, 현악4중주단 등의 실내악단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성악가의 노래나 다른 악기의 연주를 반주하는 경우에는 반주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주가는 자신의 악기에 대해 다양한 음악적 지식과 기술, 화성의 진행이나 음색 등을 파악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연주를 통해 자신의 곡 해석과 음악적 표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 무대에서의 연주를 통해 청중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음악성과 감정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 힘든 연습을 견뎌내는 인내력,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주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전공 악기에 몰입하여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많은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적 소양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연주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예술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 사설학원이나 개인레슨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대학에서도 관현악과, 기악과, 피아노과, 음악과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주가 중에는 유럽과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각종 음악 콩쿠르에 참여하여 입상경력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연주가는 보통 공립 또는 사립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등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프리랜서 음악가로 연주활동을 하게 된다. 오케스트라의 단원 채용은 주로 서류전형과 실기시험을 거쳐 이루어지며 대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여건 상 연주가가 설 수 있는 무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연주 활동만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개인레슨이나 강사, 교수를 하면서 연주 활동을 한다.

임종필 피아니스트

임 종 필
피아니스트

【학 력】
- 청구중학교
- 경북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학사 (기악과 피아노 전공)
- University of North Texas 석사 및 박사 (피아노 전공)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

【주요 경력】
- 동아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입상
- Texas Young Artists Competition 등 입상
- Moscow Bolshoi Theatre Orchestra 등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대한민국음악제> <교향악축제> 등 주요음악제 출연, <슈만 시리즈> <스페인음악 시리즈> 등 다수의 독주회, 대만, 일본, 이태리, 독일, 러시아에서 연주 및 마스터클래스, 나고야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역임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피아니스트, 교수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직업은 교수이며 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하여 피아노란 악기에 입문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진학 즈음에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확고히 갖게 되었습니다. 음대를 졸업하고 오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연주만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주와 교육을 병행하는 쪽으로 차츰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199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개원 시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이 전문 피아니스트, 그리고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담하고 진로를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본교의 재학생은 적어도 10년 내외의 훈련을 이미 거친 학생들이므로 그 수준에 걸 맞는 기악적·음악적 지도를 위하여 저 스스로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 외에도 대학이라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맡게 되는 다양한 행정적인 업무도 수행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또 다른 한 축은 연주가로서의 역할입니다. 독주, 반주, 실내악 등 다양한 형태의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예술성과 학구성을 추구하는 연주만이 아니라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연주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악 분야에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전공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연주기량이 필수입니다. 이는 어릴 적부터 오랜 기간 부단히 연마해야 하며 연습한 과정을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콩쿠르나 연주회 등을 통하여 실제 무대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악곡의 정확하고 설득력 있

는 해석을 위하여 음악 전반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예술 전반에 걸친 감수성과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기악 분야의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학졸업 이후에도 대학원, 유학, 연주경험 등 여러 과정을 거친 후이므로 빨라도 30대 초중반에나 가능합니다. 개별대학에 따라 연봉은 다양하지만 전임강사로 임용되면 사천만원(?) 이상은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근무기간 누적과 직급 승진에 따라 소득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연주에는 강도 높은 집중과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고 따라서 많은 정신적·신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학생지도 역시 세심한 준비와 관심을 요하는 일이므로 연주와 교육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철저한 자기관리와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만한 사교성을 길러야 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교수는 연주와 교육 외에도 대학이라는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이나 예술기획과 관계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술관련 단체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직업은 무엇보다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아니 평생토록 배우고 노력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악성이란 선천적인 요소가 크게 좌우하므로 자신의 음악적 감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임시원 트럼펫 연주가

임 시 원

트럼펫 연주가

【학 력】

-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음악대학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졸업 (전문연주자과정)

【경 력】

- 현재 (2011년 12월) : 한국페스티발앙상블단원.
- 서울대, 한양대, 숙명여대, 백석예대, 백석대 출강
- 선화예술학교, 선화예고, 경기예고, 덕원예고, 안양예고 출강

【주요 경력】

- 예음 실내악콩쿨 우수상, 동아음악콩쿨 트럼펫부문2등, 동아음악콩쿨 실내악부문1등입상
- KBS교향악단,KBS관현악단,수원시립교향악단,대전시립교향악단,충남교향악단,제주시립교향악단,,프라임오케스트라,경북도립오케스트라,서울대학교관악합주단,안양윈드오케스트라,서울시청소년오케스트라,서귀포관악단 외 여러 실내악단과 협연
- 부천필하모닉,KBS교향악단 단원 역임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트럼펫 연주자 & 대학강사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는 대학에서 전공실기를 지도하는 강사입니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는 오케스트라 단원과 대학 강사를 겸직하고 있었고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는 대학에 출강하며 개인적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 지금 하고 있는 트럼펫을 시작하여 예중, 예고, 음악대학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오케스트라 단원이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음악 전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현악기 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좋은 교향악단에 입단하거나 대학 교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향악단 주자들도 계속해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여러 번의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향악단보다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더 안정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악전공학생들은 좋은 연주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꿈 일겁니다. 그 꿈은 직업과도 바로 직결 되겠지요. 교향악단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KBS 오디션 당시 그 자리는 10년 만에 열리는 오디션이었고 제가 합격을 하고 11년을 근무했고 2008년 사직 후 지금까지 그 자리는 비어있습니다. KBS에서 사내문제로 뽑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 2011년에는 오디션이 있었으나 좋은 연주자가 없다는 이유로 뽑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오디션에서 연주를 잘 했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연주자는 개인의 기량 향상에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창시절 많은 합주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음악회를 보며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KBS교향악단에서 1995년 ~2006년 까지 받은 연봉은 38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 KBS 직원대비 60%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물론 다른 교향악단에 비해 많이 받은 것이지만 서울 시향을 제외한 다른 교향악단에 비해 KBS의 경우 연주가 2~4배 많은 것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연봉 대비 사회적 인지도는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 최고의 대학, 한국 최고의 교향악단에 있었지만 서양음악이라는 이유로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것에 대한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 대우에 불만이 있었기에 사직 후 38세의 나이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 후 현재 교향악단에 다시 입단은 하지 않았고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나 사회적 인지도는 그 전에 비해 떨어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했기에 만족스럽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면 교향악단 근무 시에는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으나 대학 강사의 경우 방학 중에는 급여가 지불 되지 않아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것 입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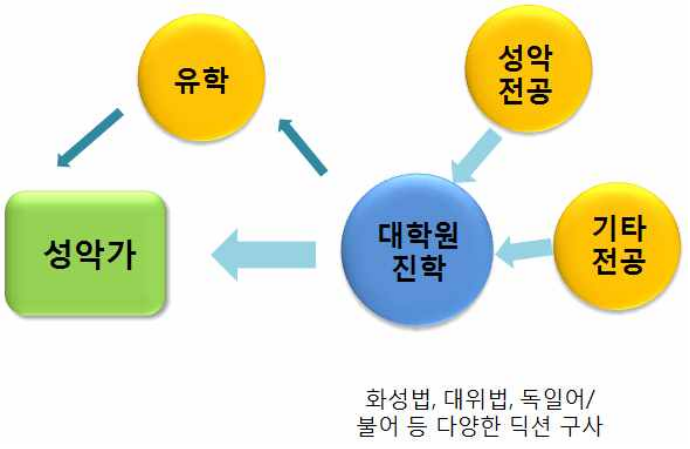
아무리 경력이 많더라도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직은 쉽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조건의 교향악단으로 입단하거나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주 경력과 다시 오디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은 썩 자유롭거나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외국과는 달리 다른 교향악단에 오디션을 보려면 기존에 다니던 오케스트라를 대부분 그만 두어야 하기(교향악단 단원들 시선 때문에) 때문에 확실히 보장 되어 있지 않는 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직업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을 것 입니다.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에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자세로 부단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성악가



성악가는 성악(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성악 독창 위주로 활동하거나, 합창단의 일원으로 혹은 오페라의 배역을 맡아서 공연한다. 발성범위에 따라 여자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남자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로 분류한다.

성악가는 화음, 발성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성악 테크닉과 악곡의 해석 및 표현 방법을 연마하며, 연주를 위해 다른 성악가나 반주자와 음색을 조정한다. 성악가가 되면 주로 서양음악을 많이 다루게 되고 오페라나 예술가곡이 대부분 유럽에서 발달된 것이므로 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다. 성악가의 경우 오페라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오페라 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페라의 경우 가창 실력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요구되므로 별도의 연기 지도를 받기도 한다.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변성기 이후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많은 음악을 감상하면서 음악적 소양을 키워나가야 한다. 성악가는 기악 연주가에 비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대부분 대학에서 성악과를 졸업한 후 성악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등으로 유학을 다녀온다. 각종 음악 콩쿠르에 참여하여 입상경력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하다.

성악가들은 보통 국·공립 또는 사립의 합창단, 오페라단 등에 단원으로 소속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중고등·대학교에서 교사·강사·교수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

권세연 성악가(메조소프라노)

권 세 연

메조소프라노

【학 력】

- 부다페스트 리스트 음악대학(학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석사
- 프랑스 파리 에꼴 노르말 음악원 고등연주자 디플롬
- 동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수료

【경 력】

- 현재(2011년 12월) : 나사렛대학교, 계원예고, 선화예고 출강
- 프랑스 가곡연구회, 음악예술학회 정회원

【주요 경력】

- 2011 메조소프라노 권세연 독창회(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 2010 G.Apollinaire의 시에 의한 Poulenc의 가곡 (리사이틀홀)
- 2009 세미나 음악회 <프랑스 가곡의 발전>
- 2009 서울국제음악제 Nadia&Lili Boulanger의 예술가곡 (장천아트홀)
- 2008 메조소프라노 권세연 귀국독창회 (금호아트홀)
- 석사논문: <Erkel Ferenc의 오페라 Bánk Bán에 나타나는 민족음악적 요소에 관한 고찰>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성악가, 대학 강사(현 나사렛 대학교, 계원예고, 선화예술학교 출강)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고 현재 연주자와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성악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순수한 노래와 음악에 대한 작은 열정이었으나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개성 있는 연주자로서 자질을 높이는 것에 큰 목표를 두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수의 길로 함께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악은 몸을 악기로 하기 때문에 선천적인 조건이 좌우합니다. 물론 후천적인 노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만 타고난 신체적 조건과 음악적 소양은 진로선택의 우선 고려대상입니다. 둘째로 직접 관객과 바라보며 연주하기 때문에 담대함과 무대를 즐기는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내성적이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음악적 표현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음악의 성장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꾸준한 연습과 노력의 결과로 발전되는 마라톤과 같은 과정입니다. 즉 이 과정의 순간에도 많은 벽을 느끼고 포기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즐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자유롭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주자와 대학 강사의 경우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 합니다. 유학은 필수 는 아니지만 서양음악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은 필요하

고, 연주자의 개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피아노, 시창, 청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음악공부는 성악의 내실을 충실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 꾸준히 병행하도록 합니다. 성악은 몸을 악기로 가사를 전달하는 유일한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면을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 독서나 여행 등 감성적 경험 등을 갖고, 이외에 외국어 습득, 많은 다양한 무대경험 등은 필수적 요건입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이 직업은 많은 시간과 공부를 필요로 하지만 시간적 투자에 비해 초기 받을 수 있는 연봉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자기분야의 경력을 쌓아간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롭게 본인의 음악을 연주하며 주도적인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에 있으며, 무대에 얻는 에너지와 만족감은 경제적인 면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또한 교육자로서 얻는 보람과 그를 통한 자기 성장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문화적으로 대중 실용음악이 확산되면서 대학에서 점차 실용음악과를 신설하고, 클래식 음악과가 축소되는 현실 때문에 클래식 문화와 인구가 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대적 순환의 일부라 생각하고 대중문화 관객인구의 확산은 곧 문화를 즐기는 인구의 확산으로 미래의 클래식 문화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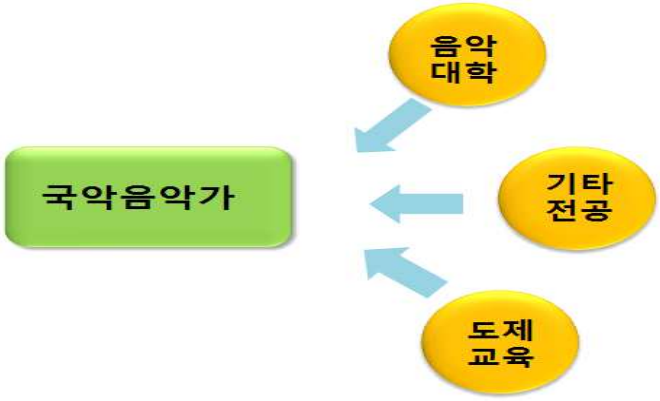
클래식 분야의 이직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순수 예술의 장점은 다른 분야의 문화에서 기초로 공부되는 분야이므로, 실용이나 대중음악 분야에서도 충분한 기본기를 갖춘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누구나 무대의 화려한 연주자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무대에 서는 연주자의 모습은 단지 무대에서 화려할 뿐 준비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무대를 위한 준비 과정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현재의 음악 분야는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목표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스스로 뚜렷한 사명감과 목표를 가진 시점에서 직업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연주가 Ⅱ - 국악



국악 음악가는 가야금, 거문고 등의 국악기를 연주하는 국악연주가와 판소리, 민요를 부르는 국악성악가로 나눌 수 있다. 국악연주가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대금, 피리, 장구 등의 국악기로 국악 또는 창작 국악을 연주한다. 국악성악가는 북, 장구 등의 국악기의 장단에 맞춰 가곡, 가사, 시조를 노래하거나 판소리, 민요를 부르고, 창극에서 공연한다. 국악 음악가는 우리 민족의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고유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청중들에게 예술적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다.

국악연주가/성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 국악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국악 연주를 배우게 된다. 과거에는 유명예능인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나 점차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에 국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입학시 전공에 따라 실기전형을 치른다. 국악의 특성상 한문으로 된 문헌자료를 읽는 경우가 많아 한문에 대한 지식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악(특히 판소리)의 경우 대학 교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공립 국악관현악단, 연주단체 등으로 진출하거나 개별적으로 연주 활동을 한다. 보통 국·공립단체의 경우 매년 혹은 결원이 있을 때 공개채용을 통해 단원을 뽑는데 보통 서류전형, 실기시험 등을 치른다. 또한 연수단원 형식으로 입단한 후 시험을 거쳐 정식 단원으로 입단하는 사람도 있다. 사설단체의 경우 인맥, 추천 등을 통해 입단하기도 한다.

민의식 국악연주가(가야금)

민 의 식

국악연주가(가야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학 력】

- 국립국악고등학교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가야금전공)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악과 졸업
- 고려대학교 박사 수료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 난계국악단예술감독
- KBS국악관현악단운영위원
- 국립국악관현악단 자문위원
- 영산예술단 이사

【주요 경력】

- 제1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 제2회 동아국악콩클 일반부 금상
- 난계국악단 악장역임
-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악장역임
- KBS 국악관현악단 악장역임
-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지도자상
- 악학대상 공로상
- 한국방송고상 사장표창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예술은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든든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진 전통예술인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전통의 역할인식을 계승함으로서 21세기 문화 창조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현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전통예술을 재창조해야하는 소명의식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대학원을 진학하며 전통예술의 본질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전통예술이 이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며 그 고민의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고민 탓인지 'kbs국악관현악단'과 '슬기둥'이라는 실내악단에서의 생활은 조금이나마 그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나 갈 수 있는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에 대한 나의 열정은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느린보 거북이처럼 한걸음 한걸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뛰어난 소질을 가지기 보단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현재와 소통하며 전통예술을 재창조해가고 역량 있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자 나의 사명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기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체계적인 전공분야의 실기 수업과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지향하는 실기방향을 잘 파악하여 그 방향에

맞게 이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연주나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 여러 무대경험을 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양을 쌓기 위해 어떠한 특정한 장르의 음악을 듣기보단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적 소양을 넓히고 전통예술 관련 서적들을 읽음으로써 실기는 물론 이론적 소양도 쌓는다면 더없이 좋은 음악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예술계통의 교수라는 직업은 사업가나 기타 고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인내와 노력의 인고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소득과는 반비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을 살려 전통예술의 재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후학들을 양성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요즘 사회의 크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실업이 예술계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모든 학생들에게 저마다의 일자리가 제공되면 좋겠으나 원하는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있기에 졸업 후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개별 예술 활동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적극적인 정부와 지방단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그 인재들을 사회의 재원으로 내보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원활한 수요와 공급의 기준점을 필요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교수는 후학을 양성하면서 개인적인 음악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분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 동안 외길만을 걸어온 결과 가지게 되는 전문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수는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직업입니다. 더욱이 실기는 공동작업도 필요로 하지만 그보다 개인적인 연습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본인과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잘 조절하며 혼자만의 연습시간을 이겨내고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열정을 가지고 현재와 소통할 수 있는 전통예술의 재창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준다면 더없이 훌륭한 전통예술인은 물론, 이 시대의 훌륭한 교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정민 국악성악인

서 정 민

국악성악인(판소리)

【학 력】

- 전주 성심 여자중학교
- 전주 예술고등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학사 및 석사)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박사수료)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시간강사 (실기, 판소리)

【주요 경력】

-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 심청가 이수자
- 동아 국악 콩쿠르 판소리 일반부 은상
-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참방 외 다수 수상
- 이찬해 판소리 다섯마당 시리즈 '춘향가' 공연 외 다수 공연

【저서, 작품집, 음반】

- 서정민 판소리 수궁가(live) (탑음반)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국악성악인(판소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시간강사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학생들에게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접했던 판소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리의 고장이라 불리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난 저는 자연스레 판소리를 알게 되었고 그 매력에 빠져 단 한번의 후회도 없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강사는 사실 정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불안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규직이 아님으로 인해 예술가로서 얻어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자기 계발 시간이 충분하며 이것을 토대로 연주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고로 예술가의 진정한 삶이란 자신의 예술을 자유로이 펼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간강사는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자신의 예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자기 전공에 대한 확신과 실력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학생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판소리는 현재와는 거리가 먼 장르로 인식되는 전통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념이 없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인내하며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판소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접하는 것이 좋

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소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독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을 이용한 예술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오랫동안 학습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미래를 위해 예술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며, 대학은 당연히 예술대학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판소리를 한다고 해서 인문학적 소양을 등한시해서는 안됩니다.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장르의 예술(양악, 재즈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애석하게도 시간강사의 수입은 불규칙적입니다. 학기당 몇 과목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며 방학 동안은 수입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예술활동이 가능하므로 시간강사로서 벌어들일 수 없는 금전적 수입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예술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시간강사는 아무래도 불규칙적인 수입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혼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혼자의 경우에는 시간강사벌이로만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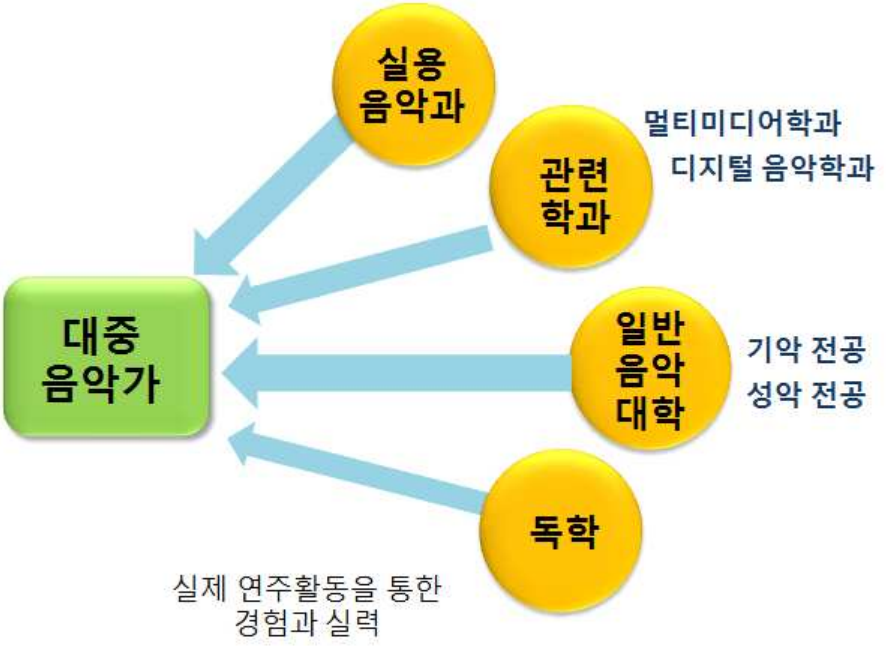
시간강사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타 직장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전통예술 분야가 취업에 대한 인프라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은 대학교의 전임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 자기 계발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이 된다면 제일 성공한 사례가 되겠지요.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십시오!
금전적인 것에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의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연주가 Ⅲ – 실용(대중)음악



4-1. 실용(대중)음악 기악

실용(대중)음악계에서 기악 연주를 직업으로 한다. 독주자 또는 밴드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거나 보컬리스트의 반주자로서 활동한다. 작·편곡이 가능한 경우에 겸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음반 녹음 및 제작, 방송출연, 콘서트, 각종 공연과 행사 출연을 통하여 활동한다.

실용(대중)음악 기악 연주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악기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연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연주실력을 가진 경우 또는 대회에 입상한 경우 무대 데뷔가 빨라진다.

실용음악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즉흥연주가 필수적인 연주 능력으로 여겨진다. 즉흥연주가 가능하도록 화성학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주자로서나 밴드의 일원으로서나 반주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주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용음악은 물론이고 그 외의 여러 장르의 음악을 음반과 공연 등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예술 분야에 대해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연주자로서의 삶을 풍요롭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대학 학부과정에서는 실용음악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디지털 음악학과 등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음악대학에서 기악을 전공한 사람도 실용음악적 어법을 습득하고 연주할 수 있다면 실용음악 기악연주자로서 활동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다. 대학 재학 중에도 세션 활동, 밴드 활동, 솔리스트 활동, 작·편곡 활동 등을 하면서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다.

자격증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대학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제 연주활동을 통하여 경험과 실력을 쌓아 연주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소득은 연주자로서 활동하거나 또는 기악레슨 강사로서 활동하거나 실력과 인지도와 비례한다.

유성희 재즈피아노 연주자

유 성 희
재즈피아노 연주자

【학 력】
- 대전서중학교
- 호수돈여자고등학교
- 연세대학교(학사), 버클리음대(학사),맨하탄음대(석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인천재능대학교 실용음악과 부교수

【주요 경력】
-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객원 재즈그룹으로 연주
- 전주소리축제,월미국제음악제,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참가

【저서, 작품집, 음반】
- 3장의 개인앨범 발매 “Lucky Dot” “Glimpse” “Under the Appletree”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재즈피아노 연주자 (유성희 재즈트리오의 리더)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즈피아니스트: 피아노란 악기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숙련도를 갖추고 재즈음악의 Art Form에 대한 이해와 어법을 학습한 후에 충분한 수련과 연주경험을 통해 공연 및 녹음 등의 어떠한 라이브 연주가 필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 재즈 연주자를 말한다
- 본인(유성희)의 경우, 일곱 살에 시작된 피아노 레슨덕에 점진적으로 길러진 음악적 감수성을 토대로 열세 살에 작곡에 커다란 흥미를 느끼게 되어 그때부터 피아노 연주와 더불어 좀 더 작곡에 체험을 더 두면서 많은 작곡 콩쿨에도 출전하여 수상을 하는 등의 음악적 성취감을 쌓아나갔다. 자연스럽게 대학진학도 작곡과에 입학하여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다가 졸업을 앞둔 무렵 즈음에 재즈음악을 접하게 되었다

재즈음악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즉흥연주가 갖는 자유로움의 매력은 나의 진로의 방향을 틀기에 충분했고 나의 음악관을 넓혀주는 큰 계기가 되었다. 당시 클래식음악이 아니면 학구적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다소 보수적인 국내의 편견을 뒤로하고 재즈의 명문학교인 미국 버클리 음대와 맨하탄음대에서 유학하면서 재즈음악인으로서 쌓아야할 소양과 지식과 스킬을 쌓아나갔다. 국내에서 대학 졸업전까지는 남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거의 없이 혼자 작곡만 하다가 재즈를 접하면서 순간적인 작곡과 같은 재즈연주가 그동안의 작곡공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고 또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짜릿한 재미까지 더해져 프로페셔널 재즈 피아니스트의 직업관을 정립시키고 끊임없이 매진하도록 해주었다

또한 작곡은 거의 혼자 하는 작업임에 비해 재즈 연주는 앙상블의 형태가 많은 만큼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음악이기에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고 비교적 외향적인 성격을 소유한 나의 성격하고 잘 맞았다고 할 수 있다.

6년동안의 미국 유학생활과 다수의 연주 경험은 직업으로서의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는 과정에 큰 밑거름과 자양분이 되어 주었고 현재 국내에서 음반 및 공연활동과 교육활동을 겸하면서 꾸준히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즈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우선 피아노라는 악기를 다루는 스킬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그러한 점에서 테크닉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클래식 피아노를 공부하는 것도 추천함) 재즈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코드의 대한 이해와 리듬감, 임프로비제이션의 어법 등을 학습하면서 앙상블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다루는 학과에 진학하려면 국내에서는 실용음악과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해결방법이라 판단된다. 물론 학교마다 재즈를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지는 각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교수진을 살펴보면서 (방송 및 커머셜 음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도 있기에)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추천하고 싶은 도서로는 만화로 쉽게 재즈역사를 풀어놓은 국내도서 "Jazz It Up"과 좀더 전문성 있는 Mark Gridley의 "재즈총론"을 추천한다. 아울러 재즈의 명반들을 많이 듣고 transcription(채보) 하는 것을 권유한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직업으로 직결되는 타분야와는 달리 예술분야에 있어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므로 일반 회사원처럼 연봉기준을 세우기는 무척 어렵지만 각자만의 경쟁력을 갖춰서 활동력 있는 연주인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대졸신입사원이 받는 연봉수준은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고 프리랜서인 만큼 자유로운 시간을 효율적으로 연주 및 음악활동과 교육활동으로 잘 활용한다면 왕성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직업 연주인로서만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신분과 경제력에 대한 미래의 보장이 없다라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연주인들이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일과 병행하여 연주자의 길을 이어 나가려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끊임없이 연마하고 새로운걸 창조해내야 하는 등의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관련 음악의 바운더리 안에서의 이직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즈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TV, 영화 등 매체 음악의 연주 및 창작활동에 더 치중할 수도 있고 역으로 다른 분야에 있다가 재즈피아노를 배워 활동할 수도 있겠다. 다행히도 재즈음악이 요구하는 숙련도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트레이닝된 연주인이라면 다소 다른 음악분야에 진출했을 때 쉽사리 포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피아노를 다루는 스킬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재즈음악뿐만 아니라 고전음악, 팝음악, 등 모든 음악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음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공연문화도 체험하길 조언한다. 또한 재즈에 대한 포커스를 잃지 않고 많이 듣고

많이 transcription 하고 많이 합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당부한다.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갖는 등의 예술 전반의 감성을 키우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

4-2. 실용(대중)음악 성악

1) 보컬리스트

실용(대중)음악계에서는 성악 연주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주로 보컬리스트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기악 반주에 맞춰 노래하며, 음원 또는 음반 녹음, 방송출연, 콘서트,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활동하는데, 경우에 따라 CF 및 영화, 드라마 삽입곡을 부르기도 한다. 뮤지컬 배우의 경우 연기, 안무와 함께 노래실력이 중요한 자격조건이 되므로, 이들 또한 보컬리스트로 보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노래실력이 필요하다. 뛰어난 노래실력에는 우선적으로 좋은 음색과 정확한 음감, 풍부한 표현력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인내와 끈기를 갖고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과정을 극복해내야 한다. 또한 음원 또는 음반 녹음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담력과 책임감, 적극성, 창의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악기 연주나 작곡 능력이 있다면 더욱 좋다.

솔리스트, 밴드의 보컬 또는 보컬그룹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작사, 작곡, 편곡까지 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학 학부과정에서는 실용음악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등에서 전공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컬리스트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실력이다. 좋은 보컬트레이너를 만나 레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노래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컬리스트에게는 가사 표현력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가사 표현력은 기본적으로, 보컬리스트에게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와 직간접 인생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가와 관련된다. 독서와 다양한 예술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실용음악은 물론이고 그 외의 여러 장르의 음악을 음반과 공연 등을 통하여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가수, 뮤지컬 배우, 가이드보컬, CM송 보컬, 보컬트레이너, 대학 강사 또는 교수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실력과 인지도에 따라 소득은 천차만별이다.

2) 보컬트레이너

보컬리스트에게 발성, 가창법 등을 가르친다. 보컬리스트의 장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가진 실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보컬리스트의 장점이나 부족한 점은 보컬트레이너로서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정확히 보인다. 이 경력에 있어서 보컬리스트로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보컬트레이너의 트레이닝법이 관건이 된다. 이 트레이닝법 역시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꾸준하고 진심어린 독려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진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컬리스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창법의 장단점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는 시범이 필수적이다. 시범은 보컬트레이너가 다양한 보컬테크닉을 구사할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다양한 음악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다양한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 이처럼 보컬트레이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론적 뒷받침도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

대학 학부과정에서는 실용음악 관련학과 성악을 전공할 수 있고 대학원에서 연계하여 전공할 수 있다. 외국에 유학하여 보컬트레이너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자격증과는 관련 없는 직종이다.

보컬트레이너가 되는 정해진 과정은 없다. 보컬리스트로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다가 트레이너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실용음악을 공부한 뒤 보컬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경호 보컬리스트

이 경 호

보컬리스트 · 보컬트레이너(프리랜서)

【학 력】

- 우석대학교 연극영화과(문학사)
-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대중음악 제작·경영(예술학석사)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예술경영학박사과정 중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과 겸임교수
- (주)솔담엔터테인먼트 음악감독

【주요 경력】

-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가스펠', '밤으로의 긴 여로', '렌트', '맹진사댁 경사' 출연 및 편곡·음악감독
- 한국저작권위원회 표절위원회위원
- 문화체육관광부「2008서울시 공연문화예술행사 ·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공연평가위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공연장 디렉토리 발간사업」 자문위원

【저서, 작품집, 음반】

- 한국저작권위원회「음악저작물 감정기법에 관한 연구」
- MBC드라마 '러브레터' OST
- TRI-BE 1집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보컬리스트 · 보컬트레이너(프리랜서)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표현하는 음악을 성악이라 하는데 이러한 성악은 실용음악 분야에서 보컬이라고 얘기하며, 이를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을 보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음악의 꽃이라 불리 우는 보컬리스트는 음악의 세부 전공 중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에 속합니다. 악기가 표현하는 선율을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보컬리스트는 대중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지만 프로가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악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를 관리하고 목소리를 갈고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 직업을 선택하면서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목소리 즉 노래로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표현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대에 서게 되면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본인의 심경과 상관없이 대중을 위해 슬픔과 기쁨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컬리스트로서 직업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천적인 재능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후천적인 연습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후천적인 성향을 가진 자가 선천적인 자의 재능을 따라잡으려면 몇 백배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바로 그 직업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최고라는 정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컬리스트는 본인의 생각을 노래로 표현하고 이를 듣는 대중과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보컬리스트로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꾸준한 실기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변성기가 오기 전부터 연습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성기 이후로 성인의 목소리로 변해가는 시기부터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매일 매일 하는 것이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 냅니다. 실용음악 보컬과 관련된 교재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관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용음악 보컬전공 학생들의 대부분이 대중음악계에서 종사하기 때문인데 대중음악은 소리에 대한 정답(물론 음치인 경우나 듣기 싫은 소리를 가진 경우는 제외합니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기본교재는 분야별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기본교재를 대신 할 수 있는 학습방법입니다. 참고적으로 실기 선생님을 통하여 소리에 대한 기본기를 습득한 후 「세스릭스 저 '스타처럼 노래하세요'」란 교재로 전문적인 소리에 대해 학습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하고 다양한 음악을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처럼 음악도 편식을 하게 되면 소리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음악을 듣고 많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올바른 보컬리스트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보컬리스트는 연봉과는 관계없는 직업입니다. 대중에게 보여지는 본인의 인지도 여부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였거나 뮤지컬 등 여러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더라도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소득은 형편없을 것이고 그 반대라면 소득은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보컬리스트는 30, 40대가 되면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됩니다. 직업을 통한 여러 경험으로 강

단에 서거나 혹은 보컬선생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건은 10대와 20대에 음악에 최선을 다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같은 보컬리스트라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 성공한 보컬리스트와 소득수준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뒤 따릅니다. 또한 예술분야 직업의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이 강한 직업이기에 재정적으로 앞날을 설계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보컬리스트는 먼저 대중음악 분야에서 가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력으로 뮤지컬 시장에도 진출하여 노래하는 뮤지컬배우가 될 수도 있고, 노래를 가르치는 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직에 대한 자유로움 때문에 동시에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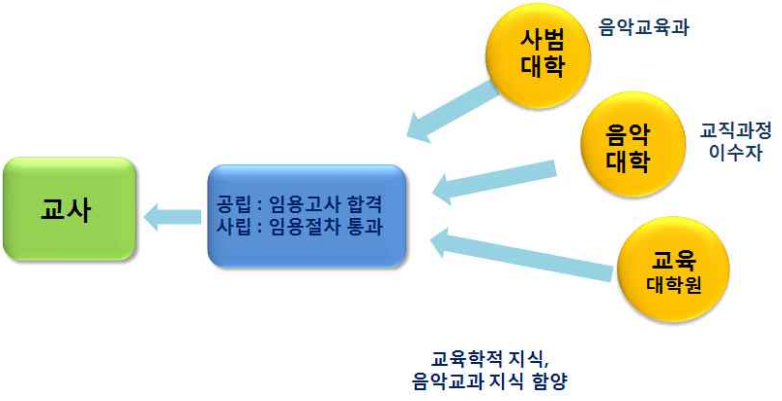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분야에서 보컬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의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래를 좋아해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

한 노력과 함께 자신의 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요즘의 보컬리스트는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연주 및 작곡 능력까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음악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교 육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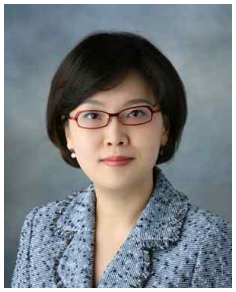
5-1. 중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음악과 수업을 담당한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을 가르친다.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감수성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음악과 수업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며,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도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계획과 수업 이수 등을 고려하여 전담 과목의 학습안을 작성한다. 교내 음악 관련 행사(합창대회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교내 합창단 또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하며, 수업과 연구 이외의 담당 업무(담임, 공문 작성과 처리 등) 등을 수행한다. 이렇듯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서는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법, 지도법, 언어구사력, 판단력, 분석력, 인내심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중등학교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인문계 사범계열 학과를 졸업하거나 비사범계열의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유리하다. 관련 국가자격증으로는 중등학교 정교사(1・2급)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립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교사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요구하는 임용절차에 합격해야 한다.

조은아 음악교사



조 은 아

선화예술학교 교사

【학 력】

- 선화예술학교
- 선화예술 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 교육 전공 (석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선화예술학교 음악과 교사

【주요 경력】

- 1992~1993 강서 고등학교, 영도 중학교 기간제 교사
- 1996~2007 선화예술 고등학교 음악과 교사
- 2008~2010 선화예술학교 음악부장 역임

【저서, 작품집, 음반】

「예고 음악이론」-- 현대음악 출판사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중학교 음악교사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라는 직업은 근래 들어 안정적인 연금과 63세까지의 정년 보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분류되곤 한다. 하지만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은 음악과 중등학교 교사보다는 대학 교수를 선호하며 전문 음악가를 꿈꾼다. 요즘에는 종합대학에서 교직 과목의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되어 성적이 매우 좋은 학생들만이 교사 자격증을 따내고 순위 고사를 통한 중등학교의 교사 임용고시의 경쟁률도 매우 높아 교사가 되기 위한 고시 공부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은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중, 고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며 대학 졸업 후에도 교육 대학원으로 진로를 결정했으며, 학부 시절부터 음악 이론 및 작곡, 청음 등의 개인교습을 통해 학생을 가르쳐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제자를 길러내고 지식과 삶 전반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에는 틀림없지만, 학교 수업의 특성상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지루함과 시간표 틀에 맞추어 시, 분, 초 단위로 진행되는 학사 일정 등은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참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성인이 된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반드시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선생님이

있기 마련이다. 그 기억이 기분 좋은 일이건 또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덕 교사의 이미지이건 간에 '교사'라는 직업은 부지불식중에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개인의 학부 전공에 따라 우수한 부분이 각자 다르기 마련인데 음악 교사는 기본적으로 피아노 실기와 국악을 포함한 기본 음악이론에 대한 지식, 성실성을 겸비해야 한다.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은 필수이며 4년제 종합대학 또는 교육 대학원에서 정해진 학점 이수와 교육 실습 후 취득 가능하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교사의 월급은 많지 않다. 교사 초봉은 일반적으로 8호봉에서 시작하여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1호봉씩 올라가며 한 호봉의 차이는 급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5~7만원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초기 연봉은 2000만원 미만으로 한 달에 약 150만원 내외라고 보면 되며, 방과 후 보충 수업 등으로 개인적인 수업 활동에 대한 수당은 있을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되며 퇴근 시간이 이른 편이고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개인 시간을 누릴 수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에 따른 성과급등은 기대할 수 없는 직업군이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지루하고 반복적인 수업
2. 수업 이외의 다양한 잡무들
3.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무관심
4.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교사에 대한 불신
5. 예체능 과목에 대한 외면으로 파행 운영되는 수업 (인문계 중등학교)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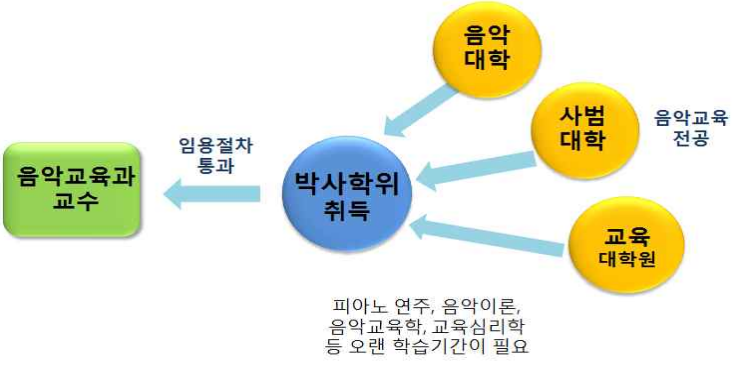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용고시나 각 사립학교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직업으로 이직이 활발하지 않은 직업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교사 평가제나 다양하고 활발한 직무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교재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접한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말 보람 있고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다. 때로는 나보다도 훨씬 어른스럽고 배울 점이 많은 어린 제자를 보며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적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력 이외의 인성에 대한 다각도의 자격을 검증한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언급한 교사로서의 소명의식과 담당할 과목에 대한 수준 있는 지식이 가장 필요하며 여행이나 독서를 통한 개인적 체험을 학생들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재미있게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정열이 필요하다.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을 만나며 생활해야 하므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더욱 즐거운 교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5-2. 교육대학 음악교육과 교수



예비 초등학교 교사들인 교육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수업 능력을 마련해주는 일을 한다. 교육대학 학생들을 음악전문가로 키울 필요는 없으나, 그 학생들이 가르칠 초등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아이들이다. 그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르칠 교사들이 일정 정도 이상의 음악적 수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의 교수들에겐 막중한 책임과 역량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필요한 기본적 음악이론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수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피아노 연주, 기본적 작곡법, 음악이론, 음악교육학, 교육심리학, 아동심리, 아동교육학 등에 대한 이론적 실기적 기초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대학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대학 음악과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대학의 (초등)음악담당 교수가 되기 위하여서는 음악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교수 임용에 일반적으로 박사학위가 기본 자격조건에 포함된다. 음악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루어진다. 음악대학의 전공이 음악교육과이든 작곡, 성악, 기악의 전공이든 무방하나, 음악대학 입시에서 실기시험이 거의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과정에 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여 교수 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용되기까지 대학에서 강사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용의 기회를 얻어 정해진 절차를 밟아 임용된다.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취업 시기가 늦은 직종 가운데 하나이다.

김용희 교수

김 용 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학 력】
- 상명여대부속중학교
- 서울예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 Columbia University 박사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학교 등 강사
- University of Hawaii 객원교수

【저서, 작품집, 음반】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가 우선적으로 하는 일은 예비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후 초등학교 음악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음악교육에 필요한 기초 개념 및 기능,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 및 이를 위한 다양한 학문적 기초에 관하여 강의하고 실습하고 토론한다. 수업에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며 이것들이 음악의 이론적 개념과 연결되어 후에 수준 높고 즐거운 초등음악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그러나 초등음악교육이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어린이들의 보편적 음악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다. 한 가지 분야를 깊게 아는 것보다는 수준 이상의 작곡 능력, 연주 능력, 이론적 기초 등이 골고루 필요하다. 응답자의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피아노를, 대학과 대학원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박사 과정에서 음악교육학을 공부하였다. 박사 과정에서는 음악교육 창의성, 음악교육평가, 교육과정일반원리, 교육심리학, 피아노 및 이론 교수법 등을 공부하였고, 또 피아노 실기 등 연주도 공부하였다. 또 아동심리와 아동교육학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적 기초도 튼튼해야 하며 무엇보다 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악의 전문적 기술이나 이론적 학문 혹은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음악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음악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중고교부터 해야 한다. 음악대학의 전공은 음악교육과일수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전공도 무방하다.

요구되는 자격증으로는 박사학위가 필요하다. 대학 진학 시 음악교육과로 진학할 수도 있고 다른 전공(작곡, 성악, 기악 등)도 무방하다.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등 다양한 음악교육방법에 관한 서적이나 비디오 등을 추천한다. 요즘에는 다문화음악교육이나 창의성교육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서적들도 추천한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초기 연봉은 4~5천만원 정도이지만, 박사 학위를 해야 하므로 처음 취직하는 연령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늦다. 거의 40세에 이르러서 첫 취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취업의 문도 적고 취직되기도 힘들다. 일단 취직된 다음에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 단지 연봉이 아니라 젊은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부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을 수 있지만, 연봉을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음악대학 교수들보다 일이 많고 그에 비해 연봉은 높지 않은 편이다. 방학 때에도 계절학기 수업이나 다양한 연수 등으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끊임없이 머리를 많이 써서 논문을 쓰거나 다양한 집필 등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즐긴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관련 분야로의 이직이라면 사설연구소나 강습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 수입면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나을 수도 있으며 하기에 따라서 만족도도 높을 수 있다. 또 관련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직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적성에 맞으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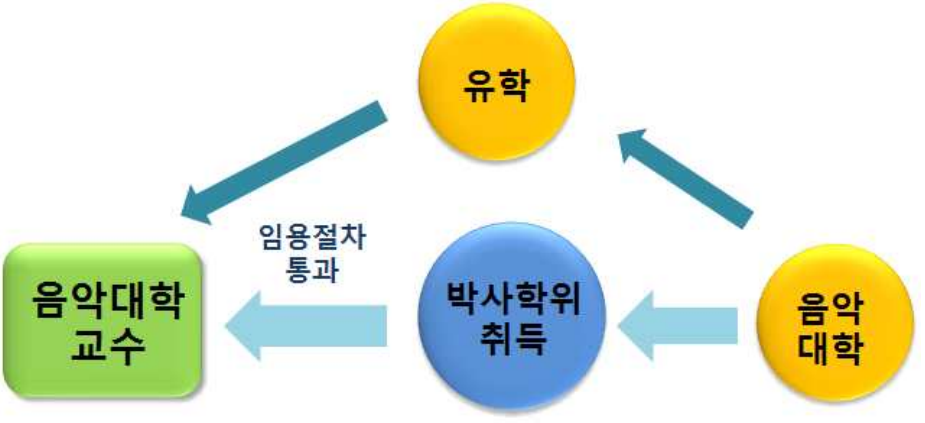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취업의 관문 자체가 좁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공부가 주는 기쁨과 보람을 즐겨야 한다.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또 어린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사회에 대하여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일을 즐겁게 하는 비결이다.

요즘의 보컬리스트는 노래뿐만 아니라 악기연주 및 작곡 능력까지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음악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5-3. 음악대학 교수



음악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음악대학에서 학생들 교육을 담당한다. 실기지도와 강의를 하며 필기 및 실기 시험과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평가한다. 또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실력 배양을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학과의 업무와 보직 등을 수행한다. 교육자로서 또한 교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음악대학에서 기악, 성악, 작곡, 이론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교육하여 전문음악가로 음악학자로 키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이를 위하여 각 전공에 맞는 교육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연주와 작곡 전공의 경우 실기 위주의 일대일 레슨이 주요 수업 방법이 되고, 이론 전공의 경우 강의와 세미나 등이 수업 방법이 된다.

음악대학 교수가 되기 위하여서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가 요구된다. 유학하여 학위과정을 밟는 경우도 많다.

예술가적 자질과 교육자적 자질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정태봉 교수

정 태 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학 력】
- 진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학사) 및 대학원(석사)
- 독일 Karlsruhe 국립음대(Konzertexamen-박사상응)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주요 경력】
- 한국음악협회 이사
- 미래악회 회장

【저서, 작품집, 음반】
- 지금까지 <교향시 "백두대간">(2002), <교향시 "한국">(2008), <교향시 "고구려">(2009), <관악합주를 위한 "경복궁">(2010), <현악합주를 위한 "한강">(2003), <국악관현악을 위한 "개천(開天)">(2000), <현악사중주를 위한 "니타나(尼陀那)">(1996), <목관오중주를 위한 "예언자">(1997), <가곡 "길">(1973), <가곡 "가을노트">(2001)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해 오고 있음
- 작품집 및 다수의 음반 포함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음악대학 교수(서울대학교 음악대학)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대학 교수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교육자로서 하는 일 그리고 음악가(또는 음악학자)로서 하는 일이 그것이다. 교육자로서 하는 일이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실기능력과 이론적인 바탕을 함양하여 한 사람의 음악가(또는 음악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음악가(또는 음악학자)로서 하는 일이란 자신의 전공분야(작곡, 연주, 음악학)에 관한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즉 작곡을 하는 교수는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음악회를 통하여, 연주를 하는 교수는 자신의 분야(성악, 기악, 지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주회를 통하여, 음악학을 하는 교수는 음악을 학문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연구한 논문 또는 비평을 발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활동을 펼친다.

작곡이나 연주를 하는 교수들이 예술가 즉 음악가로서의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음악학을 하는 교수들도 학문적 능력에 우선하여 음악에 관한 소양을 먼저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즉 작곡이나 연주와 관련된 음악적 소질을 가진 사람이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음악대학 교수란 한 사람의 예술가로 그치지 않는다. 교육자일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목표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두루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소질과 더불어 훌륭한 음악가를 길러낼 수 있는 자질을 아울러 지니고 있으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바로 음악대학 교수라는 뜻이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악기(성악의 경우에는 발성법)에 대한 전문적 수준의 기량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곡이나 음악학의 경우에도 악기(주로 피아노)에 대한 기초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음악의 기초이론(음악통론, 화성법, 대위법, 시창, 청음)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으므로 그것에 관한 공부도 필요하다. 작곡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단한 음악작품을 창작하는 능력도 아울러 배양하여야 한다.

특별히 요구되는 자격증은 없다. 그리고 음악의 경우, 전공이란 것이 처음부터 이미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전공이 준비되므로 전공선택이란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음악학의 경우 다른 전공을 하던 사람이 방향을 전환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추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열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등 자매예술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갖추는 한편 폭넓은 독서(고전을 중심으로)를 통하여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의 연봉은 경력 및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연봉이 다르고 또 학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직업선택 초기라 하더라도 대학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음악대학 교수들의 경우 30, 40대에 첫 임용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

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음악대학 교수들의 연봉이 같은 조건의 다른 분야 교수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연봉을,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정하는 제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교수라 하더라도 그 연봉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음악대학 교수는 교육자인 동시에 예술가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양 쪽에서 모두 성공적인 업적을 쌓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어느 한 쪽의 일에 몰두하고 싶은 욕구와 의지가 충만한데 다른 한 쪽의 일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니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할 어려움이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음악대학 교수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 음악과 관련된 분야로 이직할 수 있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예를 들자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교수가 예술가로서의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어떤 교향악단의 바이올리니스트 혹은 지휘자로 이직하는 일, 성악과 교수가 역시 같은 이유로 어떤 합창단의 단원 혹은 지휘자로 이직하는 일 등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그런 경우는 보지 못 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교향악단의 연주자나 지휘자, 합창단의 단원이나 지휘자가 음악대학 교수로

이직하는 경우는 무척 많이 본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자신에게 작곡가, 연주가, 음악학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강한 의지가 더불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일이 예술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야 한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음악교육기관에 진학해서 훌륭한 음악가 또는 음악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고 또 목표가 분명한 자가 한 사람의 음악가로 당당히 설 때, 음악대학 교수가 되는 길은 활짝 열리리라 믿는다. 일개 직업인으로서의 교수가 아니라 바람직한 음악대학 교수가 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기획 및 제작자

6-1. 공연기획자(공연, 축제, 대중음악)

대중음악콘서트 및 대중음악축제 등의 공연을 종합적으로 기획, 마케팅, 제작, 실제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공연과 관련된 모든 실무를 담당한다. 공연기획자는 공연 전체를 계획한다. 공연의 컨셉트와 마케팅 컨셉트 설정하고, 공연의 출연자 및 스태프를 섭외하고 구성하며, 예산과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금융회사나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동원하는 파이낸싱도 담당해야 한다. 스태프와의 협의를 통한 세부 기획을 거쳐 실제공연 준비하며 제작의 모든 단계와 실제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실무를 확인한다.

따라서 공연기획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연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할 뿐 아니라 풍부한 창의성 또한 필요하다. 공연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인원의 스태프와 함께 준비 과정부터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과 리더십, 언어구사력을 기본으로 음악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대한 안목, 치밀함 등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대학 학부과정에서 공연기획, 공연제작,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 공연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격증만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공연기획사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며 현장감을 익히고 경력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공연기획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문, 사회대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기기도 한다.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각종 단체의 공연기획자 양성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활동분야로는 콘서트 프로듀서 및 기획자, 콘서트 프로모터, 콘서트 에이전트, 음악축제기획자, 음악축제 프로그래머, 콘서트 연출가, 축제 연출가, 프로덕션 매니저, 무대감독, 홍보마케터, 극장 운영, 이벤트PD, 방송국 쇼PD, 패션쇼 연출가, 파티 플래너, 컨벤션 기획자 등이 있다.

자격증으로는 공연기획사 자격증이 있다.

홍성현 공연기획사 대표

홍 성 현
큐직(Kusic) 공연기획사 대표

【학 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학(학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큐직(Kusic) 공연기획사 대표

【주요 경력】
- 대관령국제음악제(GMMFS) 기획제작 담당
- 콘서트 제작 참여(백건우, 빈소년합창단, 이작펄만 등)
- 키즈 클래식 콘서트 기획제작 담당

【저서, 작품집, 음반】
키즈 클래식 콘서트 콘텐츠 제작
- “방구대장 모차르트” “이웃집 베토벤”, “발레왕 차이코프스키”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공연기획제작 (큐직 Kusic)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이라는 예술의 한 장르를 놓고, 어떤 작품을, 누구의 연주를 통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 관객 앞에 선보일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을 반복하는 일이 아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공연기획자'라 일컫는 이 직업에 대한 관심이 근래에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써 공연기획이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의 양적인 문제로부터 질적인 것으로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서비스 산업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적관련 산업들 가운데 하나인 공연기획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대학을 졸업한 저에게는 대학시절, 주변의 많은 음악가 친구들과 그들의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과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연주를 살펴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들과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직업 선택의 동기가 되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에도 음악가들과의 소통, 관객에 대한 관심의 끈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 요구되는 성격 및 소질: 원만한 대인관계, 계획성, 일의 추진력, 예술작품을 대하는 감성적인 측면과 기획과 구성에 대한 논리적인 측면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대한 섭렵이 필요합니다. 음악, 연극, 미술, 문학, 무용 등등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통해 각 장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과정이 학창시절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해외 아티스트와의 제작 및 업무의 진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국어구사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해서 관련 자격증의 취득이나, 실제적인 회화가 가능한 수준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공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예술대학 출신들의 공연기획 진출이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예술관련 대학의 전공을 살려서 공연기획 분야로의 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대학을 비롯하여, 예술경영, 문화관련 산업학과의 전공을 통해서 공연기획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연봉의 기준이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연기획 직종에 대한 임금은 다소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분명 어떤 분야 보다는 높은 자긍심과 보람이 있으며, 향후 임금에 대한 평가도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길러나간다면, 그만큼의 대우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아티스트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공연의 기획과 제작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습니다. 특히 감성적이고, 예민한 아티스트와의 업무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포용력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자질이 요구됩니다.

공연의 흥행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통한 계획과 준비의 과정을 거치지만, 모든 일에는 예측 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업무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직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이는 공연기획 직종에 대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업무의 프로세스가 상당 부분 공유되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채, 이직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회사와의 공유가 가능한 부분이니,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연장의 한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던 관객이었다면, 그 한 자리를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수 없이 고민하고, 찾아다니며, 마음 졸여하며, 무대 뒤 한켠에서 함께 공연을 지켜보고 있을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공연기획자'입니다. "누군가의 감동의 무대를 위한 관객과 무대의 동감의 과정을 공연기획자는 가장 먼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현주 공연기획자

조 현 주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기획운영팀장

【학 력】

- 광주 동명 여자 중학교
- 광주 살레시오 여자 고등학교
- 조선대학교 무역학과(학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콘텐츠학과(박사과정)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기획운영팀장

【주요 경력】

-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
- 극단민예 기획실장
- (주)디데이 마케팅 팀장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공연기획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정부예술의전당)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 선택 동기

대학에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떠났던 유럽배낭여행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유럽의 거리 공연과 미술관, 박물관 등 그들의 문화를 통해 한동안 '문화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구선생님의 말씀처럼 문화의 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것인지 가슴 깊이 느꼈고 <우리나라 문화에 힘을 싣는 나 자신이 되자!> 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서 공연기획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성격이나 소질

관객은 대부분 공연기획자를 통해 공연을 만나게 됩니다. 공연기획자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활용하며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만큼 공연을 즐기고 많은 경험들을 쌓아야 합니다. 또 공연은 혼자만의 예술이 아닌 협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친화력이 필요하구요. 공연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는 작문 실력과 말로 풀어내는 화술, 아이디어, 그리고 리서치 능력도 중요합니다. 또 공연은 국제적인 문화교류로서 역할도 하기 외국어 실력도 필요합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연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현장경험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뿐 아니라 문화예술기관이나 기획사 등에서 자원봉사나 인턴쉽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학과로는 예술과 경영을 접목시킨 예술경영학과가 있습니다. 예술경영학과에서는 공연기획 전시기획, 공연장 운영, 이벤트, 축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산업 기획, 제작, 유통, 마케팅의 다양한 형태로 전공이 세분화되고 있어 폭넓

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할 만한 서적으로 예술경영의 개념과 실무들을 정리한 입문서로서 <예술경영>(용호성 저, 2010) 과 공연장 운영과 공연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들을 정리한 <극장경영과 공연제작>(이승엽 저 2001)을 권장합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공연기획은 오랜 기간동안 공연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균적인 연봉을 이야기하기엔 소득수준이 그리 높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공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자신의 만족과 보람으로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문화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연차에 따라 공무원기준의 연봉을 받게 되고, 축적된 노하우로 공연기획을 한다면 천차만별의 소득수준과 발전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공연은 평일 20:00, 주말 15:00, 18:00 등으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퇴근한 시간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므로 평범한 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공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또 공연기획일은 서비스업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공연을 함께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뿐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인내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만큼 보람 있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공연기획자로서 공연을 기획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가 세분화된다면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기관의 수요보다 각 학과가 늘어나고 예술경영인들의 공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기획의 전문성은 자신의 열정과 노력에 비례합니다. 끝까지 꿈과 목표를 향한다면 공연기획자로서 역할과 영역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연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흐름과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 그리고 국내외의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 공연이 협업을 통한 작업인 만큼 사람들과의 친화력을 높이는 것, 저는 이처럼 책, 여행, 친화력 이 세 가지를 공연기획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은 우리가 꿈꾸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나은 공연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인재진 음악 축제 감독

인 재 진

음악 축제 감독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학 력】

- 서울 한양 중학교
- 배명 고등학교
- 고려 대학교(학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자라섬국제 재즈페스티벌 총감독
- 광주 월드뮤직페스티벌 총감독
- 상명대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주요 경력】

- 환경부 Me First 홍보대사
- 문화컨텐츠진흥원 문화앰배서더
- Jazz Ahead(Bremen,Germany) 심사위원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음악 축제 감독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축제 (예술)감독이라는 직업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 음악 축제(페스티벌)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예술 감독의 기본적인 역할은 그 음악 축제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짓는 일인데, 나의 경우는 학창 시절 밴드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가깝게 느낄 수 있었고, 밴드부 활동을 통하여 각종 공연과 음악 관련 행사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공연을 만들고 행정적인 일들과 필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음악 산업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많은 공연들을 제작하고 다양한 음악 관련 일들에 종사하게 되면서 꽤 많은 경험과 인맥을 구축할 수 있었고 후에 음악 축제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악 축제와 관련한 직업을 갖고자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성격이나 소질이라면 당연히 모든 음악을 좋아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문화, 예술에 대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은 자신의 경험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경험들을 모두 모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듯합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한 일도 아니며 특정 전공이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 다양한 직·간접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튼튼한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고전 중심의 폭넓은 독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이 만국 공통의 예술 장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

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어 공부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일입니다.

당연히 많은 공연과 음악을 접하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처음부터 축제 감독으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악 산업계에서 처음 일하게 될 때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멋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름 만족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수치를 제시할 순 없지만 보통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자신이 꽤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존감도 생기고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됨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보다는 적은 연봉 수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 근무자보다는 훨씬 큰 직업만족도를 나타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한사람의 기획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까지 꽤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는 기간들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음악이라는 장르가 워낙 쓰임새가 넓고 장르의 폭도 깊기 때문에 음악 유관 분야의 일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직도 자유롭고 변화가 많기도 합니다.

특히 독립이 용이한 분야이기도 하여 일정 시간의 훈련 기간을 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2. 직업선택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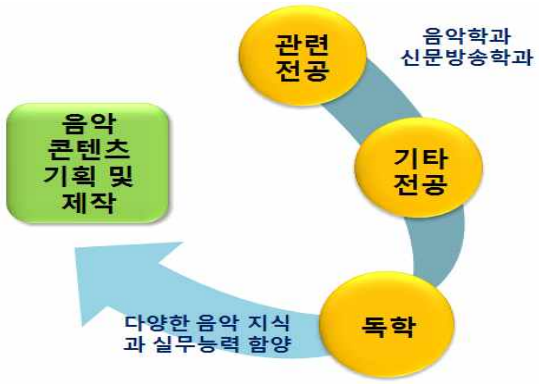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문화가 더욱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문화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음악은 모든 장르에 기본이 되는 분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어려운 길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좋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불과 20년 전에 그 누구도 한류라는 것을 상상치 못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향후 20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겠죠?

음악에 관심 있다면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하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길은 의외의 곳에 있기도 합니다.

6-2. 음악콘텐츠 기획 및 제작자



음악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음원, 음반의 기획과 제작부터 공연되거나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방송되는 음악관련 프로그램이나 작품 등의 기획, 제작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음악콘텐츠는 음반 기획사, 방송사, 외주 제작사 등에서 기획 및 제작된다. 음반 기획사에서는 음원 또는 음반을 기획 제작하여 홍보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며 여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득도 자체적으로 분배한다. 방송사에서는 TV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음악담당 프로듀서들과 방송작가들이 기획하여 콘텐츠를 제작한다. 홍보와 마케팅은 방송사의 홍보, 마케팅 담당 부서가 수행하며,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은 방송사가 얻게 된다. 외주 제작사들도 자체 기획하고 제작하지만, 콘텐츠들이 공연되거나 방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도 외주 제작사보다는 방송사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음악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은 신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이다. 또한 이 아이디어를 하나의 완성도 있는 콘텐츠로 구현해내는 세부적인 실무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정보력과 함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음악적 지식과 상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추진력과 적극성이 필요하다.

대학 학부과정에 이와 관련된 학과는 음악학, 신문방송학, 인문학 관련 전공 등이 있겠으나 직접적 관련 학과로 보기는 어렵다.

콘텐츠진흥원 또는 방송사부설학원 등을 통해서도 교육받을 수 있다.

이제권 음악콘텐츠기획자

이 제 권

제작사 대표 (예인문화)

【학 력】

- 한성중학교
- 양정고등학교
- 서울대학교(학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예인문화 대표

【주요 경력】

- 1986년. MBC입사
- 1991년. SBS이직
- 2009년. SBS프로덕션 제작 국장 퇴직
- 2009~2010 (주) 리얼스코프 대표이사
- 2011년 예인문화 대표이사
- 1996년 한국방송대상 우수작품상
- 2004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제작사 대표 (예인문화)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MBC-FM 음악전문 PD로 입사 후 5년간 FM 음악방송을 제작했고 SBS 개국 시점에 TV 예능제작 PD로 쇼,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Music Festival, 악극 '번지 없는 주막', 어린이 뮤지컬 등 공연 기획을 했습니다. 현재는 쇼,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납품하는 외주 제작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했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발상과 남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청자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를 늘 고민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정보력과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결국 평소에 많은 프로그램을 보며,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을 토대로 자기 것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PD란 직업은 중, 고등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습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본인의 성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취향으로 비디오카메라나 모바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자기만의 영상 언어를 개발하고 표현해 보는 방법과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작업을 즐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대학과정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며 콘텐츠 진흥원(COKA)과 방송사 부설 학원 등을 통해서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은 너무도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보편적 지식과 상식을 토대로 전문 영역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이 중요하고, 핵심을 포착해 낼 수 있는 순발력과 통찰력이 중요한 자질입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이 직종만큼 소득차가 많은 분야도 없을 것입니다. 지상파(KBS, MBC, SBS) 정규 직원의 초임과 외주 프로덕션 정규직원의 초임은 2~3배의 차이가 납니다.

지상파 방송 고참 차장급(45세 정도)의 연봉이 1억대에 이르지만 군소 제작사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연봉을 받으며, 그것마저도 회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최근 종합편성채널 4개가 추가됨으로써 수요는 급증하였으나 제한된 광고 물량을 분배하는 구조라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납품하는 형태의 산업은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예인 출연료가 급등하고 킬러 콘텐츠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일반적 제작 종사자들에게는 3D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K-pop 등 한류시장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미래 시장 전망은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둘째로 스타연예인과 능력 있는 PD의 개런티가 너무 비싸다.

셋째로 제작된 콘텐츠의 권리를 방송사가 행사하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성이 극히 제한된다.

넷째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

다섯째로 방송국 편성을 획득하기가 어렵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PD직업의 호환성은 일반 사회에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방송관련 학과의 교수, 방송통신위원회나 전파진흥원 등의 방송관련 단체 또는 외주 제작사 운영, 프리랜서 PD 정도로 이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PD라는 직업은 전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 예컨대 대중을 만족시킬 때 부여되는 반사 이익이 명예, 사회적 안정성, 자기만족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극소수가 향유하는 내용이고 대부분은 노동집약적이고 저 임금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분야가 현실보다는 이상적으로 이해되는 면이 많아 좀 더 냉정한 직업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드라마 PD, 예능 PD, 다큐멘터리 PD가 몇 명이 될까요? 이 직업은 통념적 사고 차원이 아닌 매니아적 사고 영역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이나 성향을 객관적으로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음악 관련된 방송영역은 드라마 OST, TV 가요 프로그램, 음악효과, 라디오 FM방송 등이 있으나 대부분 대중음악 장르 중심이고 클래식 장르는 극히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클래식 전공자들이 방송국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히 요구 되는 역할이나 기능을 가지고 일할 기회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드라마 음악제작, 음악효과, 음악해설 또는 평론 등 전문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방송과 관계를 갖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PD를 하길 원한다면 전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픈된 영역에서 본인이 무엇을 하길 원하고,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입니다.

6-3. 방송 기획 및 제작자

방송사 프로듀서와 방송작가들이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다.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은 고정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송 때마다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듯 기획 제작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제작 과정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의 본래의 제작 의도에 맞추어 프로듀서와 방송작가들은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갖고 방송 컨셉트를 잡게 된다. 방송 컨셉트에 따라 필요한 출연자 또는 제작을 도와줄 전문가를 섭외하고 방송 대본을 작성한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수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본이 나오고, 최종 대본에 따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프로듀서는 프로그램의 책임자이자 리더이므로 제작의 총 책임을 지고 방송작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제작을 지휘한다. 방송작가는 출연자 섭외, 전문가 섭외, 장소 섭외, 정보 수집, 인터뷰, 모니터, 대본 작성, 출연자의 방송준비 조력, 전화 연락 등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다. 때에 따라 프로듀서와 방송작가의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만큼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함에 있어서 둘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얼마나 서로 협력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결정된다.

방송사 프로듀서는 방송사 공채나 특채를 통하여 입사한다. 특채는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자의 경우 가능하다. 방송작가는 방송작가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밟거나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이나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는 중 두각을 나타내어 발탁되기도 하며 방송사가 주최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데뷔할 수도 있다.

하지숙 라디오 구성작가

하 지 숙

라디오 구성작가, 음악 칼럼니스트

【학 력】

- 예원학교
- 서울예술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학사(교직 이수), 석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KBS 클래식 FM KBS음악실 구성작가
- 경원대 출강,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

【주요 경력】

- 클래식 음악 교육 서적 출간에 저자로 참여
- 순천대, 대진대, 경원대 등에서 음악 강의
- 온곡중학교에서 방송 작가반 초청 강사
- KBS 라디오 클래식 프로그램 구성 및 공연 기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기금심의 및 현장평가위원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라디오 구성 작가(KBS 클래식 FM), 음악 칼럼니스트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클래식 FM (주파수 93.1)은 국내 유일의 클래식, 순수음악 전문 채널이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2000년부터 <KBS음악실>이라는 프로그램의 구성 작가로 일을 시작했는데, 일반인들에게 다소 거리감이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이해하기 쉽게 흥미로운 내용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클래식 인구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라디오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매력을 느꼈다. 덕분에 올해로 13년째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 집필하고 있다.

<KBS음악실>이라는 프로그램은 실력 있는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한국 클래식 연주자와 작곡가의 활동을 장려하는 데 또 하나의 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연을 관람하면서 좋은 실력을 갖춘 연주자들을 섭외해 인터뷰나 출연을 하게 했고, 그 결과 많은 연주자들의 데뷔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 이제 막 창작된 작곡가들의 신작이나 최근에 있었던 주요 콩쿠르에 입상한 수상자들의 연주를 소개함으로써 한국 음악계의 동향을 청취자들에게 발 빠르게 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중, 고등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고, 대학에서 음악 이론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 방송 작가로 일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겪은 연주와 공연에 관한 실제적인 경험이 음악가들을 인터뷰하거나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대학시절 읽었던 음악사와 음악 이론 관련 서적들은 하나의 작품과 작곡가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경험은 음악 칼럼니스트로서 공연평을 하거나 음악작가로서 인터뷰할 음악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직접

수많은 공연을 관람하며 체득한 감수성과 음악 자체에 대한 경험이다. 또 문화, 예술 관련 방송에 꾸준히 호기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할지에 대한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음악 관련 직업을 갖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음악사적인 이해라고 생각한다. 음악사책을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배경 지식들을 넓혀나가다 보면 어떤 분야와도 맞닿는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라디오 구성 작가의 경우,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시간과 분량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이다. 초기에는 좋은 급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때는 전체 프로그램을 집필하기 보다는 한 코너나 요일별로 보조 집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소위 메인 작가로서 집필을 하게 되는 5-6년차가 되면 200-250만원 안팎의 구성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방송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방송사의 요구 조건도 각각 다르다. KBS 클래식 FM에서는 음악 작가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해 출퇴근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겸직 활동이 가능하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드라마로 이름이 나거나 예능 프로그램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몇몇 스타 작가를 제외하고, 방송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작가군들은 최소한의 임기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오직 실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 작가로서 입지를 굳혀가다 보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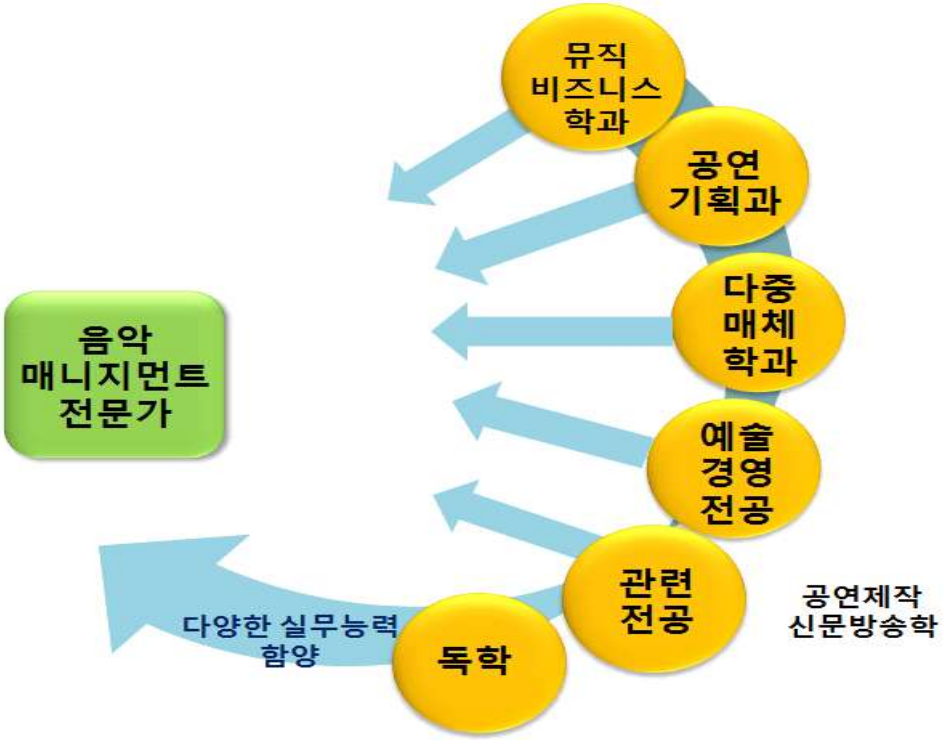
방송 작가만큼 관련 분야로의 이직이 자유롭고 활발한 직업은 드물 것이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몇 년 이상 집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타 방송사로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야, 심지어는 정치계의 홍보나 기획을 맡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에게 음악 방송 작가로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음악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방송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이러한 희망을 갖는 일이 많다. 막연한 동경만으로는 방송이라는 철저한 경쟁세계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 방송인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연출하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 것인지, 작가로서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인지, 직접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 진행자가 되고 싶은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해당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부지런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4. 음악 매니지먼트



음악 산업에 있어서의 음악은, 예술로서만이 아닌 제작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아티스트의 창조적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예술적 상품인 '음악'의 제작, 유통, 판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가 음악 매니지먼트이다.

음악 매니지먼트는 음반기획, 공연기획, 오케스트라매니지먼트, 음원기획, 음악방송프로듀서, 음악감독, 뮤직프로덕션, 음악학원 경영, 악기 관련회사 경영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음악 매니지먼트 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소비자 요구와 관련업체들의 경쟁적 실험과 도전을 통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음악

산업의 디지털화와 각종 전자기기의 혁신적 발전, 인터넷, SNS 등의 통신의 진보 및 다양화로 또 한 번의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음악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국내 산업의 트렌드와 해외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발 빠른 분석과 대응은 수익 창출의 관건이 된다. 시장의 변화와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 경영전략, 제품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 전략에 맞추어 제작, 홍보, 유통, 홍보한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뮤직비즈니스 관련 학과, 공연기획 관련 학과, 음악학과, 예술경영 관련 학과를 전공할 수도 있다.

음악 매니지먼트 업체의 공채 또는 특채를 통하여 입사할 수 있다. 입사 후 경험과 실력을 쌓은 뒤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

비즈니스 사업이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 작업이 많기 때문에 사회성, 인내심, 설득력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창의력, 모험심, 적극성, 융통성, 정보력 및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람에게 유리한 직종이다.

박용호 프로듀서

박 용 호

【학 력】
- 문태중학교
- 홍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학사, 석사, 박사 구분)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주)뮤지컬해븐 대표/프로듀서

【주요 경력】
- 삼성영상사업단. 삼성네트웍스(구 유니텔)
- 신시컴퍼니
- SJ엔터테인먼트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대표/프로듀서 (뮤지컬해븐)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과 연극을 중심으로 작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공연을 올리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직업입니다. 원래 대학에서 순수음악(성악)을 전공했지만 연극뮤지컬업

계에 종사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막연히 뮤직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었는데 96년 당시 삼성영상사업단의 공연사업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연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 직업은 무엇보다도 호기심과 원만한 대인관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 집중력과 유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직업은 흥행사업입니다. 즉, 성취감이 대단한 직업인 반면에 금전적인 보상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모집 관리 정산 시 굉장한 스트레스를 각오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1)작품 선정 및 개발, 2)기획 및 마케팅 3)공연오프닝 후 메니지먼트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공과 무관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대인관계에서 내성적이거나 방어적인 성격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끊임없는 설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 책과 신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고전에서 시사까지 매우 폭넓은 지적호기심을 가질 만한 모든 것입니다. 또한 간접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지적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제작자가 아니고 회사원으로 입사했을 경우, 기대연봉은 높겠지만 실제 연봉은 1200만원~150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본인이 실장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면 300

선(월)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니고는 그 이상으로 소득이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투자금의 모집입니다. 작품제작 초기단계에서부터 관심을 갖는 투자자를 찾는 것은 한국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2. 다음으로 배우 캐스팅입니다. 쏠림현상이 심한 한국에서 공연의 양적성장은 폭발적인 반면에 인프라/스텝/배우는 태부족입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이직은 자유로운 반면에,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맨 밑바닥에서부터 일할 각오로 현장실습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연은 탁상공론이 통하지 않는 직업입니다. 본인을 믿고 생각을 즉각 실천하십시오.

문화산업 전문가

7-1. 악기제작자

악기제작자는 현악기, 건반 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의 각종 악기를 고객의 주문에 맞춰 또는 소속악기제작사의 주문에 맞춰 제작하는 일을 한다. 또한 제작된 악기의 완성도를 검사하거나 조율을 하기도 한다.

악기 제작 과정에 있어서 소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은 필수적이며, 음악적으로 뛰어난 감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작 과정에서 공구나 기계들을 사용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함께 다루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전문 악기제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악기제작자에게 도제식 훈련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악기제작 관련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에 유학하여 유명악기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며 기술을 배워오거나 학교에 들어가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 나라에서 악기제작자에게 주는 공인자격(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몇몇 대학의 악기 제작과에서 현악기, 관악기 등의 제작을 전공할 수 있다.

전공 후 대규모 악기제작회사 또는 소규모 악기사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경력과 실력을 쌓은 후 창업할 수도 있다.

악기의 제작에는 기술력과 동시에 창의력과 모험정신, 그리고 예술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보다 진보한 기술력을 얻을 수 있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예술성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 분야(특히 물리학과 음향학)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상식 그리고 관심이 요구되며 공구나 기계를 자유로이 다룰 수 있는 능력, 인내력, 그리고 음악성과 예술성이 필요한 직종이다.

홍성훈 악기제작자

홍 성 훈
오르겔(파이프오르간) 제작

【학 력】
오르겔바우마이스터학교/독일, 루드빅스부르크소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홍성훈오르겔바우대표

【주요 경력】
- 1986. 1 도독& 오르겔바우도제과정입문
- 1997. 5 오르겔마이스터 학위 취득/ 클라이스 가 문하생
- 1998. 1 홍성훈오르겔바우

【저서, 작품집, 음반】
성공회대성당의 요하네스카펠레에 세워진 Op.1외 14개의 오르겔작품 제작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파이프오르간 제작 (홍성훈오르겔바우)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르겔바우(파이프오르간 건축)란 교회, 성당, 콘서트 홀, 아울라 등에 세워지

는 가장 커다란 악기인 오르겔(파이프오르간) 제작을 뜻한다. 오르겔은 그 크기나 지어지는 과정이 건축과 비슷하여 건축행위로 보고 있다. 오르겔 제작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작업 중 하나이다.

여기에는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력이 요구되는데, 오르간의 주종을 이루는 파이프주물과 설계, 디자인, 음향, 기계 메카니즘, 전자장치까지와 목공 등이 포함된다.

- 1980년대의 나는 음악을 좋아하긴 하였지만 음악전공을 할만큼 달란트가 있는 건 아닌 듯했고,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였지만 공학쪽으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막연하나마 예술적이면서도 공학적인 동시에 음악과 매우 밀접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독일에 가게 되면서 오르겔바우라는 세계를 알게 되었고, 내게 적합한 직업이라는 생각에 입문하게 되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오르겔바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 총동원된다. 즉 순수회화, 조형, 실내 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건축, 디지털컴퓨터디자인, 건축학, 구조학, 컴퓨터그래픽, 목조형가구학, 금속조형, 음악분야, 기계 분야, 전기분야, 철가공, 전자분야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기술력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오르겔바우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 기능을 갖고 있다면, 약 1년 정도의 인턴활

동을 통해 오르겔바우를 경험한 후 실질적 제작가로서의 길을 가게 된다. 입문 초기에는 충분한 소득을 얻기 어려우나 경력을 쌓을수록 소득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기술집약적 제작이기에 인턴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기간에 오르겔바우의 특성과 기능적 요소를 알아야 하며, 직접 프로젝트의 일부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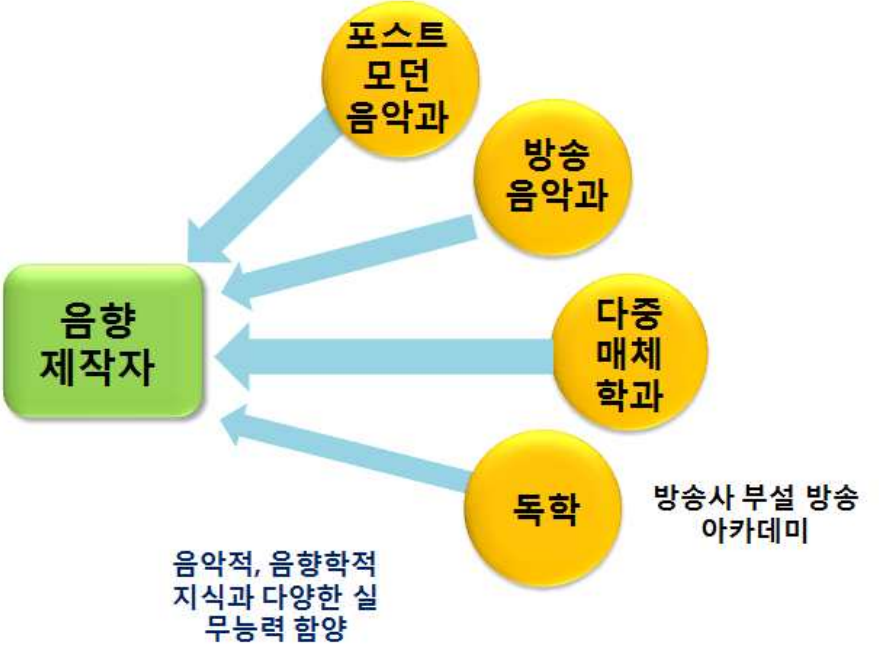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전시기획설치, 산업디자인, 설계, 인테리어 등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7-2. 음향제작자/레코딩 엔지니어



콘서트 홀 등의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음향사항을 총괄하거나 방송국이나 녹음 스튜디오 등에서 음반에 들어갈 다양한 음원들을 조절하여 하나의 음악 및 음반으로 완성시키는 음반 디렉팅, 녹음, 믹싱, 편집 및 마스터링 등 레코딩 엔지니어링을 담당한다. 어쿠스틱 사운드에 대한 방향결정 및 보컬의 음색에 맞는 음원결정 및 진행시키는 작업, 그리고 MR 및 사운드 이펙트 등 음반녹음의 부수적 요소들을 지시하고 결정한다.

공연과 녹음에 있어서의 음향은 연주의 질을 거의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연주자의 연주를 최적의 상태로 감상자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레코딩 엔지니어가 해야 할 일이다. 연주자의 컨디션에 맞게, 또한 연주가 공연장이나 녹음스튜디오의 공간적, 물리적 상황에 맞게 음향상태를 점검하고 조절하며 조

정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음악적 감각, 음향학적 지식, 공간 내 소리 지각력, 전자기기에 대한 이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음악을 비롯한 많은 소리들을 듣는 훈련과, 다양한 연주홀에서의 공연을 감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믹싱 작업 및 콘솔 등의 음향기기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익히는 전문 기술 숙련 기간이 필요하며, 특히 미세한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필요 숙련 기간이 긴 편이다. 음반 엔지니어로 입직하여 5년 내외의 숙련 기간을 거치면 레코딩 및 믹싱엔지니어가 될 수 있으며, 방송 및 프로덕션의 음향기술자나 음반프로듀서, 방송음향엔지니어, 영화사운드엔지니어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최근 2·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의 포스트모던음악과, 방송음악과, 다중매체학과 등에서 음향기술자를 배출하고 있다. 음반녹음기술자의 경우, 각종 음향기기에 대한 전문적 기술 뿐 아니라, 작·편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미리 습득하는 과정이 직무 능력 수행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무대음향에 대하여서는 문화부산하 무대기술자격검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다. 방송사 부설 방송아카데미의 방송 기술 분야에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공채나 특채를 통하여 방송국, 영화 편집 프로덕션 등에 채용될 수 있다.

방송국, 영화사, 레코딩 전문 스튜디오, 공연 기획 및 행사장, 콘서트홀 등에서 주로 일한다. 창의력, 책임감, 융통성, 적극성이 필요한 직종이다.

김호균 레코딩엔지니어

김 호 균

클래식 콘서트 레코딩 엔지니어

【학 력】

- 동양중학교
- 서울 동성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학사, 석사)
- 미국 남가주 대학교 Certificate(School of Music, Concert Recording Arts과)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올림푸스한국 무대운영감독, 강원대학교 방송제작과 강사

【주요 경력】

- 서울 예술의전당 음향담당 차장(1987. 3~2010. 8)
- 이화여자대학교 실용음악대학원 강사(2001. 3~2010. 12)
- 한양대학교 인문대학 연극영화과 강사(1999. 3~1999. 12)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강사(1995. 3~1995. 12)
- 한강예술섬 자문위원(2006. 1~2008. 1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위원(2005. 1~2010. 12)

【저서, 작품집, 음반】

- 학위논문- 음악당 음향평가(예술의전당 음악당을 대상으로)
- 음악당 음향 물리측정값과 주관평가에 대한 논문(음향학회)
- 연주자의 음향 평가에 대하여(한일 합동 음향학회)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무대운영감독 (올림푸스한국, 올림푸스홀), 클래식 콘서트 레코딩 엔지니어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술의전당 음향차장 : 음악당에서 이루어지는 음향사항 총괄-건축음향분야, 전기음향분야(콘서트 녹음, 음악회 확성, 스탭간 컴뮤니케이션, 녹음물의 편집과 마스터링, 음악당의 건축음향 조건 파악과 리노베이션 등)
2. 올림푸스홀 무대운영감독 : 현재 소극장에서 공연(음악회, 행사)진행과 녹음, 편집과 마스터링 일을 하고 있음.
   - 직업선택동기 : 고등학교 시절 학내외 음악활동(중창, 합창, 지휘)을 하는 등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 입학 후 전공인 건축과 음악에 대한 관심을 접목시키는 가운데, 공연장 음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내에선 그때까지 거의 미개척 분야였던 건축음향 분야를 별도의 수학과정을 거치고 실무 활동을 하게 되었다.
     클래식 콘서트의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에 대해서도 특별히 수학할 곳이 없어 미국의 음악대학 레코딩아츠학과에서 수학하였다.
   - 건축음향과 전기음향은 공연장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임에도 연구와 실무를 하는 사람이 없고, 실제 음악인과 관객의 중간 매체 중요성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 최상의 연주와 최고의 감상이 가능하도록 연주자와 감상자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주자의 연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연주자의 음악외적인 음향부분을 조언하고, 감상자가 최고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도록 객석의 음향상태 를 점검하고 수정한다.
   - 요구되는 소질 : 음악적 감성, 전자기기 사용 이해 능력, 공간 내 소리의 지각 능력이 필요하다. 전자와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무대 스텝,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에서 음악 기초적인 부분과 감성을 향상시키는 활동, 악기의 연주와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음악이론과 연주, 연주자의 특성, 전자기학과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환경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한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공연스텝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으며, 무대음향을 위해서는 문화부 산하 무대기술자격검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공연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업무를 수행하고 경력이 쌓이면 2급,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콘서트 레코딩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악기 연주가 가능하고, 전자음향기기를 다루기 위한 전자기기 개론의 수학과 믹싱, 마스터링, 디렉팅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평소 클래식 음반 감상과 평가, 실제 연주홀에서의 연주 또는 감상을 하는 생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1. 공연장 스텝의 경우 공연장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 1600만원부터 시작되고, 공공 공연장 공채의 경우 2,200만원 가량부터 시작됨.
2. 콘서트 레코딩 엔지니어의 경우 업무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 1600만원 정도부터 시작됨. 30대, 40대가 되면 소속되어 있는 직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연장에서는 연 3,3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며, 40대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임.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무대 공연의 특성과 녹음 작업의 특성은 저녁시간과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시간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2. 공연물과 녹음은 많은 책임감과 시간적 한계가 뒤따르는 일이다. 작업이 저녁시간부터 야간에 이루어지므로 신체적으로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맑게 유지해야 한다. 유럽과 미주지역의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공연장 스태프나 레코딩 엔지니어에 대한 예우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인식이 낮아 직업에 대한 대우가 약한 편이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공연장 스태프와 레코딩 엔지니어의 경우 자신의 성과에 따라 다소 이직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에 대한 색깔과 특성을 갖게 되므로 취업이 되어 타 직종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편이며, 동직종 내에서의 이직은 수월한 편이다.

공연장 스태프와 레코딩 엔지니어로 일정한 경력이 쌓이면 방송사 방송기술 분야, 피디, 음반제작사, 공연 메니지먼트사, 교육기관 등의 진출이 가능하며, 기업의 문화 마케팅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가와 출연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려운 부분

을 나의 능력과 기술, 감성으로 해결해주고, 그들이 풀기 어려운 부분을 나의 기술과 감성으로 해결해 줄 때 두 사람에 의한 두 배의 성과가 아니라, 4배 열배 이상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고, 내가 최고의 엔지니어이고, 예술가라고 생각하면 가장 명예롭고, 또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이다.

7-3. 음악출판 전문가

음악출판 전문가는 독자가 원하는 음악관련 출판물과 출판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출판물 기획 및 제작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한다. 독자가 원하는 출판물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시장성 및 세부적인 영업 전략까지 검토한다. 또한 작가를 섭외하고 집필 원고를 검토하며, 출간 이후에는 홍보 및 판매 전략을 세워 마케팅에 들어간다.

음악관련 출판은 음악 전문가와 비전문가, 클래식음악 전공자, 실용(대중)음악 전공자, 클래식 음악 애호가, 실용(대중)음악 애호가 등 다양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음악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광범위한 지식과 상식이 요구된다. 음악계의 동향과 타 예술계, 문화계 전반에 관한 동향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출판 시장의 흐름과 독자의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순발력 있게 반응해야 하며, 출판에 대한 실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종이 중심의 매체에서 PC, 휴대폰, PDA 등 디지털 매체로 옮겨가면서 출판콘텐츠를 담은 매체들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향에 맞춘 발 빠른 대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출판물의 기획, 제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므로 리더십과 설득력, 치밀함, 책임감, 추진력 등이 요구된다.

음악출판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음악과 관련된 많은 직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예술 분야와 문화에 대한 독서와 글쓰기를 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외국 책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판권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능숙한 외국어회화능력이 필수적이다.

대학 학부과정에서는 음악이론 또는 예술경영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출판관련 학과로는 신문출판학과, 미디어출판학과, 미디어창작학과, 출판디자인과 등이 있다. 출판물기획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학력도 없고 국가공인자격증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졸학력이 필요하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공채나 특채를 통해 출판사, 출판기획전문회사, 잡지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체 홍보실이나 광고대행사, 방송국 등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초봉 수준은 타분야에 비해 낮으나 정년이 매우 늦고 경력을 쌓을수록 연봉은 계속 상승한다.

김재선 출판사 대표

김 재 선
예술출판사 대표

【학 력】
- 나주중학교
- 나주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 학사
- 필리핀 블라칸 주립대학 대학원 졸업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1991년-현재 예술출판사 대표

【주요 경력】
- 1999-현재 강서교회 성가대 지휘, 및 Worship Leader
- 2009-현재 백제예술대학 음악과 겸임교수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출판인 (예술출판사 대표)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악 전문 출판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출판사 대표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특히 교회에서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장래 음악을 통한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 음악 공부를 계속하여 서울음대 이론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음악대학 도서관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출판된 많은 원서들을 보며 국내에 음악도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소질이 글을 쓰는 쪽보다는 책을 만드는 쪽에 있음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출판 현장에 뛰어들어 기초부터 배우면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출판 기획, 저자 섭외, 컴퓨터로 원고 편집, 교정 · 교열, 표지 디자인부터 인쇄 과정을 거쳐 제본까지, 그리고 서점 배본 및 유통 등의 전 과정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알게 되었으며 현재는 350여 종을 출판한 음악 전문 출판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며 요구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중에 우선적인 것은 좋은 책 출판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며, 차분하고 섬세한 성격이 필요합니다. 물론 출판도 사업이기에 사업가적인 기질이 필요합니다만 전문분야의 출판은 장인정신이 더욱 요구되는 편입니다. 인생은 긴 경주이기에 멀리 보고 좋은 책 만들기를 하다보면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악 출판은 그 분야가 다양한 편입니다. 악보를 중심으로 하는 악보 출판, 대중을 대상으로 음악 애호가들에게 읽히는 단행본, 대학에서 전공자들에게 가르치는 대학 교재,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음악 관련 서적 등입니다.

이 모든 책들은 음악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음악을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악기를 배우며 악기 반주에 노래를 불러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음악 경험을 통하여 음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와

논술 연습하기를 권합니다. 대학 진학은 음악 이론 전공이나 대학원 과정의 예술경영 그리고 유학의 경우 뮤직비지니스 전공을 권하고 싶습니다. 편집 프로그램과 악보 프로그램 등은 기본으로 마스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영화는 '아마데우스'와 '스쿨락' 두 편이며 책은 조금 딱딱한 전문서이지만 <뮤직비지니스>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시절 파주 출판단지 견학도 권하고 싶습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출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출판사에 입사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 쪽의 초봉 수준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대략 2,000만 원 정도이며 일을 충분히 배워 독립할 정도의 자신이 생긴다면 창업을 권유합니다. 30, 40대에 꾸준히 출판을 하고 있다면 연봉 1억 정도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설분야는 베스트 작가의 작품을 통하여 밀리언셀러가 나오기도 하지만 전문 서적 분야는 다품종 소량판매이기에 좋은 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합니다.

이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년은 상당히 긴 편입니다. 따라서 소득은 계속 상승한다고 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이 음악 출판에 대한 역사가 긴 편이며 현재 출판 시장의 규모나 문화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특히 클래식이나 실용음악 모두 서구에서 발달한 음악이기에 외국 책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를 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저작권 관련 판권을 사는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의 계약 조건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부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또한 음악 전공을 했기에 경영에 대한 사업가적 기질과 행정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별도 교육을 받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음악 출판을 20여 년 해 오면서 저자들 역시 음악가이기에 음악회 기획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보나 악기 교재는 저자분이 뮤지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뮤지션의 활발한 음악 활동은 책 홍보에 큰 도움이 되며 반대로 책 시장 쪽에서의 활발한 홍보 활동은 뮤지션의 인지도를 높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기에 음악기획사로의 이직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반 기획 분야입니다. 북 & CD 형식으로 출판되는 형태가 많다보니 자연적으로 음반 제작 과정과 유통 등을 겸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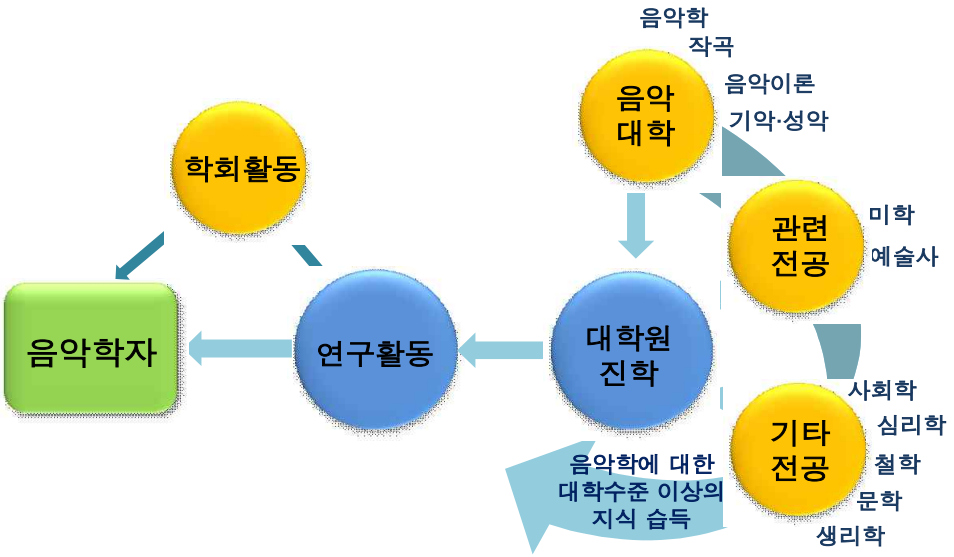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약 중학교 시절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 악기 2개 정도는 준 전공자 수준만큼 하기
- 다양한 장르의 음악 듣기, 공연 보기, 영화 보기
- 2개 이상의 외국어는 모국어 수준으로 하기
-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감상문 쓰기
- 학교 신문 기자나 편집을 통한 학보 만들기 참여
- 대학에서 경역학과와 예술철학 및 신문방송학 분야 수업듣기

연구 및 비평가



음악학자는 음악예술과 음악문화 등 음악에 관한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음악학자의 연구 범위는 무척 방대하다. 작곡기법과 작품의 형성 원리를 연구하는 좁은 의미의 음악이론부터,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음악사, 음악의 본질과 가치·의미 등을 연구하는 음악미학, 소리의 현상을 연구하는 음향학, 소리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음악심리학, 여러 민족의 음악을 연구하는 종족음악학, 사회구조와 음악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음악사회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인문학적 방법, 자연과학적 방법, 사회과학적 방법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이 사용된다. 음악학 자체는 경영학이나 교육학처럼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학문이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축적된 기초연구는 음악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기존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창작, 연주, 감상, 교육, 치료 등 음악에 관련된 모든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학자는 음악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 자체나 음악과 주변세계의 상호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 · 통찰하는 능력과 이것을 글로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적인 연구 분야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악학에는 철학 ·역사학 ·물리학 ·생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이 접목되기 때문에 음악이론 외에도 심도 있는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관련 소양이 필수적이다. 해외 논문과 자료에 손쉽게 접근하고 학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능력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음악에 관해 호기심이 많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으며, 답을 찾기 위해 끈기 있게 공부하는 것이 체질에 맞아야 한다.

음악학자를 지망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음악학이나 음악 실기 관련 전공, 또는 일반 학과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더 세분된 음악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입시에서는 악기 연주, 화성법 또는 국악기초이론, 청음 등의 시험이 공통적이며 논술,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다.

음악학자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 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음악학회나 학회지의 심사를 거쳐 꾸준히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강의, 평론, 번역, 저술 등 프리랜서 작업을 하기도 한다. 대학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의경력과 공인된 논문 실적, 저술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경찬 음악학자

민 경 찬
음악학자

【학 력】
- 울산학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 동경예술대학교 대학원 (석사)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 고려대학교 강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연구원

【저 서】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한국창가의 색인과 해제>, <동아시아와 서양 음악의 수용>, <우리양악 100년>, <한국독립운동역사>(문화예술운동) 등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음악학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음악학과 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학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음악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음악사에서부터 음악의 본질과 가치 · 의미 등을 연구하는 음악미학, 소리의 현상을 연구하는 음향학, 소리라는 자극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음악심리학, 여러 민족의 음악을 연구하는 종족음악학, 특정한 자연환경이나 풍토와 음악특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음악환경학, 사회구조와 음악구조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음악사회학 그리고 악기학, 음악이론, 음악문헌학, 음악교육학, 음반학, 음악기호학, 음악현상학, 음악도상학, 음악생리학, 음악수사학, 음악윤리학, 음악치료학, 음악인류학, 음악해석학 등 매우 다양합니다.

직업 선택의 가장 큰 동기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욱 더 깊이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음악학자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력, 어학력,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음악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적 재능보다는 열정과 호기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대학에서 음악학을 전공하는 경우, 둘째 대학에서 실기(기악, 작곡, 성악 등)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전공하는 경우, 셋째 대학에서 일반학과를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음악학을 전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음악학 관련 대학 진학 시 대개, 악기 실기, 화성법, 청음 시험을 공통으로 보고 대학에 따라 작문,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통음악 분야의 경우에는 국악 기초이론 및 국악기 실기 시험 등을 봅니다.

음악학을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개 영어, 음악학개론, 음악사개론, 작문 시험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분석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도서로는 <음악학이란 무엇인가>, <음악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음악학의 활동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소득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음악평론이나 번역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연 소득은 1,000만 원이 채 안됩니다. 대학 시간 강사 역시 연 소득 1,000만 원이 안됩니다.

대학교수의 경우 초봉은 3,000-4,0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매년 5%정도 소득의 발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조만간 소득을 현실화시킬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중·고등학생이 시간강사로 활동할 무렵에는 소득이 중소기업 이상이 될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음악학은 개척분야라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악'이라 하면 실기만을 생각하는 실기 중심의 사고도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로사항은 곧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능성도 많고 또 보람도 있는 분야입니다.

실기 위주의 음악계의 구조를 외국과 같이 실기와 이론이 병행하는 건강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음악학자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이직이 자유롭고 활발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과는 달리 아직 직업으로 정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전망은 밝습니다.

한편 대학 교수의 경우 이직률이 높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보수도 좋은 편이고 명예도 있고 보람도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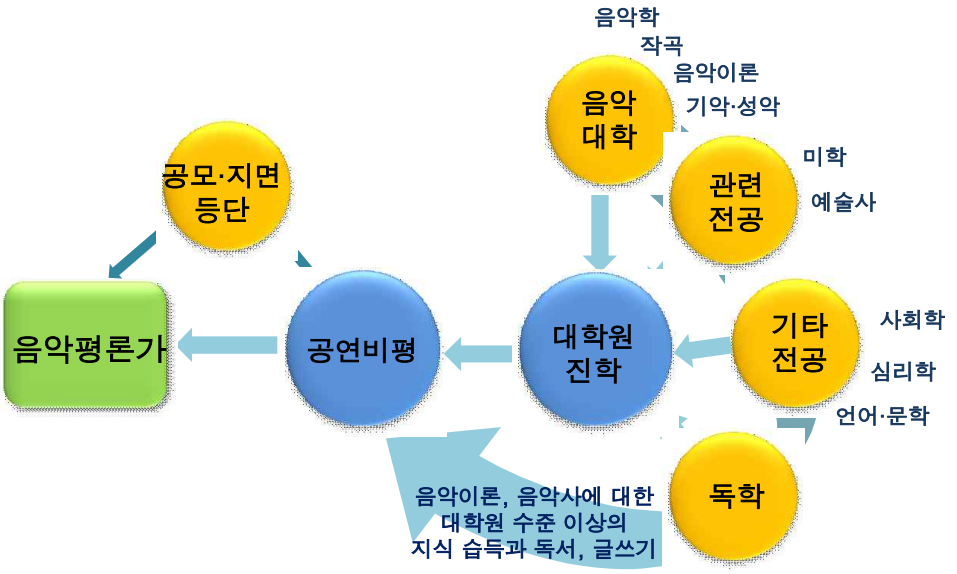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학은 매우 매력이 있는 분야입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평생 연구하는 직종이라는 점, 둘째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남과 나눈다는 점, 셋째 미개척 분야라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일생 해볼 만 한 직업입니다.

음악학 분야는 부나 명예 보다는 사명감과 적성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도전 의식이 있고 끈기가 있는 젊은이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8-2. 음악평론가



음악평론가는 음악 작품과 공연을 분석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힘으로써, 작품과 공연의 의미를 독자와 청중에게 더 잘 전달하고 그들이 창작자 및 연주자와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다. 평론가는 현장조사, 관련 자료 분석, 연주자 및 작곡가 인터뷰, 연주 감상과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음악활동 전반을 평하면서 창작과 연주 및 공연의 질을 높이고, 식상해진 음악 활동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도록 도와준다.

음악평론가는 많은 작품과 공연을 감상하고 분석하는 것을 즐겨야 한다. 작곡가와 작품, 연주자, 공연장, 청중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과 비판적 호기심이 필요하며 이것을 글로 잘 표현할 줄 아는 문장력과 언어감각, 논리적인 소통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와 공연 감상 및 사색, 글쓰기 연습이 필요하며, 음악에 대해 다양한 전문지식을 쌓아야 한다.

작품을 심도 있게 비평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청각적 인지력과 작품 분석력, 음악이론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요구된다. 한편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문학작품, 영화, 무대예술,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장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가 필요하다. 또한 동·서양 음악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하므로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관련 어학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음악평론가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음악 관련학과, 미학, 문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보다 심화된 음악사, 음악이론 및 음악연계학문을 배우며 문화와 작품, 공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훈련을 거친다. 독학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음악이론과 음악사에 대해 대학원 수준 이상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공연평론의 경우 학위 취득 후 개별 공연에 대한 평론을 기고하거나 음악잡지의 평론 공모, 일간지 공모를 통해 등단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김규현 음악평론가

김 규 현
음악평론가

【학 력】
- 연세대학교 (석사)
- 미국 트리니티신학대학 명예철학박사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영성목회신학원 교수
- 예장총회신학 음악목회신대원 교수

【주요 경력】
- 한국음악비평가협회 회장 역임
- 대구 국제 현대음악제 고문
-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무대공연 평가위원 역임

【저서, 작품집, 음반】
<현장음악비평>, <대구국제현대음악제 20년사>, <김규현 창작합창곡집> 등 12권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음악평론가 (영성목회신학원, 예장총회신학 음악목회신대원 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작곡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대학원 졸업 후 작곡가가 되었고 우연히 언론(신문, 잡지)과 관계를 가지면서 평론가로 전향하게 됐다. 작곡가 겸 평론가라는 두 가지 명칭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주위의 지인 권유로 신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는 하나 교직은 생활을 위한 수단이다. 나의 관심사는 작곡과 평론 활동이다. 어떻게 보면 작곡과 평론은 나의 전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음악 평론사가 60여년이 되지만 오늘날 평론 분야는 눈으로 보기에 열악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현장음악의 옳고 그름과 그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음악문화의 발전 계기를 부여하고 청중과의 소통을 만들게 해준다는 것은 평론가의 최대 보람이다. 이런 면에서 21세기 미래 평론가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직업으로서도 희망이 있는 좋은 업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대학들이 평론 전공을 신설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더욱 희망적이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평론가는 전문가이고 직업인이다. 내가 공부할 때(70년대)는 평론 전공과목이 없었다. 국내 평론 활동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석사 심지어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평론가 자격증은 없다. 평론활동의 질과 저서가 평론가의 자격증 역할을 하고 있다. 평론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악이론 전반(화성학, 대위법, 악기론, 관현악법, 음악사, 음악형식론, 음악미학, 음악학, 음악양식사, 연주사, 분석 등)과 음악사의 주요 레퍼토리, 한국음악비평사, 음악논쟁

사, 비평원리, 세계비평사, 한국음악사, 세계 예술사 등을 섭렵해야 될 것이다. 요즘은 너무 좋은 전문서적이 많이 출간되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권하고 싶은 전문서적은 crocker의 <A History of Musical style>과 cruton의 <The Aesthetics of Music>, 김우종의 <비평문학론>, 임두빈의 <미술비평이란 무엇인가> 등이다. 평론가는 적어도 3,4개 국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한문)는 읽을 줄 알아야 제대로 된 평을 할 수 있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평론가로서의 연봉은 현재는 너무 소량이라 언급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평론가들에게 수입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즉 강의, 해설, 논문 위촉, 신문 잡지의 시평과 평론쓰기 등이 그것이다. 타 예술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악평론 분야는 앞으로 지면은 물론 인터넷 활동 망으로 확대되어 미래가 밝다.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문장, 문학수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악(작곡)전공만 하고 평론을 쓴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애로사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평론가가 될 사람은 문학적 수업이 필요하다. 미래의 평론가들은 이 점을 직시하고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음악가들과 냉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객관적인 평을 할 수 없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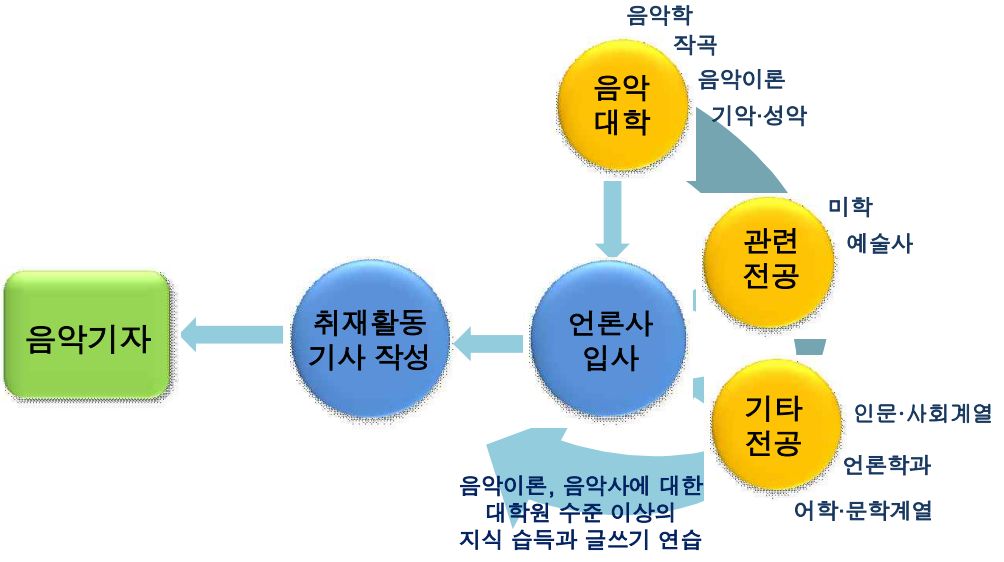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자신들의 전공(성악, 기악 등)을 접고 평론 분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그러나 작곡 전공이나 이론 전공자들의 자리바꿈은 좀 나은 편이다. 나의 경험으로 볼 때 평론은 학부 때부터 전공을 해야 올바른 평론을 쓸 수 있지 전공을 바꾸어 평론가로 변신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평론 분야는 음악이론 전반은 물론 음악 자체를 모두 섭렵한 전문가들이 하는 음악 분야의 최고봉이다. 평론가란 직업이 우리나라에는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젊은이들은 선배 평론가들이 해놓지 못한 전업 평론가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활성화했으면 한다. 그리고 구도자적인 전문평론가를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철저한 비평철학을 가졌으면 한다. 비평가는 일반 음악가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뛰어나야 하고 앞서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음악가들이 신뢰하게 된다. 음악계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비평정신을 시작부터 기르라.

8-3. 음악기자



음악기자는 연주회, 음악축제, 연주자, 음악학교, 문화정책 등 음악계의 새 소식을 취재하거나 음악계의 문제점 또는 주요 관심사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다른 분야의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력이 필요하며, 문화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사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야 하고,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중요한 소재를 인식할 수 있는 판단력과 통찰력,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끈기와 집중력, 남들보다 먼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순발력이 있어야 한다. 빠르면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간격으로 마감이 돌아오기 때문에 업무 긴장도가 높은 편인데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인터뷰를 하거나 공연 현장을 찾아가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활동적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다.

음악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폭넓은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능력과 언

어능력을 길러두어야 한다. 전공분야에 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음악관련 전공을 하면 기본적인 음악지식과 음악계의 구조를 파악하기 쉬우며, 연주자, 공연단체, 교육기관 종사자 등 취재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다. 음악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학 수준 이상의 음악사나 음악이론, 악기론, 음악미학 등 관련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평소에 전문서적과 음악잡지 또는 지면을 통해 연주자, 교수, 음반, 교육기관, 콩쿠르, 악기 회사, 음악 정책 등 음악계에 관한 상식을 축적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

음악기자는 현재 주로 음악전문잡지나 종합언론지 문화면, TV나 라디오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나 블로그, 트위터 등 새로운 매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영역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대부분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므로 자신이 일하고 싶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근무경력이 쌓이면 행정이나 인사 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기도 하고, 그동안 쌓은 현장 지식을 활용하여 저술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응용 및 실용음악 전문가

9-1. 영상음악 전문가

영상음악 전문가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프로그램,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 CF 등의 영상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영상에 적합한 음악을 선택하고 영상에 삽입하는 일을 한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CF 등 각각의 분야마다 음악감독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영상 분석력, 작곡 능력, 그리고 선곡 능력이다. 영상 분석력은 영상을 많이 접해봐야 길러지는 것이고, '극'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극'의 한 '장면'으로서의 영상이 갖는 의미, 분위기, 감성 등을 이해해야만 그에 적합한 음악을 작곡하거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F의 경우 작곡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영상음악 분야에서는 그 영상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영상에 따라 기존의 음악들을 선곡하여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영상에 적합한 곡을 선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양한 음악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작곡한 곡 또는 선택된 곡을 영상에 삽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영상의 적당한 지점에서 음악이 시작되고 끝나야 하며, 적당한 음량이어야 하며, 적당한 균형을 이루어 영상과 조화로운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치밀한 예술적 기술적 감각이 필요하다.

대학 학부과정에서 영상음악, 실용음악을 전공할 수 있고, 일반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할 수도 있다. 자격증과는 크게 관련 없는 직종이다.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의 경우 단편영화 등의 짧은 영상음악들을 만들다가 장편영화의 음악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모전에 입상하여 데뷔,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영상음악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나 작업실에서 배우며 일하다가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은 경력과 실력에 비례한다.

권성연 영상음악 작곡가

권 성 연
프리랜서 작곡가

【학 력】
- 선화중학교
- 선화고등학교
- 연세대학교(학사, 석사, 박사 구분)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프리랜서 작곡가

【주요 경력】
- 다수 독주회 및 실내악 음악회
- 나사렛대학교 겸임역임
- 세종대 성신여대 나사렛대 출강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작곡가 (영상음악)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클래식 피아노를 대학원까지 전공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작곡에 관심이 많

았다. 교회생활을 하며 찬양팀을 오랜 기간 하고 있었고, 그 구성이 실용음악과 같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많은 것을 저절로 습득한 것이 많았다. 가요와 같은 형식으로 찬양곡을 만들어 음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연히 영상음악 공부를 하는 과정을 1년 정도 이수하면서 영상음악 제작에 관하여 공부하게 되었고, 과정이 끝나자마자 운 좋게 드라마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현재는 가요 스트링 편곡과 영상 음악 분야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클래식을 오랜 시간 공부해온 것이 클래식 이외의 음악들에서도 구성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또는 기타와 같이 화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좋고 작곡의 기본인 화성학을 충실히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용음악에서는 미디를 통해 음악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디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를 줄 알아야 한다. 믹싱 관련 사운드를 다루는 기술도 습득해야 하며 양질의 소리가 무엇인지 구분해내는 귀도 필요하므로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들어야 한다.
- 요구되는 자격증이나 대학 진학 시 관련 전공 선택의 필요성:
  실용음악의 경우 자격증이나 전공, 대학보다는 경험과 실력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쨌든 대학 진학 시 음악 관련학과를 선택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작업초기에는 고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 경력과 실력에 따라 소득수준은 천차만별이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작업의 특성상 야간 작업이 많다. 한참 작업할 때는 낮과 밤이 뒤바뀌어 건강 관리가 힘들 수 있다. 또한 일정 궤도에 이르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일을 따 내는 것이 힘들다. 그리고 유행의 흐름에 민감해야 함도 필수적이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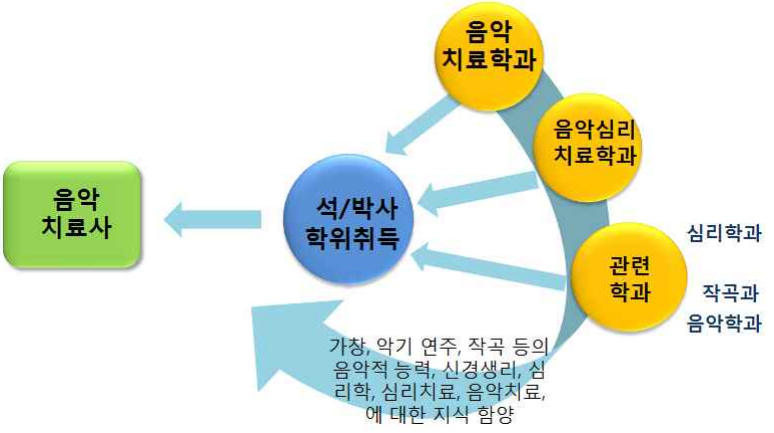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데다, 경쟁이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상음악을 하는 데에는 음악에 대한 지식과 감각 등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가능한 한 음악적 경험을 다양하게 많이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9-2. 음악치료사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치료한다.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질환자, 우울증 환자, 자폐증 환자, 치매노인, 도박 마약 또는 게임 중독자 등이 음악치료의 주 대상자가 된다.

의사의 일차적 진단 후 해당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음악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음악치료사는 노래, 연주, 작곡 등을 적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창, 악기 연주, 작곡 능력의 음악적 능력이 요구된다. 치료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경생리, 심리학, 심리치료, 음악치료, 음악심리학, 신경재활치료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환자와 함께 악기를 이용하여 즉흥 연주 및 작곡을 하기도 하면서 환자의 음악적 표현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진단·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특성에 따라 음악치료 방법을 택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환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편견이 없어야 하고, 배려심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적극성과 사회성, 순발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종이다.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대학원에서 음악치료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학과로는 음악치료학과, 음악심리치료학과, 심리학과, 실용음악과, 음악학과, 작곡과 등이 있다. 국가공인자격시험은 없지만, 민간기관자격증으로는 대한음악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에서 주관하는 음악치료사 자격증이 있다.

공채나 교육 기관의 소개 등을 통해 병원, 심리치료소,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에 채용될 수 있다.

최병철 음악치료사

최 병 철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교수

【학 력】

- 건국중학교
- 경남고등학교
- 남일리노이대학교(학사)
- 남일리노이대학교(석사)
- 일리노이주립대학교(음악치료사과정 수료)
- 캔자스대학교(박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 교수
- (사)한국음악치료학회 회장
- 세계음악치료연맹(WFMT) 총재

【주요 경력】

- 미국메트로폴리탄주립병원 음악치료사(88~1)
- 캔자스대학교 실습수퍼바이저(93~6)

【저서, 작품집, 음반】

- 논문: 록큰롤 음악 청취와 청소년의 내재된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011) 외
- 저역서: 음악치료학(학지사), 음악심리학(학지사), 음악치료(학지사), 아동음악치료(학지사), 신경재활음악치료(하나의학출판사) 외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음악치료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교수)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치료사는 음악 또는 음악활동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주요 대상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노인들이며 근래에는 일반인들의 스트레스 조절, 도박 및 인터넷 중독 청소년·성인들, 직장인들의 사회적응기술, 그리고 삶의 충족과 내면의 성찰을 높이는 활동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건강함에는 개인의 신체적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도 포함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악으로 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음악치료사는 사람들을 개인 혹은 집단음악활동에 참여시킨다. 접근방식은 음악교육적, 신경생리적, 그리고 심리치료적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인지행동적, 정신역동적, 인본적, 실존적인 심리치료의 이론에 근거하여 음악을 치료도구로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악치료사는 노래하거나, 연주, 또는 작곡, 즉각적으로 치료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음악적 기술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치료기법은 교육과정에서 배우게 되나 기본적인 음악기술, 즉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성악기술이 필요하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으로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필요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음악치료사란 직업은 매우 매력적이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음악치료사 전공이 몇 개 대학의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음악치료사 과정을 시작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음악치료사 교육은 주로 대학원과정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학부를 마치고 진학할 수 있다.

학부의 어떤 전공도 대학원 진학에 상관은 없지만 굳이 연관분야라면 음악, 특수교육, 상담심리 등이다. 피아노 같은 건반악기 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요구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평소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음악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음악치료 관련 서적을 읽어보는 것도 유익하나 다만 음악치료를 잘못 소개하는 서적도 있으니 가급적 정규교육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쓴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시립이나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음악치료사는 2500-4000만원 내외의 연봉 받는다. 복지관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으나 개인기관이나 정신과 의사와 협력치료를 하는 음악치료사는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에는 정해진 보수 보다는 개인적인 능력, 나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소득에 격차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개인치료를 주로 하는 음악치료사보다는 집단치료를 하는 음악치료사의 소득이 더 높은 편이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별한 어려움은 없으나 아직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다. 또한 음악치료가 꼭 '의료분야'에만 속한 전공이 아닌데도 '치료'라는 용어의 사용에 의료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과나 재활병동에서 음악치료사가 법적필요근무자로 자리 잡지 못한 점이나 현재 음악치료가 의료보험수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국내 음악치료 활동은 아직 시작단계라 할 수 있어 향후 확장될 분야나 적용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음악치료사들이 기업과 제품의 배경음악선곡, 사이버음악치료, 직장인 스트레스프로그램, 기업연수분야, 중고등학교 중독치유, 폭력방지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임상경험을 쌓은 음악치료사들 중에 개인클리닉을 열어 다양한 활동을 해가기도 한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악치료는 발전 가능성이 많고 여러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전공이므로 오늘 보이는 음악치료의 모습보다는 장래성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길 바란다.

9-3. 사운드 디자이너(광고, 게임, 영상음악 분야)

사운드 디자이너는 광고나 게임 등 영상물에 삽입되는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제작한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 등의 소리를 제작하거나,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택하거나 만든다.

음악이 아닌 소리의 경우, 필요한 소리를 녹음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녹음된 소리를 원하는 느낌에 맞게 변형하고 조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소리는 녹음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른 느낌의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녹음 기술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요구되며, 또한 음향의 변형과 조작의 기술에 대한 지식도 요구된다.

소리를 제작하고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분석력과 소리에 대한 예민한 감각, 음악 선곡 능력이다. 다양한 소리를 듣고 분석하면서 소리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기르고, 그 소리를 내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광고, 게임 등의 다양한 영상을 접하고 분석하면서 영상의 느낌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음악을 많이 접하면서 그 음악과 어떤 영상이 어울릴지 상상해보는 습관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상물 편집 기술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고, 게임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프로그래밍 지식을 알고 있으면 좋다.

대학 학부과정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를 전공할 수 있고, 관련학과로는 실용음악과, 음향제작과 등이 있다.

구자환 사운드 디자이너

구 자 환
사운드 디자이너 (프리랜서, 광고/게임/영상음악 분야)

【학 력】
- 서울 대학교(학사)
- Berklee College of Music (학사)
- New York University (석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호서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주요 경력】
- MMORPG 세피로스 효과음 및 배경음악 제작
- MMORPG 에버플레닛 효과음 및 배경음악 제작
- Nexon Japan의 웹게임 30여종의 효과음 및 배경음악 제작

【저서, 작품집, 음반】
- 1집 음반 Asymmetric Symmetry
- 2집 음반 Noise Study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사운드 디자이너 (프리랜서, 광고/게임/영상음악 분야)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는 광고나 게임 등 영상물에 들어가는 효과음과 배경음악을 제작하는 직업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사물의 움직임에 어울리는 소리를 제작하고, 영상물의 느낌이나 스타일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고르거나 직접 만드는 것이 사운드 디자이너의 주된 역할입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음악"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음악이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기 좋게 구성하여 완성된 기성품이라면, 소리는 음악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료들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온갖 사물이 내는 소리,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에 스며든 소리들이 저의 관심사였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저런 소리들을 눈을 감은 채 감상하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더 나아가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사운드 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은 충분합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음악을 너무 크게 듣거나 하면 청각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해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죽인 채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나올 소리는 무엇일까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학 진학시 음악/음향과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용음악과, 음향제

작과 등을 추천합니다. 음향공학도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학보다는 음악 쪽 전공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영상물 편집 기술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게임과 관련된 작업의 경우 프로그래밍 지식을 알고 있으면 또한 좋습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연봉의 기준점은 없습니다. 회사에 속해 일할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의 작곡 능력을 향상시켜 다른 분야의 음악들, 예를 들어 영화음악이나 K-Pop 같은 분야에도 진출한다면, 소득 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광고음악이나 게임음악의 경우 아직은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풍토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음악, 특히 실용음악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경력을 쌓으면 다른 쪽으로 이직하더라도 작업의 내용이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영화, 광고, 게임... 무엇이 되었든 아무 영상이나 스피커를 끈 채 5분만 지켜보세요. 어마어마한 답답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소리의 역할을 이와 같습니다. 수 천 수 만 가지의 소리들이 있기에 영상이 자연스러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9-4. 저작권 관련

사람이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하며, 표현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저작자를 보호하는 법이 저작권법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 관련 분야 직업에는 저작권법 관련 법조인, 저작권 관련단체 실무자, 저작권 관련 전문업체 실무자 등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저작자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한 데다 우리나라 음악 저작물이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 되고 있어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들어 음악 저작권 관련 전문업체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 관련 업무에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포털업체, 음악사이트 전송업체, 방송국, 음반제작기획사,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콘서트, 호텔, 백화점, 항공사 등 음악 사용업체로부터 징수하여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 저작권법 위반 행위 적발, 분쟁 해결 등이 있다.

국가공인 저작권관리 자격증은 없다. 공채를 통하여 저작권 관련단체나 전문업체의 실무자로 일할 수 있다.

연성흠 음악저작권자

연 성 흠

음악저작권자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학 력】

- 인창고등학교
-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 전공 1986년 졸업)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근무

【주요 경력】

- 1992년 저작권문화학교 제6기 수료(한국저작권위원회)
- 2010년 저작권아카데미 제6기 이수(한국저작권위원회)
- 2011년 저작권입문강사 위촉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자료·회원관리부장 등
-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 강의 외 저작권특강 활동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음악저작권자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할 분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구성원인 저작자로서 작사·작곡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음악을 창작한 국내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한류열풍으로 우리나라의 음악 저작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수들과 더불어 저작자의 입지도 상승하고 있다. 단, 이러한 우리가요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와 아울러 공정한 이용이 보장되어야하나,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불법유통이 확산되어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때이기도 하다.

문화콘텐츠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주어야 하는 저작자의 재산이므로 불법복제 방지와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하여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야만 새로운 창작물을 생성하는 환경조성이 형성된다.

이러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포털업체, 음악사이트 전송업체, 방송국, 음반제작기획사,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콘서트, 호텔, 백화점, 항공사 등 음악사용업체로부터 징수하여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음악저작권에 관한 신탁관리업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주요 업무이다. 저작료를 지급받은 작가들은 음악을 창작하는데 재투입하여 창작의욕을 북돋게 해주어 창작에 전념케 한다.

20여년 전만하더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전업작가는 극히 일부로 협회의 회원 수는 3천 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약 1만 3천 여 명이 협회에 가입하여 음악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에는 고액의 저작료를 받는 전업작가도 속출하고 있다. 작곡가와 작사가 모두 동등한 지분의 저작료를 받고 있으므로, 어느 분야가 더욱 기여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작사·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좋은 작품을 발표하여 오랫동안 대중에게 사랑받는 히트곡을 만들어 냈다면 그보다 더한 자부심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창작한 모든 작품은 자식과 같이 귀한 것이라 여길 것이다.

평생을 음악과 함께 동반자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삶이라 생각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연주하고, 향유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좋지만 남들이 불러주는 음악을 자신이 직접 창작하였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주 오래전 대중음악은 학교교육을 통한 음악 수업을 받아 작가로 활동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개는 음반사 또는 음악학원 작가로 소속하여 있으면서 스승에게 사사 받아 작가로 데뷔하여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즈음은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설학원과 체계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전국에 실용음악 또는 음악관련 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약 140여개 이상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국내의 히트곡 제조기라 불리는 유명 작곡가와 작사가 중에는 연간 저작료의 수입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 작가들이 몇 년 전부터 등장하고 있다. 이는 우수한 국내 음악 작가의 수준이 한류열풍을 만들게 한 원동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업작가로 활동하는 작가수보다 유사 음악 산업 직업에 종사하는 작가들의 수가 많음을 감안하면 아직도 저작권 보호와 권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음악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창작을 하는 저작자는 조화와 질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고, 조직사회의 체계를 지킬 줄 알면서 생활하는 절제된 행동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음악에 있어서 합주 시 중요한 요소인 앙상블과 조화를 이루는 정신이 요구된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전업작가로 활동하면서 음반을 직접 제작 기획하는 프로듀서, 방송국 음악감독, CF 등 광고 음악 프리랜서, 영화 음악감독,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 음악, 연극, 뮤지컬, 오페라 감독, 공연기획, 선거로고송 제작 등의 분야에서 음악 창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가요의 작사·작곡가 그룹활동 또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저작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창작자와 가수로서 실연자의 역할까지 한다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권리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으며, 선진국가에서와 같이 음악권리출판사 등의 음악저작권관련 전문업체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공연기획, 음반기획, 뮤직프로덕션 등 뮤직비지니스 분야의 사업관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한류문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 실용음악학과, 뮤지컬 음악학과, CCM 등 교회음악 관련 학과의 관심과 선호도 증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사·작곡가가 많이 배출되리라 기대된다.

2. 직업선택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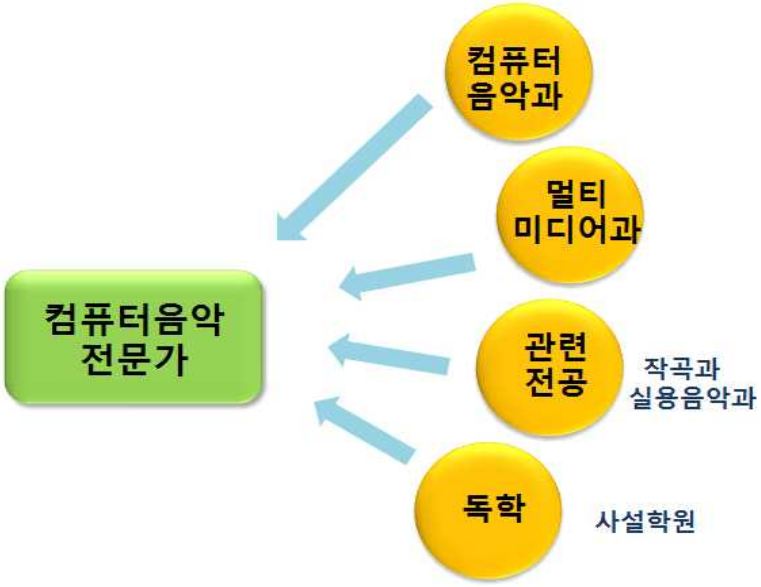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노랫말을 쓰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독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양의 독서는 자신의 감정표현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작곡에 있어서 자신의 감성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개 이상의 악기 연주는 필수라 본다. 요즈음 디지털음악의 발전으로 미디 등이 넘쳐나고 있으

나, 이는 음악의 획일화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타인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보다 참신한 창작성을 요구하는 음악을 탄생시키기 위해, 악기의 연주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전통악기인 Guitar, Piano 등의 악기는 모든 음악의 표현에 아주 유용하고 적합하다고 본다. 요즈음 입시준비로 획일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악기를 익히고 연주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틈틈이 학창시절에 연습한 것이 평생갈 수 있기도 하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미칠 만큼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리라 생각된다.

9-5. 컴퓨터음악 전문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악을 작곡하거나 편곡하는 일을 한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작·편곡하고 있으나, 실용(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대중가요의 작·편곡 및 연주, 방송에 사용되는 음악들, 게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음향과 음악의 작곡 등에 컴퓨터 음악이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작곡, 편곡의 기본이 되는 화성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건반악기 연주가 가능하면 좋다. 또한 음향공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 물리 과목의 이해도 필요하다. 다양한 컴퓨터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들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 많은 프로그램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보다 작곡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소리, 음악을 찾거나 만들 수 있다.

대학 학부과정 가운데에 컴퓨터음악과, 실용음악과, 멀티미디어학과 등에서 공부

할 수 있고, 일반 음악대학의 작곡과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더라도 재능과 실력이 있다면 독학을 통하여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활발한 활동도 가능해진다. 독학의 경우 사설실용음악학원이 도움이 된다. 공모전 또는 다양한 작품 발표를 통하여 직업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게임음악을 만드는 업체 게임 음악 작곡, 편곡에 대해 연봉으로 계약이 되고 수준은 중소기업 정도이다. 실력에 따라 작업분량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있다. 가요 음반 기획사, 제작사의 소속 작편곡가는 최소한의 기본수당에 작업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녹음실의 음향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수당에 추가 급여의 형태이다. 대학 또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외래 강사로의 진로도 가능하다. 종사자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컨텐츠 개발과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영준 컴퓨터음악 전문가

이 영 준

컴퓨터 음악 (작편곡가)

【학 력】

- 홍익대학교 졸업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컴퓨터음악전공 (음악학석사)

【경 력】

현재(2011년 12월)

- 추계예술대학교 컨서바토리 실용음악학부 겸임교수
- 'Bluephonic' 음반 프로듀서

【주요 경력】

- 가요: 휴식 1집, BMK 1집, 이승훈 4집, 민우(M) 3,4집, 메이세컨 2,3집, 유리상자 리메이크
- 영화 OST: '가문의 위기'
- 드라마 OST: MBC drama '주몽', '2009 외인구단'
- 뮤지컬 편곡: '청년 장준하', EBS '방귀대장 뿡뿡이', '키스 앤 메이크 업', '아리랑 판타지'
- 방송: KBS 2TV '엄마의 무릎학교', 한국경제 와우넷 TV 광고음악, 인터넷윤리 동영상 방송음악(한국인터넷진흥원)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컴퓨터음악 (작,편곡가)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퓨터음악을 통해 가요, 뮤지컬, 방송 음악 등을 작곡하거나 편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학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컴퓨터음악을 기초로 하는 과목의 강의 맡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 고교 시절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악기 연주와 더불어 작곡에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Rock Band를 시작으로 대학 진학 후에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였습니다. 차츰 밴드 연주보다 작곡 활동에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를 사용한 편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창작품을 세상에 내어 보인다는 희열감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에 곡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작·편곡가의 길을 걸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한 편집 작업이 한 트랙의 음악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음악이 부수적으로 작용하는 매체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는 컴퓨터 음악 전공이 음악학과 또는 멀티미디어학과로 나뉘어져 개설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음악은 작곡, 편곡 그리고 편집 등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인내심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끈기 없이 조급하게 접근하다가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고 타인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작품이 의도와 다른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아울러 악기 연주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거나 음향 공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 물리 과목의 이해도가 높다면 컴퓨터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컴퓨터음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음악학적인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곡, 편곡의 기본이 되는 화성학 이론은 대학에 진학해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멜로디와 코드에 대한 지식이 중,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다양한 장르의 작품 창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음악을 접하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정도라도 직접 실습하는 환경을 만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음향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유리한데 사운드, 레코딩 관련 도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직장(직업)생활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40대 소득 발전 수준

예술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음악 예술 내에서 컴퓨터음악이 사용되어지는 분야는 거의 모두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게임 음악을 만드는 업체라면 게임 음악 작곡, 편곡에 대해 연봉으로 계약이 되고 중소기업 정도의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실력에 따라 또는 분량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생기겠지요. 방송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음반 기획사, 제작사의 소속작, 편곡가인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수당에 작업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녹음실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수당에 추가 급여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대학 혹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의 외래 강사로의 진로가 가능합니다. 음악 관련 업종은 실력에 우선하기 때문에 나이에 다른 소득 발전 수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현재 소비되는 음악 혹은 음악과 관련된 컨텐츠의 양에 비해 해당 업체들이 고용하는 인력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이 프리랜서의 자격으로 컨텐츠 개발과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본인의 음악적 능력과 사회적 친화력이 우수하다면 고용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컴퓨터음악 관련해서는 최근 영상 음악이 높은 가치를 갖게 되었는데, 이미 만들어진 영상에 음악과 음향을 입히는 작업이라 여러 사람들의 귀를 통해 공통분모를 유추해내어야 합니다. 자신이 초기에 생각했던 부분과 달라졌을 때에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감성과 이성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는 빠른 길일 것입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컴퓨터음악 관련 산업은 최소한의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만 있다면 관련 분야로의 이직이 자유롭습니다. 이직이라고 표현하기가 다소 어색합니다. 오히려 겸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까지 가요 작업뿐만 아니라 방송 음악, 뮤지컬 음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케쥴 관리 하에 작업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연주를 전혀 해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연주자의 길을 걷거나 소리

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겠죠.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 컴퓨터음악 분야는 음악 예술 안에 있으면서도 멀티미디어 공학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에 아주 포괄적이고 유연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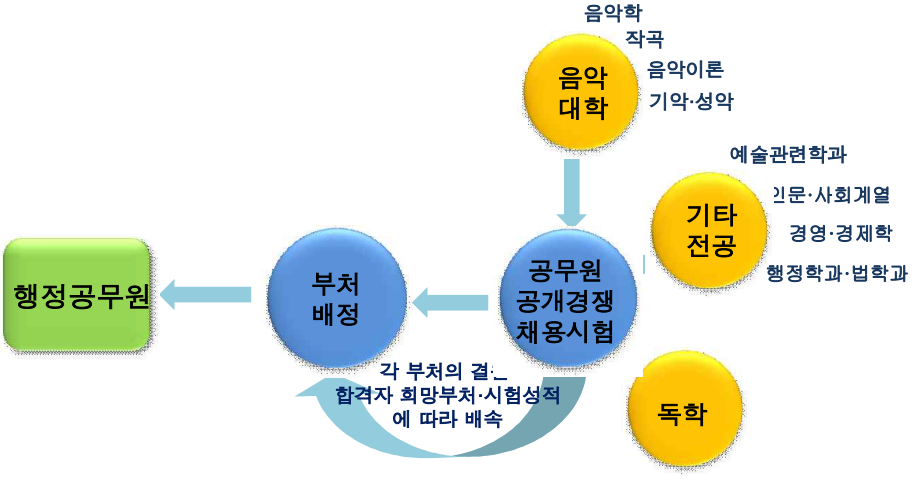
많은 학생들이 음악 카테고리 내에서 다양한 기술적 시도와 감각적 경험들을 축적하는 데에 집중하기 힘들어합니다. 다양한 대중 매체들의 홍수 속에서 어느 새 우리는 무엇이든 쉽게 싫증내는 체질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음악 작업의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음악을 쉬지 않고 수백 번씩 모니터를 해야 하고 영상과 일치하는 0.01초의 시간대를 찾기 위해 수없이 마우스를 드래그하며 밤새 자기와의 외로운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작업하는 동안만큼은 그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으며 단시간 내에 예상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의 희열감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이들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성의 연마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작업 시에는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늘 자기계발에 힘쓰기 바라고 예술적 체험을 게을리 하지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화예술행정가

10-1 행정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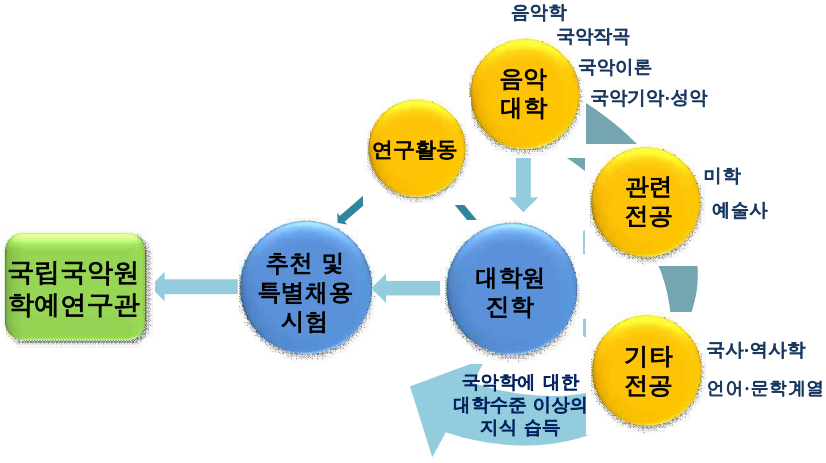


문화예술에 관한 국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업과 교육을 지원하며 국정 홍보, 여론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소속기관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이 있다.

공무원은 국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성실함과 정직함, 책임감이 필수적이고,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보다 행동의 제약이 많을 수 있지만 직장 안정도는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문화발전과 보존에 기여하고 국가 정책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려면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5급, 7급, 9급)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

험 일정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매년 초에 위 사이트에 게재되는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9급은 매년 4월경, 7급은 매년 7월 하순경에 필기시험이 있으며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등인데 몇 급 시험인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시험에 합격할 경우 각 행정부처에 새로 필요한 인원과 합격자의 희망사항 및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부처를 배정하므로, 근무 희망 부처를 선택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를 지망하면 된다.



문화관련 정부산하기관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기 곤란한 전문연구직무나 공연기획업무를 수행하는 학예직(학예연구직)은 해당기관의 연구직 인원이 모자랄 경우 관련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추천 및 특별채용시험 등을 거쳐 채용한다. 음악전공 관련 학예직으로는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이 있다.

학예연구직은 보통 채용조건에 관련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연구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악학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어학 능력, 호기심, 끈기가 필요하며, 행정에 관련된 업무도 해야 하므로 문서 작성 능력도 있어야 한다. 학예연구직 종사자는 안정된 환경에서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 보존과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주재근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주 재 근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학 력】

- 국립국악고등학교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 한양대학교 음악인류학 박사수료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주요 경력】

-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용인대학교 강사
- 사) 한국국악교육학회 이사
- 사) 박동진판소리보존회 이사

【주요 논문】

- 「한국 고대 유적 출토 악기의 음악고고학적 연구」
- 「대전 월평동 유적 출토 양이두 연구」
- 「저작권 인식 제고에 따른 국악 대응 방안」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공무원(국립국악원 학예연구관)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현재 학예연구관(일반 행정직 사무관에 해당)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예직은 행정기관 중에서 전문분야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역사·고고학 분야인 국립중앙박물관, 미술 분야인 국립현대미술관, 민속분야인 국립민속박물관, 국악분야인 국립국악원에 학예직 공무원을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국악분야의 학예직 공무원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국악을 전공을 해야 하고, 국악분야의 다방면 지식을 함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대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졸업하고 계속 학업을 이어갈 생각이었으나, 국립국악원에 학예직 공채 모집 공고를 보고 행정과 국악분야의 전문성을 잘 활용한다면 미개척 분야로써 성공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좋은 정책을 수행한다는 점과 특히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에 있어 고등학교 이후 줄곧 국악을 하였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이 길을 걷고 있으며, 남의 문화가 아닌 우리 문화를 보존·계승하는 국가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국악과를 개설한 대학교는 현재 전국에 약 25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으로는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으며 전문대학으로는 서울예술

대학 등이 있습니다.

국악과에는 가야금, 대금과 같은 실기전공이 있고, 이밖에 이론전공과 작곡전공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악중학교와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인문계에서는 실기전공은 수년 동안 악기를 배워야 하며 이론전공이나 작곡전공은 소질이 있다면 1년 열심히 준비하여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학에서 타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국악이론전공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악전공 학예직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국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학 실력과 문서작업(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등) 실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서편제와 아마데우스이며, 책은 심훈의 상록수입니다.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예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보통 3,000만 원 정도며 15년차 학예연구관은 연봉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밖에 대외 논문이나 원고료, 자문료, 외부강의 등의 과외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행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업무 실수가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 교육이나 업무 숙련도에 따라 본인의 의지로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학예직 공무원은 행정업무와 자기 전문 분야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행정경험이 있는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교수로 진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문화산업 발전에 따라 각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학예직이 축적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학예직 공무원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비교적 쉽게 협조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높아지고 특히 국악을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외국대학의 음악대학 내에서도 국악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2. 직업선택 조언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국악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많았는데,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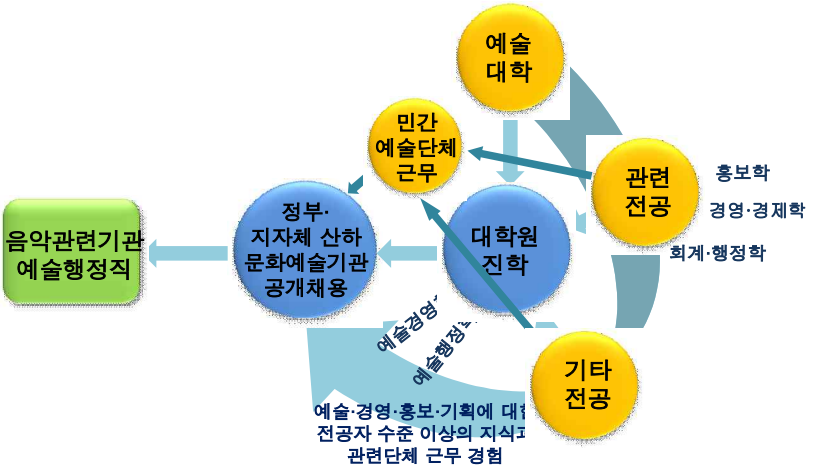
사물놀이나 판소리 등을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외국인들이 훨씬 즐기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국악의 밝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전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지금의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국악교육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는데, 이는 국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국악은 이제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김연아와 박지성이 세계 스포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 국악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세계 음악 속의 한 장르로 인식될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국악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영어와 같은 외국어를 잘 해야 하며 무엇보다 세계 문화에 대한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3. 음악 관련 기관 예술행정직



정부행정부처나 산하기관 이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예술기관이나 법인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 기획, 행정, 홍보, 교육, 정책개발, 연구 및 조사,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 지역문화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관련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다.

이 업무는 좋은 공연을 판별하고, 알맞은 공연자와 협조단체를 섭외하고,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산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업무 전체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평소에 공연과 전시를 자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업무 진행과정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음악 관련기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음악 관련학과나 홍보, 회계, 경영, 행정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예술행정, 예술경영을 공부하면 좋다. 일정기간 이상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 시절부터 작은 기관이나 민간음악단체에서 활동하며 업무의 내용과 분위기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은 추천이나 공개채용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한다.

김태훈 음악관련기관 예술행정직

김 태 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팀장

【학 력】
- 성광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 (학사)

【경 력】
현재 (2011년 12월)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팀장

【주요 경력】
- 대구윈드오케스트라 기획실장
-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전임계약직 다급)
- 강동아트센터 운영위원

해당 직업에 대한 소개

1. 직업명(소속포함)

- 음악 관련 기관 예술행정직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운영팀장)

2. 직업 소개

Q 귀하의 직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직장을 소개하자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공연장)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교류, 문화예술회

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운영에 대한 자문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아카데미, 공연유통활성화를 위한 제주 해비치 아트페스티벌, 문화예술회관 연수단원 지원, 문화예술회관 컨설팅 지원 등 정부로 부터 위탁받은 다양한 사업과, 국회 등 공공기관 관련업무, 법인, 기획, 인사, 예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술행정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영행정으로 주로 공공영역,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영역에서 예술과 관련된 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예술인, 예술단체 지원, 지역민의 문화향수권신장 등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대표적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습니다. 업무 범위로는 경영지원 및 행정,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문화예술교육, 정책개발, 연구·조사, 예술단체 지원 등의 일이 포함됩니다.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음악을 전공하고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운영하면서 경영, 회계,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그리고 전문예술단체 신청, 문예진흥기금 신청과 정산 등 예술행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은 문화예술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한 대인관계와 섬세함을 갖춘다면 21세기 문화예술의 시대에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 준비 및 경로

1. 대학 진학 시 필요 요건

Q 귀하의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진학 및 재학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연, 전시 관람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많은 경험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이해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틈틈이 문화재단 등 지원기관들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인근에 있는 문화예술기관들의 업무 프로세스 등을 익힌다면 추후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요즘은 학부에 예술행정, 예술경영 관련 학과들이 있어 처음부터 전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선택하여 학부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예술행정, 예술경영을 공부하여도 됩니다. 외국어(영어 필수)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면 취업에 유리하겠죠.

2. 직장(직업) 생활

Q 직업선택 초기 기대할 수 있는 연봉수준과 30, 40대 소득 발전 수준

일반적으로는 타 분야 민간 기업보다는 연봉이 적다고 봅니다. 대졸 초봉이 2,000만 원 수준인데, 물론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도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들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컨설팅 회사 등 전문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전망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장점이라면 정년 후에도 관련 기관 대표 같은 자리는 전문 인력을 공모를 통해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Q 귀하의 직업에서 겪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분야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게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야근이 많고 주말,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시간이 부족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도를 갖추어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업에 대한 전망

1. 진출분야

Q 해당 직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면서 관련 분야로의 이직은 자유롭고 활발한 편인가요?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처음에 공공기관에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민간 분야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2. 직업선택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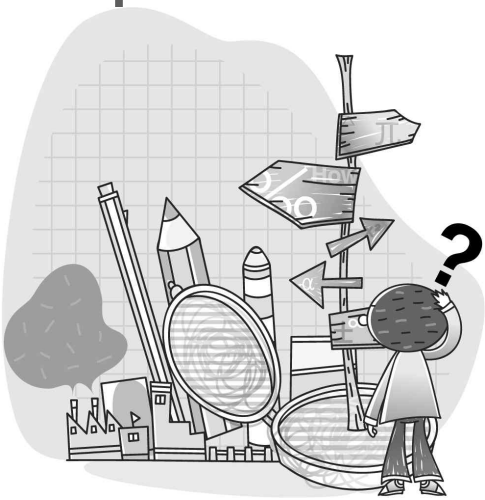
Q 귀하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술행정이라는 분야는 예술가 등 개성이 강한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여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겉보기와는 달리 많은 인내심과 이해심이 필요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대화의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이 분야로 진로를 정한다면, 관련 전문서적을 읽으면서 행정, 경영,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등과 관련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나가야 좋은 예술행정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열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Ⅲ 포트폴리오(미술)

1. 작품 포트폴리오

2.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작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 등을 집약한 작품집 또는 자료집이다. 과거의 미대 입시는 양식화된 그림의 숙련도를 보는 평면적인 평가였다면, 최근에는 수험생의 재능과 가능성, 전공 분야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포트폴리오 심사도 이에 해당되며, 미술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써 중요해지고 있다.

미술 포트폴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 제작한 작품을 모아놓은 작품 포트폴리오와 자신의 진로 탐색 활동을 기록한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로 나뉜다.

1) 작품 포트폴리오 설명

미술대학에서 입학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기시험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대상이나 주제를 완성도 있게 표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표현능력과 순발력 외에 학생 개개인의 예술적 잠재력이나 개성, 관점 등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작품 포트폴리오는 이러한 실기시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직접 제작한 작품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2012학년도 기준 포트폴리오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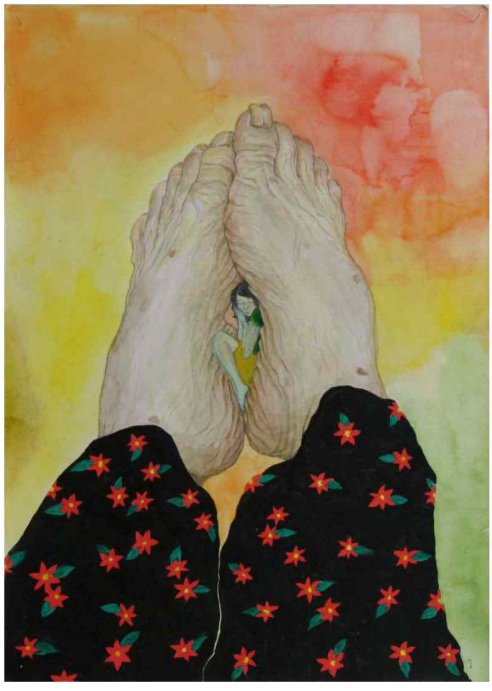
구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작품내용	자신의 조형적 상상력과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본인 작품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포함할 것
크기 및 수량	규격화된 A4 크기의 사진 인화 프린트 10매	35mm 슬라이드 15매
제출방법	검정색 A4 크기의 파일 사용 (이름과 수험표를 꼭 표기할 것)	
비고	○ 제 2차 전형 서류 제출일에 제출 ○ 제 2차 전형 참고자료로만 쓰임	수시 및 정시 2차 심층면접 참고자료

학원가에서 만들어지는 전형적이고 획일화된 포트폴리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의 관점과 개성과 고민이 드러나는 포트폴리오가 요구된다. 별 의미 없이 과거의 명작을 모작하거나 패러디하는 것, 개성 없는 입시미술 화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없다.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와 소재가 결정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표현된다면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다.

2) 학생 작품 포트폴리오 예시

【특 징】

- 학생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따뜻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 본 포트폴리오에서는 항상 따뜻하게 손녀를 감싸주시는 할머니와 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모습 등 가족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담겨 있다.
- 자화상 그리기를 통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미술작가가 되는 꿈을 찾아가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다.
- 자신의 경험과 기억, 따뜻한 시선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미술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어 미술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열정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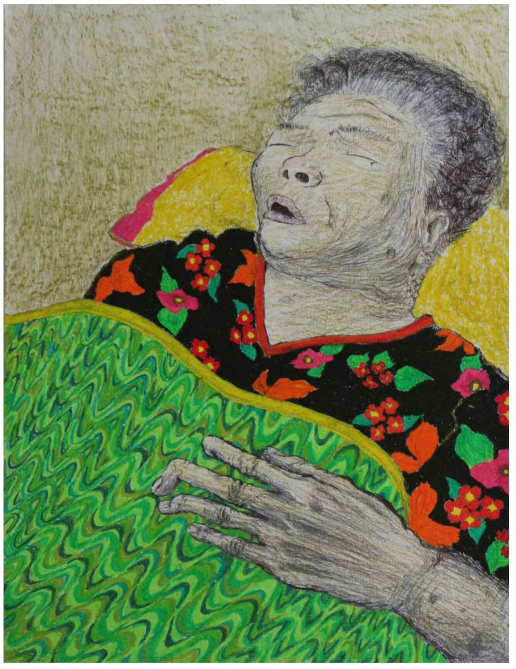


<따뜻해> 수채, 3절, 2007

"어이쿠~ 이노므가스나 발 차가워르~"
오늘도 할머니는 내 발을 녹여주신다.

<할머니와 춤을>
아크릴물감, 3절, 2007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추석날 아침,
할머니의 무릎은 춤을 출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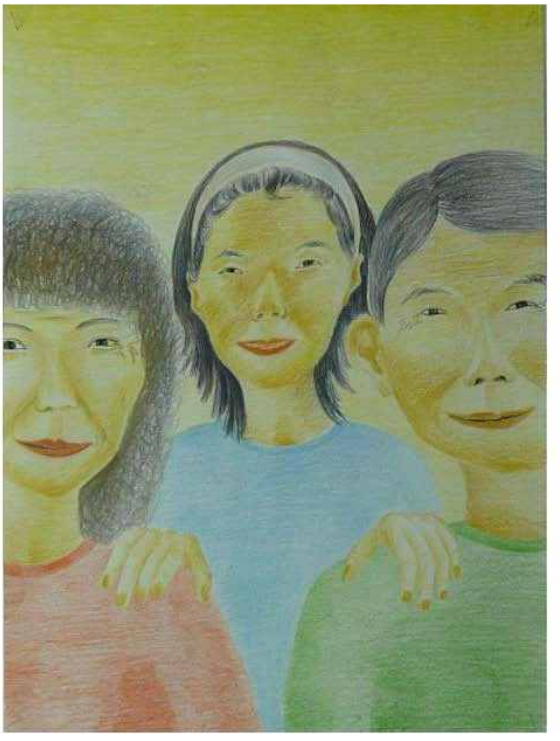
<할머니의 밤>
오일파스텔과 연필, 2절, 2007

포~포~주무시는 김구남 할머니.

<무당벌레> 수채, 2절, 2007

-엄마의 모자 위에 무당벌레가 앉았네.

<부드러운 엄마와 뾰쪽한 나> 재활용비누, 15*15*22cm, .2007



<엄마 아빠와 나> 색연필, 3절, 2007

-이젠 내가 엄마아빠의 뒤에 있고 싶다.

<내 방> 오일파스텔, 3절, 2007

-내 방엔 문이 두 개라서 그런지 통로와 같다.
오빠와 엄마의 스킨로션까지 버젓이 등장했다

<삼계탕> 오일파스텔과 색연필, 2절,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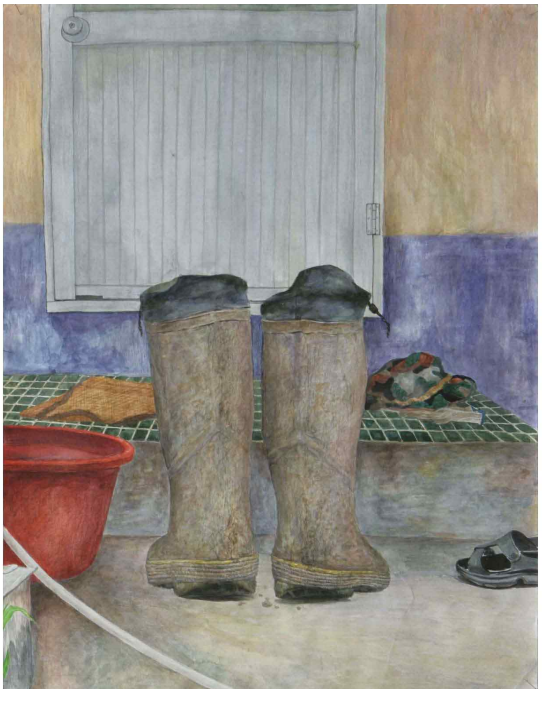
- 여름에 집에 가면 삼계탕을 끓여주신다.

<밥그릇 싸움> 다양한 곡물과 풀, 2절, 2007

"모가지를 뚝 띠어브러~~"
"그려, 모가지를 뚝 띠어브러야지~~!!"
오늘도 아빠와 감새는 씨름 중이다.

<손톱> 수채화, 3절, 2007

-아빠의 손톱을 너무 늦게 깎아드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거운 장화> 수채, 2절, 2007

-아빠의 장화를 신고 터덜터덜 걸으면
어느새 큰 장화가 날 이끌고 간다.

<일기장-들여다보기> 먹물, 4절, 2007

<불이야~> 아크릴물감, 3절, 2007

-불은 나를 맛있게 바라보고 있었겠지.

<자화상> 수채화, 3절,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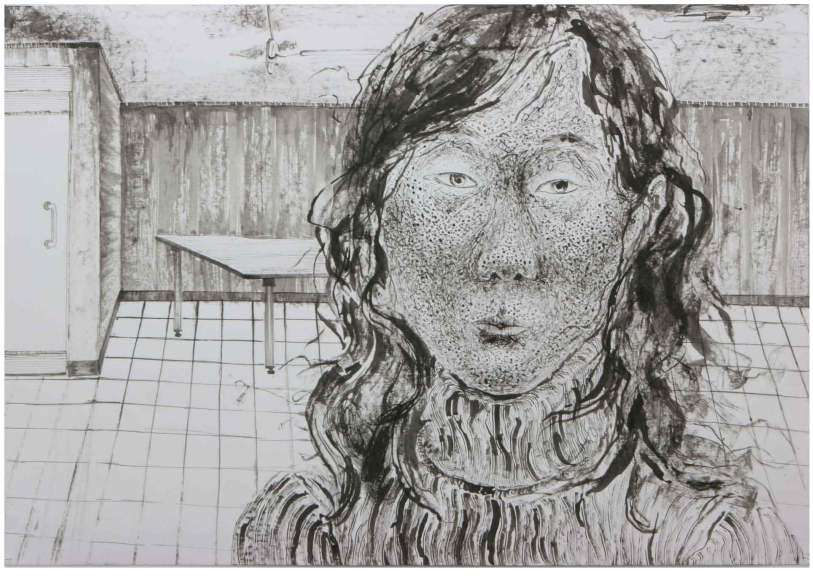
-나의 마지막 모습.

<자화상> 연필, 3절, 2007

-왜소한 나.

<자화상> 아크릴물감, 4절, 2007

-파란색과 노란색의 겹침 예쁜 녹색과 대조되는 나.



<자화상> 먹물, 3절, 2007

-처음으로 거울을 보지 않고 나를 그려 보았다.

<구두> 수채, 3절,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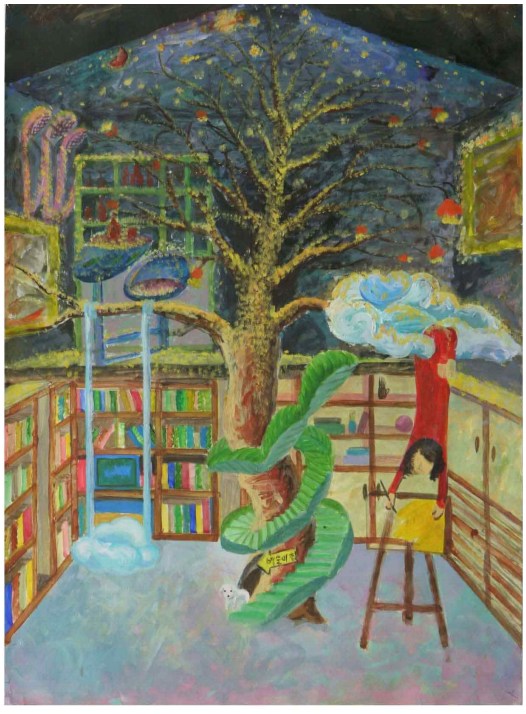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
높은 구두를 신고 싶다.

<꿈> 오일파스텔, 3절, 2007

-꿈속에서 나는 우주까지 날아올랐다.

<돌 잔치> 오일파스텔, 3절, 2007

-어릴 적 돌 잔치를 하지 못했던 나에게 주는 선물~



<나만의 작업실> 아크릴물감, 3절, .2007

-내가 꿈꾸는 나만의 작업실!

<작업실>
하드보드지, 솜, 나뭇가지, 낚시줄 등,
40*50*75cm, 2007

-내가 꿈꾸던 작업실을
입체로 만들어 보았다.

<작업실> 부분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1)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는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서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었던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2) 포트폴리오와 에듀팟

포트폴리오 제작 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운영되는 에듀팟(http://www.edupot.go.kr/)과 교육기술과부와 창의인성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창의인성 교육넷(http://www.crezone.net/)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에듀팟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담임교사와 학교 업무관리자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승인 요청이 되며 승인 이후에 에듀팟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에듀팟 주요메뉴

영 역		기 록 내 용
자기소개서	중학교	인생의 좌우명, 가족소개, 나의 장점 3가지, 좋아하는 과목, 존경하는 사람, 장래희망 등
	고등학교	인적사항, 성장과정, 가족환경, 역경극복사례, 지원동기, 향후 학업 및 진로계획, 장단점(진학용, 취업용)
자율활동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특색활동(범교과학습 등)
동아리활동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
봉사활동		교내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
진로활동		진로상담,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자격증 및 인증(고등학생 기술자격증)
방과후학교활동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방과후학교(교과, 특기적성 등) 활동
진로심리검사		커리어넷과 연계하여 직업적성, 직업흥미,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검사
부가서비스		쪽지보내기, 개인일정관리

일부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 에듀팟에 기재된 포트폴리오를 서류 제출 목록으로 반영하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이다. 에듀팟은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기록이 될 수도 있으나, 획일화된 형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또한, 고2, 3학생의 경우 이전의 자료 관리에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에듀팟의 주요 메뉴와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공통 기준을 참고하여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 지표 및 내용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활동	독서량 / 내용 이해도 등
	자격증 및 인증	자격증 및 인증 획득 목적, 분야, 활용계획 등
	진로탐색체험활동	진로·체험 활동의 영역 / 참여의 적극성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에서의 역할 / 참여도 및 성실성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의 내용 등
	방과 후 학교 활동	동기와 목적, 소감 / 참여 분야 및 참여 정도

3)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일부러 시간을 할애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에서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연스럽게 제작되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수험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자신의 열정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녹여내어 이를 보고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에게 자신을 설득시키는 근거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구성

	내 용	유 의 사 항
목차	포트폴리오의 목차	전체 내용이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미래 목표를 위한 노력과정 -지원동기와 준비과정	-나만의 개성, 특수성 발견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서술 -과정을 잘 드러내기

	내 용	유 의 사 항
	-학업계획 등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내용 기술 -명료한 표현
전시 감상문	전시제목, 기간, 장소, 전시내용, 자신의 감상 등	-실제로 느낀 점과 의견, 의문점 -구체적으로 작성
독서 노트	책 제목, 읽은 날짜, 관련교과 혹은 영역, 저자, 감명 깊은 부분, 전체 내용 요약, 자신의 의견 등	-미술 관련 서적 및 인문학 서적 -구체적인 관심사 포함
활동 노트	-강연, 대회, 행사 참여내용 -진로 탐색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방과 후 학교 활동 등	-창의적 체험 활동 시스템 활용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 정리하여 활용

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자아성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이 학교에 입학하여 학습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글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당위적 설명(telling)을 하기보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로 접근하여 논거, 사례, 일화와 체험 등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보여주는(showwing)방식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입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2011학년도

(1)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2)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 왔는지 기술하세요.
(3)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4)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과 교내외 활동을 서술하세요.
(5) 자신의 미래 목표를 위하여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 극복 사례, 그리고 목표를 세웠던 동기에 대해 서술하세요.

2012학년도 대교협 공통 문항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교내외 활동 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기술하세요.

2012학년도 기준 학교별 문항

학교명 (가나다 순)	문 항	분 량
경희대	1. 지원자의 환경(가족, 학교, 지역, 국가 등)이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2. 다음 두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V표한 후 답하시오. □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자질(성격 또는 재능)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3. 지원 학과(부)에 진학하기 위해 기울인 학업적 노력과 다양한 활동(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기타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1,500자 이내
	4. 해당 학부(과)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고려대	1.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외에서 실행한 자기주도적 활동(학습 활동 또는 교과 외 활동 등)을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2. 고등학교 생활에서 자신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느낀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3.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 또는 교외에서 자신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학교명 (가나다 순)	문 항	분 량
	4.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5. 고등학교 재학 중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국민대	1. 자신의 성장과정과 이러한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2.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교내외 활동 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3.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4.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보람)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부분이 성장하였는지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5.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교내외에서 활동한 내용(활동명, 활동기간 포함)을 요양 기술하세요.	700자 이내
서울대	1. 지원동기와 진로 계획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교가 특기자 전형에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고등학교 재학 중에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고등학교 재학 경험이 없거나, 졸업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됩니다.)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000자 이내
	3. 학내·외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3개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활동별로 띄어쓰기 포함 700자 이내
	4. 다음 주제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자신의 장단점이나 특성 □ 특별한 성장과정이나 가정 환경(생활여건 등) □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학교명 (가나다 순)	문 항	분 량
	위한 노력	
	5.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행을 준 책을 순서대로 3권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읽은 책 중에서 선택해야 함, '선정 이유'에는 단순한 내용 요약이나 감상보다는 읽게 된 계기, 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이 책이 자신에게 준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됨)	도서별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서울시립대	1. 지원자의 성장과정과 교육환경(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 대해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지원동기와 관심분야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 대해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3. 입학 후 학업계획과 향후 진로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4.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경험했던 가장 유의미한 교내외 활동을 기술하세요.(본인의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및 결과 등)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5. 다음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하오, 이를 활용하여 이루어낸 성취가 있다면 기술하세요.(①리더십 ②공동체 의식 ③의사소통능력)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연세대	1. 지원가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의 활동(봉사, 임원, 동아리, 연구, 취미, 기타 활동 등)을 선택하여 3개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위의 활동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하나를 선택하고, 그 활동 경험이 지원자 개인 또는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의 역할과 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기술하십시오.	표 제시
	2. 지원자가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 이루고 싶은 장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지원자의 개인적 자질 중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자질(학업능력 제외)에 대해 설명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 그 자질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 구	

학교명 (가나다 순)	문 항	분 량
	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4. 다음 두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를 한 후 답하십시오. □ 지원자의 개인적 환경(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환경적 특성이 지원자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경험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지원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와 좌절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가치에 대해 경험적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중앙대	1. 자신의 성격, 가치관, 태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600자 이내
	2. 자신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장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800자 이내
	3. 고등학교 재학시절 중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구체적인 과정과 결과가 나타나도록 기술하시오.	1,000자 이내
한국외대	1.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시오.	600자 이내
	2.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기술하시오.	500자 이내
	3.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00자 이내
	4.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경험과 교내·외 활동을 서술하시오.	500자 이내
한예종	1. 자신에 대한 소개 (학창시절의 교내외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	문항별 1,000자 이내
	2.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 왔는지 기술하시오.	
	3. 미술 또는 지원 분야와 관련된 서적으로 인상 깊었던 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4. 장래 희망에 대해 기술하시오.	

학교명 (가나다 순)	문 항	분 량
홍익대	1. 자신의 성장과정과 이러한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
	2.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교내외 활동 중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기술하세요.	1,000자 이내
	3. 입학 후 학업계호기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
	4. 자신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이 성장하였는지 기술하세요.	500자 이내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침들이 있다.

자기소개서 유의 사항

○ <u>남과는 다른 나를 드러내야 한다.</u>

자기가 잘 드러나는 글이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이다.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특별함을 보여주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과장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말을 꾸며서는 안 된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 감정을 절제하며 자신의 모습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서술한다.

○ <u>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u>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지만 자기 주관에 휩싸여 서술하면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비록 자신의 이야기일지라도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진솔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솔직하며 진실한 자기 기록이어야 한다.

○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자기 실적의 나열이 아닌,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를 맞거나 실패를 한 경험도 소중하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이 성숙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은 물론 신뢰감을 줄 수 있다.

○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성장과정, 학습경험, 교내외 활동, 지원동기, 진로계획, 장래희망 등은 각각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해야 논리적 설득력을 가진다.

○ 표현이 명료해야 한다.
장황하게 나열한 장문, 표현에 군더더기가 많은 것, 진부하고 상투적인 문장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 문장이 단순 명료하고 표현이 명료하여 진실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설득력이 높은 글이 좋은 글이다.

(출처: 에듀팟)

자기소개서 작성의 유의점

1. 학부 또는 계열로 모집하는 경우는 먼저 전공 학과를 선정해야 한다.
2. 근거 없는 과시는 금물이다.
3.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라.
4.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5. 자기의 강점이 잘 드러나도록 하라.
6. 단점도 솔직하게 기술하라.
7. 장황한 표현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라.
8. 애매모호한 표현은 피하고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라.
9. 자기소개서상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
10.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번 수정을 하라.

(출처: 메디치 연구소 참조)

② 전시 감상문

전시관을 방문하여 실제 작품을 감상·비평하는 활동은 작가가 창작한 것을 통해 감동을 느끼는 동시에 작품을 해석하고 분석하며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도록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과 다르다. 전시 전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통합적인 사고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미술 감상·비평의 4단계

단계	내용	방 법
1	기술	객관적인 특징을 적는다.
2	분석	색, 선, 질감, 형태 등의 조형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관찰하고, 율동, 균형, 비례, 강조, 통일 등의 조형 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열거한다.
3	해석	앞에서 기술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가의 편지, 일기, 인터뷰, 신문 기사 등 참고 자료를 조사해보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 미술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다.
4	판단	감상자가 작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출처 : 2011년도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참고-교학사 66~67쪽, 지학사 70~71쪽, 미진사 70~72쪽, 천재교육 70~71쪽

미술 감상·비평의 4단계와 다음을 참고하여 전시 전체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전시감상문에 작성하도록 한다.

- ○ 전시장 이름, 전시 기간 및 관람일자, 전시 내용, 인상 깊었던 것, 나에게 준 영향 등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 반드시 자신이 직접 관람한 전시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 ○ 추상적인 감상보다는 실제로 느낀 점과 구체적인 의견, 의문점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③ 독서 노트

독서는 교양과 상식을 넓히고 자신의 전공과 미래의 꿈을 간접 경험하는 활동이다. 독서 활동은 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고 대입에 반영하는 교과외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 등에서 읽은 책 소개하기(3~5권)를 요구하고 있다.

독서 활동은 에듀팟 또는 시·도 교육청의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http://www.reading.go.kr/)에 기록할 수 있다. 에듀팟에는 도서명, 저자, 독후 활동 구분과 독후 활동을 선택하여 기록한다.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독후 활동 내용들을 대입 전형 포트폴리오로 만든 후 에듀팟 또는 독후 활동에서 '생성' 아이콘을 눌러 자신의 독후 활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시스템에 기록하는 독서 활동은 교사의 승인·보완 기능이 없다.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http://www.reading.go.kr/) 기록의 예시

1단계 :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메인 화면

2단계 : 독서 교육 지원 시스템 안내

3단계 : 독서 검색 창에서 독서 검색 가능

4단계 : '회화·조화'를 검색할 경우 뜨는 도서 찾기의 예

에듀팟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도서명, 저자, 독후활동일자 등을 먼저 적은 후, 책을 읽게 된 동기, 작가에 대한 이해, 책의 내용, 인상적인 부분, 느낀 점, 다짐 등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기록한다. 하나의 독서 활동은 포트폴리오를 생성했을 때 한 페이지 안에 작성될 분량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읽지 않은 책을 검색하여 베끼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므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독서는 스스로 읽고 교양과 전공의 깊이를 더하는 행위이다.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독서가 쌓이면 사고력이 향상되고 발표, 면접과 토론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관심 분야의 책 뿐 아니라,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꾸준히 읽으며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④ 활동 노트

활동 노트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체계

영 역	성 격	활 동
자율 활동	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율적 활동을 추진하고, 학생은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적응 활동 – 자치 활동 – 행사 활동 – 창의적 특색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한다.	– 학술 활동 – 문화 예술 활동 – 스포츠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봉사 활동	학생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교내 봉사 활동 – 지역 사회 봉사 활동 – 자연환경 보호 활동 –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활동	학생은 자신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한다.	– 자기 이해 활동 – 진로 정보 탐색 활동 – 진로 계획 활동 – 진로 체험 활동 – 진로 체험 활동 등

출처: 『진로 설계와 창의 체험 활동 전략』, 261쪽

<창의적 체험 활동의 내용 체계>와 <영역별 세부 활동>을 참고하여 에듀팟에 성실히 기재하고 관련 사진이나 증명서 등을 자료화하여 관리하면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미술활동보고서나 활동 노트 등의 형식에 맞게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영역별 세부 활동

영 역	성 격	세부 활동 내용	
자율 활동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	적응 활동	입학, 진급, 전학,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축하, 친목, 사제동행, 학습, 건강, 성격, 교유 등의 상담 활동 등
		자치 활동	학급회, 학생회 협의 활동, 모의 회의, 토론회 등
		행사 활동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 경연 대회,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체육 대회, 수련 활동, 현장 학습, 수학여행, 문화 답사, 국토 순례 등
		창의적 특색 활동	학생·학급·학년·학교·지역 특색 활동, 학교 전통 수립·계승 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내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집단 활동	학술 활동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컴퓨터, 인터넷, 신문 활용, 다문화 탐구
		문화 예술 활동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 예술, 현대 예술,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등
		스포츠 활동	구기,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 하이킹, 야영,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택견, 무술 등
		실습 노작 활동	요리, 수예, 꽃꽂이, 조경, 사육, 재배, 설계, 목공, 로봇 제작 등
		청소년 단체 활동	스카우트 연맹, 걸스카우트 연맹, 청소년 연맹, 청소년 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영 역	성 격	세부 활동 내용	
봉사 활동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해, 협동 의식의 고취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	교내 봉사 활동	학습 부진 친구,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 가정 학생 돕기 등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복지 시설, 공공시설,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볼우 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자연환경 보호 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저탄소 생활 습관화, 공공 시설물, 문화재 보호 등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등
진로 활동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자기 이해 활동	자기 이해 및 심성 계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 활동, 각종 진로 검사 등
		진로 정보 탐색 활동	학업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학교정보 탐색, 학교 방문, 직업 정보 탐색, 자격 및 면허제도 탐색, 직장 방문, 직업 훈련, 취업 등
		진로 계획 활동	학업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설계, 진로 지도 및 상담 활동 등
		진로 체험 활동	학업 및 직업의 세계의 이해, 직업 체험 활동 등

출처: 『진로 설계와 창의 체험 활동 전략』, 261~2쪽

입학사정관제 포트폴리오 예시

목 차

1. 자기소개서

2. 미술 전시 감상

<'읽는 사진, 느끼는 사진'>,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본관, 2009
<핀홀카메라가 찍은 '물의 기억'>, 류가헌, 2010
<워킹 맘마미아>, 여성사전시관, 2010
<평범한 이방인>, 아트선재센터, 2011
<Project, Parts and Layers>, 원 앤 제이 갤러리, 2011
<서울, 침묵의 풍경Ⅱ>, 성곡미술관, 2011

3. 독서 노트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그 남자의 가방
진실된 이야기
아웃사이더 아트
반 룬의 예술사
길 위의 미술관

4. 활동 노트

진로탐색활동

1. 자기소개서

(1)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대학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만나 애정을 꽃피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술을 전업으로 하시지는 않았지만 집에는 부모님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저와 동생 네 식구 모두가 그 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놀이를 하거나 종이접기를 하는 등 각자의 놀이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비슷한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경제 활동으로 바빠지시면서 부모님의 작업실은 제 방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쓰던 방에 있는 시간보다 그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 놀다가 잠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가득 차 있던 캔버스와 물감 대신 제가 그린 그림과 벽의 낙서, 여기저기에서 모아다 놓은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그 방에 있을 시간이 줄어갔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도 다양한 학습시설들로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수학, 영어를 잘 하기 위해 학원을 다녔고, 논술을 잘하기 위해 독서방과 논술학원을 다니며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올라도 그리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눈을 마주칠 시간도 없었고, 제 안식처가 되었던 그 방에 점점 먼지가 쌓여갔지만 치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참여하시는 전시회에 초대되어 사진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에서 열렸던 '읽는 사진, 느끼는 사진'(2009)전시였는데, 수많은 사진들 속에 엄청나게 다양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근했던 물감냄새 나는 캔버스는 아니었지만, 크고 작은 화면 안의 놀라운 세계와 신비로운 색감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어졌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설거지/세탁기 돌리기/거실 청소/빨래 개기 등 가사노동 항목에 따라 가격을 정한 표를 어머니께 제시하였고, 곧 가사노동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쯤에는 제가 벌어서 산 카메라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제 보물 1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를 가든 항상 카메라와 함께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풍경을 만나게 되면 바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본 세상은 입시교육에 지친 평범한 고등학생의 시선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 지원동기와 지원한 분야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 왔는지 기술하세요.

저는 시각에 무척 예민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앞머리를 조금만 잘라도, 선생님이 슬리퍼를 바꾸셔도, 엄마가 립스틱 색을 바꾸셔도, 무척 큰 홀의 중앙에서 저 구석의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어도 모두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저는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분야에 대해 항상 새로운 발견을 해냅니다.

현대의 미술은 다양한 예술 장르와 삶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작가조사와 전시를 통해 미술의 폭넓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 캔버스에 파묻혀 놀며 자유롭게 자라난 저에게 미술은 획일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벗어나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자 자유로운 사고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표현방법으로 그리는 그림을 반복하는데 시간을 쓰는 대신, 다양한 경험과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미술 전공 서적을 읽으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판이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작품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고, 본문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다른 설명을 찾아서 보고, 흥미로운 작품이 있으면 그 작가의 다른 작업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책 한권을 통해 더 많은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볼 때에도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유명하고 큰 전시보다는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매체나 주제와 관련된 전시를 찾아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술이라는 큰 분야의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미술관련 직업들에 대해 탐색하는 '직업탐색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이라는 것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알 수 있었고, 작가라는 직업 외에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것은 미술작가이기 때문에 작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학교 탐방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내외의 다양한 공간에서 제가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해

보기도 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3)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

현재 관심이 있는 것은 그림과 사진입니다. 그림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그려왔던 익숙한 표현방법이고, 사진은 전시 관람을 계기로 흥미를 가지게 된 후 제 카메라를 소유하게 되면서 친숙해진 매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미술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작가들을 공부하면서 제 작품세계도 넓혀나가고 싶습니다.

입학하면 조각, 소조, 설치, 비디오, 판화, 도자 등 다양한 매체를 공부하고 실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작품에 따라 무엇이든 선택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실기과목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 미학, 철학, 역사 등도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4) 고등학교 재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과 교내외 활동을 서술하세요.

처음 '반 룬의 예술사'를 읽을 때 너무 양이 많아서 읽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짧고 쉬운 책만 읽어버릇했던 독서 습관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고,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관심이 있던 친구 두 명에게 제안하여 일주일동안 매일 모여서 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들을 설득하긴 했지만, 736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정말 꼼꼼히 읽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는 시간을 정하고, 하루 동안 읽을 양을 정하고, 읽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밑줄 긋고 소제목별로 내용을 요약하면서 친구들과 서로 비교하고 점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는 부모님의 작업실이었던 방으로 정했습니다. 첫날 '01프롤로그'~'06그리스예술'까지 진도를 나가는데 네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원망했고, 그만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츰 재미가 붙었고, 읽는 양도 늘어갔고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기간인 일주일은 조금 넘었지만 8일 만에 책을 다 읽어나갔습니다. 제가 스스로 주도해서 함께 할 친구를 선별하고 설득하고 함께 의논해서 규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경험은 이후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추진할 때 정말 큰 자신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저는 미술중점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의 복도 갤러리나 외부의 작은 기획전시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교류하여 함께 모둠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다니시는 노인정에 제가 그린 그림을 선물하여 걸어두기도 했고, 교회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제가 주도하여 친구들과 함께 꾸미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해야 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제가 미술로 주변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5) 자신의 미래 목표를 위하여 노력했던 과정과 역경 극복 사례, 그리고 목표를 세웠던 동기에 대해 서술하세요.

저는 미술로 세상을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의 작업실에서 누렸던 무엇인지 모를 풍요로운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미 정해진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느라 갑갑하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미술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술이 그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학교 3년 내내, 그리고 고등학교의 초반까지도 불안한 마음에 다른 친구들처럼 해야 하는 공부만 억지로 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나마 좋아하는 것이 생겼고, 그랬더니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그랬더니 스스로 해낼 힘이 조금씩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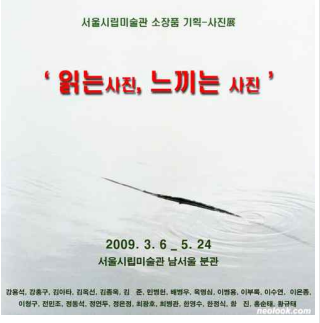
중학교 3년 내내 학교-집-학원을 오가느라 잠도 잘 못자고 몸도 안 좋아지고 성격도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는 열등감이 느껴지고,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과는 만나기 싫어서 결국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친구 하나 두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술을 하고 싶은 마음에 미술중점학교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서 불안하고, 공부를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신경성 위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 링거를 맞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생기는 바람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생겨났고, 정말 오랜만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미술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좋아하는 것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술을 하는 방법이 가만히 앉아서 정해진 그림만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입시미술' 준비만이 아니라 좀 더 활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같은 그림만 반복해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고 싶은 전시를 찾아서 보고, 미술 전공 책을 읽고, 또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나가면서 저는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도 집중이 잘 되었고 성적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능률도 오르고 아무리 계속해도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해야겠습니다. 지금의 목표는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인데, 사실 아직은 좋은 작가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미술에 대해 더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 공부를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하고 싶습니다. 이 학교의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분명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 미술 전시 감상

내가 본 미술 전시		
	**전시제목**	'읽는 사진, 느끼는 사진'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전시기간	2009년 3월 6일~5월 24일
	관람날짜	2009년 4월 5일
참여 작가	강용석, 강홍구, 김아타, 김옥선, 긴종욱, 김준, 민병헌, 배병우, 육명심, 이병용, 이부록, 이수연, 이은종, 이형구, 전민조, 정동석, 정연두, 정은정, 최광호, 최병관, 한영수, 한정식, 함진, 홍순태, 황규태	
내가 본 전시	작가 25명의 102점이 전시된 큰 사진전시였다.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해준 전시였다. 서로 다른 많은 소재와 주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꿈을 사진으로 환상적으로 표현한 정연두 작가님의 사진이나 벌거벗은 사람이 유리상자에 들어있는 김아타 작가님의 사진, 얼굴이나 몸에 도구들을 장치하고 찍은 이형구 작가님의 사진 등은 사진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사물이나 풍경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만든 세상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써 사진이 사용된 것 같았다. 작가가 만들어낸 세상을 보여주는 창으로서의 사진이라는 것이 정말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왔다. 실재 조각이나 설치로 보게 될 때와 사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때 어떤 차이점이 또 생길까? 미술의 표현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 싶어지게 만든 전시였다.	

내가 본 미술 전시

전시제목	워킹 맘마미아
전시장소	여성사전시관
전시기간	2010년11월 4일 ~ 12월 15일
참관날짜	2010년 12월 2일

참여작가	김인순, 류준화, 박영숙, 윤석남, 윤희수, 이피, 정정엽
전시 소개글	특별기획전 '워킹 맘마미아: 그녀들에게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전은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7명이 참여하였다. 역사 이전 신화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과 가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온 수많은 여성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를 보고자 한다. 작품을 통해 일하고 살림하고 돌보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온 여성들을 만날 수 있으며,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의제를 기존의 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는 뛰어난 심미적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내가 본 전시	[길 위의 미술관]을 읽고, 외국의 유명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여성작가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마침, 여성사전시관에서 우리나라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전시를 한다고 하여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되었다. 긴 댕기머리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검정비닐 설치물과 거울의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해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놓은 설치 작업 등은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기존과 같은 그림이 많은 것 같아서 외국의 여성 작가들의 다양성이나 적극성, 용감함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또한 젊을 때 작업이 노년이 되어서도 거의 그대로 반복되어 온 작가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후대가 이러한 아쉬움을 극복하는 더 멋진 작업들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며 힘을 내어 보았다.

내가 본 미술 전시

전시제목	평범한 이방인
전시장소	아트선재센터
전시기간	2011년 4월 9일 ~ 5월 1일
참관날짜	2011년 4월 25일

작가 조사	김홍석 (1964년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독일 뷔셀도르프쿤스트아카데미 졸업 -광주 비엔날레, 베니스 베엔날레, 워커아트센터, 모리미술관, 이스탄불비엔날레 등 국내외 전시 다수 -현재 상명대학교 공연영상미술학부 교수05) 네이버 캐스트 http://navercast.naver.com/korean/artist/1240
전시 내용	전시장에는 다섯명의 퍼포머가 의자에 앉아 있다. 그 앞에는 관람객들이 앉을 의자들이 놓여있다. 관람객이 의자에 앉으면 퍼포머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세 명은 여성이고 두 명은 남성이다.
내가 본 전시	전시장 입구에서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퍼포머는 비교적 어려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작가가 구상한 작품을 설명해주었고,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이야기만을 듣고 그 작품을 상상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여성 퍼포머는 작가가 구상한 작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세 번째 퍼포머는 중성적인 느낌의 여성 퍼포머였는데, 역시 작가가 상상한 작품을 이야기해주었다. 네 번째 남성 퍼포머는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의 비판적인 관점이 느껴졌다. 다섯 번째 남성 퍼포머도 작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성은 작가의 상상을 그대로 전달만 하고, 남성은 작가의 입장과 주장을 대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작가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별로 정확히 나뉜다는 점이었다. 작품을 물질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게 한다는 점은 좋았는데, 성별의 역할 구분이 뭔가 찜찜한 전시였다.

내가 본 미술 전시

<table>
<tr><td rowspan="4"> </td><td>전시제목</td><td>Projects, Parts and Layers</td></tr>
<tr><td>전시장소</td><td>원 앤 제이 갤러리</td></tr>
<tr><td>전시기간</td><td>2011년 5월19일 ~ 6월 19일</td></tr>
<tr><td>참관날짜</td><td>2011년 6 월 18일</td></tr>
<tr><td>작가 조사</td><td colspan="2">Nikki S. Lee. (한국이름: 이승희)(1970~)
-뉴욕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미술작가 겸 감독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유학 후 New York University에서 사진 전공
-1999년부터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장기 프로젝트 사진 작업을 함</td></tr>
<tr><td>내가 본 전시</td><td colspan="2">전시장은 3개 층으로 나뉘어 있었고, 작업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지하층의 사진들은 작가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시리즈인데, 여피족, 펑크족, 스트립댄서, 레즈비언 등으로 분장하여 찍은 사진이다.
중간층에는 다양한 나라의 화가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고 그리게 한 그림들과 그것을 겹쳐놓은 작업, 맨 위층에는 애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사진인데, 애인이 잘려나가고 없는 사진이다.
지하층의 사진을 보면 신디셔먼의 스틸컷들이 떠오르는데, 신디셔먼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신디셔먼이라는 작가가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니키 리는 니키 리가 역할놀이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 층의 그림들은 무엇을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세 번째 층의 사진에서는 잘려나간 사람들이 거의 백인 남성처럼 보이는데, 그 옆에서 매우 사적인 옷차림이나 포즈로 있는 동양의 여성이 조금 불편했다. 백인 남성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양의 사랑스러운 여성을 연기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글을 보아도 알 수가 없었다.
현대미술은 관객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작가가 아무리 글로 자신의 의도를 써놓아도 관객이 동의할 수 없으면 좋은 작업은 아닌 것 같다.</td></tr>
</table>

내가 본 미술 전시

전시제목	서울, 침묵의 풍경Ⅱ
전시장소	성곡미술관
전시기간	2011년10월14일 ~ 11월27일
참관날짜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작가 조사	안세권(196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조형예술과 매체전공 졸업 -개인전 5회 (서울) -그룹전·국내외 60여 회 -성곡미술관 2010 내일의 작가 선정, 서울, 뉴타운 풍경(2009) -가나아트갤러리 신진작가공모전 대상 수상(2005) 안세권 작가 블로그 www.ahnsekwon.com
내가 본 전시	서울의 재개발로 인해 사라진 삶의 공간들을 10년 동안 작가가 기록한 사진들. 월곡동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밤에 같은 풍경을 찍어 주민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불빛들이 사라져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시민들의 공원이 된 청계천도 공사를 위해 파헤쳐진 현장을 사진을 통해 보니 뭔가 끔찍하고 슬퍼보였다. 도시의 재개발이라는 것이 마냥 화려하고 멋지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잃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슬픈 모습을 너무나도 예쁘고 크고 화려하게 사진에 담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도 재개발이라는 것이 그런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작가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3. 독서 노트

내가 읽은 책		
	책제목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
	출판사	학고재
	출판일	2006년 7월 31일
	읽은 날짜	2010년 5월 13일~ 5월 15일
지은이 조사	김치샐러드(윤명진) 문예창작과를 공부하다 말고 방송국, 잡지사 등에서 일하다가 미술로 진로를 결정하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하다가 그림에 대한 소개 블로그를 시작함. 많은 방문자수와 스크랩으로 주목받다가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 '네이버붐' 등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짐. 게맛살로 만든 인체조형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음.	
내가 좋아하는 구절	* 우리는 '무목적성의 고리'를 깨어버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일컫는다..(덧글 중) * "셔츠를 찾으려고 옷장을 열다가 사자를 발견하는 마술과 같은 놀라움, 그것이 초현실주의다."(프디라칼로)	
책의 내용	밀레이, 고흐, 뭉크, 퓌슬리, 브뢰겔, 마그리트, 쿠르베, 아르첸, 라 트르 등의 그림을 작가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과 그림을 보아야 살 수 있는'아귀'의 대화로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나의 생각	지은이가 미술을 전공한 것이 아니어서 더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책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작품을 접하고 공부했다는 지은이는 블로그에 올렸을 때 남긴 사람들의 댓글도 책에 옮겨놓았는데 그림에 대한 지은이의 해석에 대해 무조건적인 동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도 있어서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았다. 지은이가 블로그를 운영했던 때로부터 한참 지난 후, 책이라는 형식으로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블로그를 보았다면 나도 그림에 대한 해석과 상상으로 댓글 소통과 논쟁을 했을텐데... 물론, 실제로 명화를 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명작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싸이트들을 소개해주는 것도 이 책의 좋은 점 같다.	

내가 읽은 책

책제목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출판사	현실문화연구
출판일	2006년 3월 10일
읽은 날짜	2010년 10월 27일 ~ 10월 30일

지은이 조사	저자 메리 앤 스타니스제프스키(MARY ANNE STANISZEWSKI) -미술사가로서 미국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전자예술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 -저서로는 《THE POWER OF DISPLAY: A HISTORY OF EXHIBITION INSTALLATIONS AT THE MUSEUM OF MODERN ART》(1998), 《DENNIS ADAMS: THE ARCHITECTURE OF AMNESIA》(1990) 등
역자 소개	박이소 -홍익대학교와 미국 프랫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 -미국에서 '박모'라는 이름으로 33회의 크고 작은 전시에 참여했으며, 대안공간인 '마이너 인저리 MINOR INJURY'를 운영 -1994년 귀국해 SADI 교수를 역임했으며, 1997년 광주비엔날레와 2003년 베니스비엔날레, 2004년 부산비엔날레 참여작가로 활동 -2001년에 대안공간 '풀' 개인전과 2002년 에르메스상 수상기념전 등 -국내외에서 한창 주목을 받고 있던 2004년에 작고 -번역서로는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외 《문화연구와 문화이론》(존 스토리 지음, 현실문화연구, 1999)
책의 내용	미술에 대한 오래된 편견과 신화 뒤집기.
나의 의견	이 책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작가가 무엇을 해야할지..'와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미술이 특정한 사람들, 혹은 아주 소수만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내가 미술에 대해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일반인은 미술을 잘못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해버리기 쉬운 것 같다. 미술에 대해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앎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들을 싣고 바로 밑에 '이것은 미술이 아니었다', '이것도..'로 나를 쇼킹하게 했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읽은 책

책제목	그 남자의 가방
출판사	현대문학
출판일	2004년 3월 2일
읽은 날짜	2010년 11월 13일~ 11월17일

지은이 조사	**안규철(1955년~)**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사진, 조각, 글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사회비판적 시각의 개념미술을 보여주어 왔다. 그는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절제된 오브제(object)의 서사적 차용으로 특징지어 지는 독특한 개념미술 경향의 선두주자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 미술가란 본래 손의 노동으로 생각을 펼치는 사람,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 언어로는 덮어지지 않은 어떤 고유의 부분이 있음으로써 미술작품은 존립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책의 내용	모두 11점의 드로잉과 그에 상응하는 글, 그리고 글의 중심 소재인 가방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미지의 남자가 맡기고 간 날개모양의 가방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머리, 손 발, 집, 의자, 가방 등의 사물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시작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껍질과 속, 잃어버리가와 잃어버리지 않기 등 서로 대응하는 생각(개념?)들을 문학적으로 풀어나간다.
나의 생각	어릴 적, 엄마를 따라 전시회에서 하얀 날개모양의 가방과 검정 모자 등을 본 기억이 있다. 기억은 잘 안나지만, 조용히 구경만 해야했던 다른 전시회를 보러 갔을 때와는 달리 주머니같은 긴 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허공에 떠 바닥이 뚫린 집 같은 곳을 돌아다닐 수고, 수많은 문이 있는 방들을 드나들 수도 있어 재미있었던 것 같다. 그 전시회의 작가가 쓴 글 또한 미술작품이라고 했다. 바로 '그 남자의 가방'이다. 책을 읽고야 그때 그 가방이 무엇인지, 미술이라는 것이 작가의 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관객을 상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확히 모두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책을 읽은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경험이다.

내가 읽은 책

책제목	진실된 이야기
출판사	마음산책
출판일	2007년 1월 26일
읽은 날짜	2011월 2월 10일 ~2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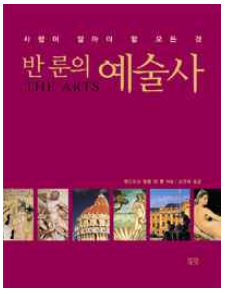
지은이 조사	**소피 칼** 사진가, 설치미술가, 개념미술가. 26세에 처음 사진을 배우게 된 그녀는 1979년 우연히 만난 한 남자의 일상을 카메라로 추적한 작품 <베니스에서의 추적>을 만든다. 1980년 11회 파리 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 <잠자는 사람들>로 유명해진다. 사진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소피 칼의 작품들은 '사진 – 소설' 형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04년 프랑스 퐁피두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으며,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프랑스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었다. 대표작으로는 <진실된 이야기>, <뉴욕 이야기>, <부재> 등이 있다.
책의 내용	프랑스의 대표적인 예술가 소피 칼의 자전적 에세이. '초상화'로 시작해서 '빨간 구두', '목욕가운', '넥타이' 등 일상의 사물과 사건들에 관한 29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저자가 아홉 살 때부터 마흔 아홉 살 때까지 자신의 중요한 '추억'을 사진과 글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방법은 없다.
나의 생각	이 책에서 나오는 이미지-글의 연결이 진짜인지 허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진짜인 것 같은 구체성과 그것을 증명하는 듯한 사진을 보여주면서도 진짜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소피 칼이 정말 작고, 입혀지기 쉽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이다. 소피 칼은 일상적인 사진들 옆에 그럴 듯한 이야기들을 덧붙여 사소할 수 있는 사진들을 통해 뭔가 상상하게 만든다. 미술은 항상 이미지로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책이 바로 소피 칼의 미술작업이라는 점이 너무 흥미로웠다.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정말 경계가 없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게 해 주었다.

내가 읽은 책

책제목	아웃사이더 아트
출판사	다빈치
출판일	2003년 10월 20일
읽은 날짜	2011년 5월 29일 ~ 5월 1일

지은이 조사	장 뒤뷔페 (JEAN DUBUFFET 1901-1985) 프랑스 르아브르 태생. 현대 미술에서 전통적인 미술 재료를 거부하고 '모든 버려져 있던 가치들을 새롭게 주목받도록 이끌어 낸' 여러 경향들의 선구자이다 대표적인 미술가이다. 1945년 '아르 브뤼트(ART BRUT)'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아동, 정신장애자, 정신병자, 미술계와 동떨어진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로 이루어진 전시회를 마련하고, 이러한 종류의 미술을 장려하기 위해 아르 브뤼트 컬렉션을 설립했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	예술은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침대에서 잠들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은 예술이라고 불리는 동시에 사라지기에, 익명으로 남기를 원한다. 예술의 최고의 순간은 그 이름마저 잊을 때이다.
책의 내용	'아웃사이더 아트'는 1972년에 '순수 그대로의 예술'이라는 프랑스어-아르 브뤼트-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장 뒤뷔페가 1945년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창작 작품을 조사하다 알게 된, 그들의 작품을 지칭한 말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미술 제도 바깥에서 창작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진' 작품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강한 열정과 참신성, 순수함과 솔직함이 묻어나는 이들의 작품은 분명히 '멋진' 작품들이다.
나의 의견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원의 수용자들이었고, 그들이 죽은 후에야 참대 밑과 쓰레기통 같은 곳에서 발견된 그림들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진정한 표현 욕구에 의해 창조된 작품들을 보면서 그들의 숨은 열정과 광기에 감동을 느꼈다. 일률적인 학교 교육에서 조금만 이탈하거나, 사회에서 규정하는 모습과 조금만 달라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쉬운 현대 사회에 흡수되어 형태가 흐려진 나에게 큰 자극과 용기를 주는 책이다.

내가 읽은 책



책제목	반 룬의 예술사
출판사	들녘
출판일	2008년5월6일
읽은 날짜	2011년 7월 17일 ~ 7월 19일

지은이 조사	**헨드리크 빌렘 반 룬 (네덜란드계 미국인, 1882~1944)** -코넬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 -AP통신 특파원, 서양사와 근대사 강의 -저서 : 인류 이야기, 성서 이야기, 소설 렘브란트, 반 룬의 지리학, 배 이야기: 인간은 어떻게 7대양을 항해했을까 등
내가 좋아하는 구절	* 인간이란 아무리 자신감에 넘친다 해도 신에 비하면 미약하고 무력한 존재다. 신은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말을 건다. 인간은 대답하고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다. 그 대답, 그 변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술이다. * 화가는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과 시선이 일치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표현해준다.
책의 내용	미술 뿐 아니라, 음악, 건축 등 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역사와 그에 대한 여러 관점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저자의 견해, 각 시대별 주요 작품에 대한 해설과 뒷이야기들, 각 시대별 예술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을 결정지은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알려준다.
나의 의견	미술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작가가 영감을 받아 창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예술이라는 말조차 과거에는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예술이라는 것이 탄생했는지 알게 되었다. 이 책의 원제인 "The arts"가 예술과 기술의 경계선이 없다는 말이라고 한다. 예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예술가의 역할도 계속 변화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의 예술가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내가 미술가가 된다면 나는 어떤 미술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내가 있는 곳의 역사와 사회적 인식 등의 배경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

내가 읽은 책

책제목	길 위의 미술관
출판사	이프
출판일	2007년10월14일
읽은 날짜	2011년 8월 15일~ 8월 20일

지은이 조사	**제미란**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다녔다. 페미니스트저널 《이프》의 창간부터 아트디렉터로 일하다가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8대학 여성학과에서 현대 여성미술에 관해 공부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감상도 창작만큼 창조적일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미술의 대중적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책의 내용	수잔 발라동에서 제니 홀저, 아나 엔디메타까지 이 시대의 중요한 여성 미술가 13인의 삶과 작품을 소개한 책이다. 사십 나이에 처음으로 길을 떠난 저자가 산 넘고 물 건너 자신이 사랑한 여성 미술가들의 전시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쓴 글들을 모아 엮었다. 세계적인 현대 거장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나의 생각	나는 누구인가. 날 정의하는 수많은 이름표들이 있다. 동양인, 여자, 청소년, 중산층가정. 나의 탄생을 둘러싼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 핏줄이라 불리는 것들과의 관계. 내가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이름표들은 나를 타인에게 설명해주며 내게 역할을 부여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규정한다. 나는 이 이름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며 살아왔다. 내가 받은 이름표에 따른 대우를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 너머엔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지 않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삶은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인가, 혹은 타의에 의해 살아지는 것인가. 이 책에 소개되는 작가들은, 미술이란 길 위에 올라와 그들을 옭아매는 것들로부터 탈주를 시도한다. 그것이 부조리에 대한 반항이었든, 자기 상처를 향한 애도였든, 아이러니에 주목하며 심각하고 무거워 보이는 것들의 얄팍함을 비웃기였든, 작업에서 그들은 이름표를 벗어 던지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나도 나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싶다.

4. 활동 노트

1) 진로탐색활동

(1) 2011 청소년을 위한 미술계 직업탐색 프로그램

시행기관	사비나 미술관
진 행 자	민지영 (사비나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참가기간	2011년 11월 3일 ~ 12월 22일 (8주간)

◎ 참여활동 일정

주차	일 자	강 의 주 제	시간 (24시간)	비고
1	11/3(목)	방송국에는 연출자, 미술관에는 큐레이터	2	
2	11/11(금)	미술관 선생님, 에듀케이터	2	10일 수능
3	11/16(수)	미술품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2	
4	11/23(수)	미술관 탐방 10시~12:30(전시+교육) 사비나미술관	10:00~12:30	탐방수업 차량이동
		레지던시 탐방 2시~4시(작가미팅) 고양창작	14:30-16:00	
5	11/24(목)	아티스트를 위한 기숙사, 레지던시 프로그램 매니저	2	
6	12/15(목)	미술계 역사를 자료로 기록하는 아키비스트	2	
7	12/21(수)	현장탐방1(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실)	4 (10:00-14:00)	탐방수업 대중교통
		현장탐방2(국립현대미술관 보존수복)	2 (14:00-16:00)	
8	12/22(목)	참관기, 설문조사 등 평가	2	

– 제 1주차

시 간	11월 3일(목)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주 제	**방송국에는 연출자, 미술관에는 큐레이터**	
진행자	강재현 (사비나미술관 큐레이터)	
내 용	–큐레어터Curator)의 뜻 –미술관과 화랑의 구분 –미술관 큐레이터의 역할과 전시 기획에 필요한 사항 –큐레이터의 자질과 요선	
느낀 점	전시를 한다는 것이 단순히 전시 공간에 작품을 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큐레이터는 전시의 중심이 되어서 전시, 홍보, 교육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중요한 직업이다. 또한 미술사나 미술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다.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있다면 꼭 미술작업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다.	

– 제 2주차

시 간	11월 11일(금)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주 제	**미술관 선생님, 에듀케이터**	
진행자	박민영 (사비나미술관 에듀케이터)	
내 용	–에듀케이터(Educator)의 정의와 역할 –에듀케이터의 주요 직무 –에듀케이터의 자질과 역량 –에듀케이터의 통계학적 특성 –대상별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시들	
느낀 점	미술관이 화랑과 다른 점인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에듀케이터는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 선생님보다 더 활동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무척 흥미로웠다. 다양한 부류와 연령층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 제 3주차

시 간	11월 16일(수)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주 제	**미술품도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진행자	김 겸 (보존수복연구소장)	
내 용	–보존과학에 대한 설명 –미술작품의 보존과학 예시와 설명 –직업으로서 미술품 보존수복전문가	
느낀 점	어릴 적부터 훼손된 미술작품을 어떻게 복원시키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사실 예전부터 문화재나 작품, 유물 등을 복구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 굳이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을 손 대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작품수복가들은 매우 정밀하고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복원하면서 작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또 훼손의 범위도 변색, 부서짐 등 굉창히 광범위했는데,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고유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이들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 인상 깊었다.	

– 제 4주차

시 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20분~ 오후 4시	
주 제	**사비나미술관 탐방 / 고양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탐방**	
진행자	강재현, 박민영 / 심규환 (고양창작스튜디오프로그램매니저)	
내 용	–사비나미술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를 보고, 전시 설명 듣기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조월 20명과 교육, 홍보, 전시 등 팀을 나누어 '나도 큐레이터'가상전시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 및 조별 발표 –고양창작스튜디오의 외국인 입주작가 소개와 작가들의 작품 프리젠테이션, 전시 관람 및 한국 입주작가의 작업실 탐방	
느낀 점	전시를 만든다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시, 홍보, 교육 세 팀으로 나눌 때 어떤 것이 저 나에게 맞을지 알 수 없어서 선택하는 것도 어려웠다. 나는 홍보팀을 맡았는데, 전통적인 홍보방법 외에 SNS를 이용하거나 더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생각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무언가를 함께 하면 과정에서 의견 조율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게 될 것이므로 많이 연습해야겠다.	

– 제 5주차

시 간	11월 24일(목)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주 제	아티스트를 위한 기숙사, 레지던시 프로그램 매니저	
진행자	심규환 (고양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매니저)	
내 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고양창작스튜디오 설명	
느낀 점	바로 전날 고양 창장스튜디오를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의 숙소나 작업실을 직접 방문하고나서 설명을 들으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다가왔다. 외국에는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책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작가들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매니저가 따로 직업으로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어 신기했다.	

– 제 6주차

시 간	12월 15일(목)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주 제	**미술계 역사를 자료로 기록하는 아키비스트**	
진행자	김태연 (아르코미술관 아키비스트)	
내 용	–아카이브의 개념과 미술 아카이브의 유형 –아키비스트의 정의와 역할 –도서관/미술관/아카이브 비교 –아카이브의 예: 아르코	
느낀 점	다녀온 전시회 티켓이나 작가의 글, 영화 티켓이나 전단지 등 평소에 다양한 물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나의 취미이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자료를 찾을 때는 보통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몰랐는데 이렇게 자료를 다루는 직업이 따로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또한 도서관과 미술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분류하는 체계도 다르다는 것도 재미있었다. 앞으로 인터넷보다 직접 자료를 찾아보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 제 7주차

시 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주 제	현장탐방1(아르코미술관 아카이브실) 현장탐방2(국립현대미술관 보존수복)	
진행자	김태연 (아르코미술관 아키비스트) 윤소림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담당)	
내 용	–아르코 아카이브 소개 및 아카이브실 탐방 –작가 포트폴리오 열람 및 아르코미술관 전시 투어 –국립현대미술관 재료분석실, 서양화 보존수복실 및 동양화 지류 보존수복실 탐방 –국립현대 소장품 하이라이트 전시 관람 및 해설	
느낀 점	직접 아르코미술관의 아카이브실을 탐방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작가 포트폴리오와 서적들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열람할 수 있게 되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검색이 잘 안 되는 작가의 작품이 궁금하면 찾아갈 곳을 알게 되어 좋았다. 그리고 설명으로만 들었던 과학적인 복원작업이 실제로 실행된 오래된 그림들을 직접 보니 보존수복전문가들의 작업이 정말 전문가답고 멋있는 것 같았다.	

– 제 8주차

시 간	12월 22일(목)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주 제	**참관기, 설문조사 등 평가**	
진행자	민지영(사비나미술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내 용	–'나도 큐레이터' 가상전시, 교육, 홍보 기획 진행 결과물 발표 –그룹별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평가표를 바탕으로 심사평가 –피드백 발표	
느낀 점	스무명의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 하나의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대단히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 결과물을 발표하기 위한 PPT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발표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받고 나니 신입 큐레이터가 된 기분이었다. 에듀케이터나 보존수복전문가, 레시던시 프로그램 매니저 등의 일을 실제로 경험하기에는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지겠지만, 가상전시를 기획한 것처럼 간접적으로라도 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 한국예술종합학교 탐방

시행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진 행 자	김아영, 이충열, 송민규, 정지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연구원/강사)	
참가기간	2011년 12월 20일 오후 2시~6시 30분	

◎ 참여활동

시간	탐 방 장 소	비고
14:00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236호 강의실	
14:20	미술원 기자재 ·장비 대여실	장비실 대여 시스템 소개
14:50	미술원 조형예술과 파운데이션 실기실	파운데이션 과정 소개
15:10	미술원 조형예술과 2~4학년 실기실	
15:40	홀로그램 스튜디오	홀로그램 원리 설명
16:00	미술원 지하 104갤러리	홀로그램 작품 전시
16:20	판화실	판화실 시설 소개
16:40	도자, 유리 공방	도자, 유리 성형 방법 및 공방 시설 소개
18:10	미술원 236호 강의실	종례

◎ 느낀 점

현대미술작가를 양성한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목표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다른 미술대학과는 무언가 차별화된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했다. 그런데 멋진 작품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작가 지망생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기실은 매우 지저분하고 정신없었다. 특히 이젤이나 캔버스, 물감, 붓보다는 미술과 관련 없을 것 같은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인솔하신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림이나 조각보다 더 다양한 매체들로 작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미술의 방법을 등한시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비실이나 판화실, 도자·유리공예실은 무엇이든 표현하고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 홀로그램이라는 신기한 매체도 알 수 있었고 홀로그램으로 작품을 만든 전시까지 볼 수 있어서 그 매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 내 생각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좀이 쑤시는 것 같았다. 나도 어서 미술작가가 되면 좋겠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진로설계와 창의체험 활동 전략』, 조훈, 임병욱, 김동욱, 넥서스BOOKS, 2011.

『미술감상교육: 수업의 구조와 감상의 기술』, 류지영, 미진사, 2011.

『나만의 포트폴리오 작성법』, 송태인, 이호경, 미디어숲, 2010.

『입학사정관제로 미대가기』, 서병수, 한스미디어, 2011.

『포트폴리오로 대학가기』, 이만석, 네오씽크, 2010.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 김홍희 외 11인, 한길아트, 2005.

2) 교과서

『고등학교 미술』, 노용 외 5인, (주)교학사, 2011.

『고등학교 미술』, 조익환 외 4인, (주)지학사, 2011.

『고등학교 미술』, 안금희 외 4인, (주)지학사, 2011.

『고등학교 미술』, 김영길 외 4인, 미진사, 2011.

『고등학교 미술』, 이상원 외 4인, 천재교육, 2011.

3) 웹주소

에듀팟 www.edupot.go.kr/

메디치 연구소 www.medicilab.com

창의인성 교육넷 http://www.crezone.net/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www.reading.go.kr

경희대학교 입학처 http://iphak.khu.ac.kr/web/main/susi_a

고려대학교 입학처 http://oku.korea.ac.kr/admissions/index.oku

국민대학교 입학처 http://www.kookmin.ac.kr/site/entrance/submain.htm

서울대학교 입학처 http://admission.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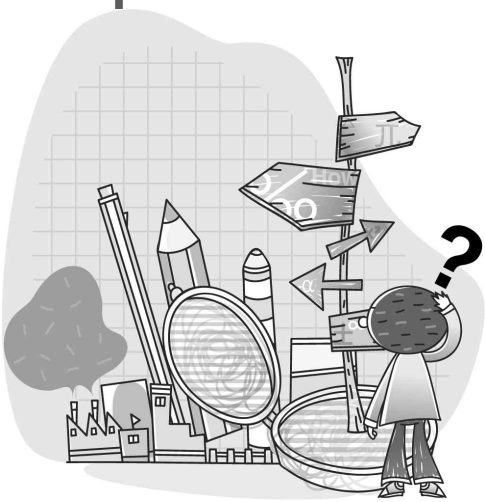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 http://iphak.uos.ac.kr/temp9/09_iphak/html/main.jsp

연세대학교 입학처 http://admission.yonsei.ac.kr/seoul/
중앙대학교 입학처 http://admission.cau.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http://adms.hufs.ac.kr/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처 http://www.karts.ac.kr/user/info/main_idx.do
홍익대학교 입학처 http://ibsi.hongik.ac.kr/

IV 부 록

1. 미술 직업별 개설대학 및 학과 안내

2. 음악 분야별 개설대학 및 학과 안내



미술 분야 직업별 개설대학 및 학과 안내

1-1. 큐레이터/비평가/미술경매사/미술전문기자/에듀케이터/예술(미술)행정가

학 과 명	학 교	소재지
고고미술사학	서울대학교	서울
미술사학	명지대학교	서울
미술이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미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문화 인류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한양대학교(안산)	경기
예술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홍익대	
예술경영과	추계예술대학교_대학원과정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큐레이터학	동덕여대	서울
예술문화학과	한남대	대전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인천가톨릭대학교	경기
민속학과	안동대학교	경북
	한국학중앙연구원_대학원과정	경기
문화재학과	경주대학교	경북
문화재보존학과	용인대학교	경기
	공주대학교	충남
	한서대학교	
박물관학_대학원과정	국민대	서울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중앙대	

1-2. 미술교사

학 과 명	학 교	소 재 지
응용미술교육	한양대	서울
미술교육	인하대	경기
	목원대	대전
	한남대	대전
	공주대	충남_공주

1-3. 디자이너

분 류	학과 및 전공	학 교	소 재 지
시각	시각디자인	국민대학교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천대학교(경원)	경기
		단국대학교(죽전)	
		명지대학교(용인)	
		용인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평택대학교	
		협성대학교	

분 류	학과 및 전공	학 교	소 재 지
		계명대학교	대구
		목원대학교	대전
		한밭대학교	
		건양대학교	충남
		단국대학교(천안)	
		상명대학교(천안)	
		선문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경주대학교	경상북도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한동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
		동명대학교	
		부산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	한성대학교	서울
		영산대학교	부산
	시각정보디자인	경기대학교(수원)	경기
		경희대학교(국제)	
		대진대학교	
		인하대학교	
		한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
		공주대학교(천안)	충남
		남서울대학교	
		백석대학교	

분 류	학과 및 전공	학 교	소 재 지
	비주얼콘텐츠디자인	상명대학교	서울
	시각패키지디자인	한양대학교(안산)	경기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영남대학교	경북
		동아대학교	부산
		신라대학교	
	비주얼머천다이징	호서대학교(아산)	충남
제품	제품디자인	단국대학교(죽전)	경기
		협성대학교	
		공주대학교(천안)	충남
		경성대학교	부산
	제품환경디자인	대진대학교	경기
		동아대학교	부산
	생활제품디자인	경일대학교	경북
		영남대학교	
산업	산업디자인	건국대학교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가청대학교(경원)	경기
		가천의과대학교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국제)	
		단국대학교(죽전)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한양대학교(안성)	

분 류	학과 및 전공	학 교	소 재 지
		계명대학교	대구
		목원대학교	
		백석대학교	충남
		상명대학교(천안)	
		중부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아산)	
		대구대학교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
		동서대학교	
		동아대학교	
		신라대학교	
	산업디자인공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정보디자인	고려대학교	서울
	산업인터렉션디자인	영남대학교	경북
	산업공예디자인	동아대학교	부산
	공업디자인	국민대학교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밭대학교	대전
영상	영상디자인	국민대학교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경기
		평택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영상미디어	건국대학교	서울

분 류	학과 및 전공	학 교	소 재 지
	영상애니메이션	건국대학교	서울
		계명대학교	대구
		대전대학교	대전
		한서대학교	충남
		대구대학교	경북
		대구예술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	계명대학교	대구
		고신대학교	부산
		영산대학교	
	모바일영상디자인	영남대학교	경북
	사진영상학과	계명대학교	대구
		대구예술대학교	경북
패션	패션디자인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세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죽전)	경기
		명지대학교	
		수원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계명대학교	대구
		상명대학교	충남
		중부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
		대구예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명대학교	부산
		동서대학교	

분 류	학과 및 전공	학 교	소 재 지
		부경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패션디자인 및 브랜딩	평택대학교	경기
	섬유패션디자인	한세대학교	경기
	패션디자인·비즈니스	대전대학교	대전
	섬유·패션코디네이션	목원대학교	대전
	패션디자인산업	건양대학교	충남
	패션비즈니스	호서대학교(아산)	경기
	패션뷰티전공	대구한의대학교	경북
	패션스타일리스트	동양대학교	
	패션소재디자인	신라대학교	부산
실내	인테리어디자인	한성대학교	서울
		백석대학교	충남
		중부대학교	
		청운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
	실내디자인	국민대학교	서울
		용인대학교	경기
		협성대학교	
		상명대학교	충남
	실내환경디자인	중앙대학교(안성)	경기
		계명대학교	대구
		영산대학교	부산
	실내건축디자인	대구대학교	경북
		고신대학교	부산
	건축실내디자인	대구예술대학교	경북
		동양대학교	

분 류	학과 및 전공	학 교	소 재 지
기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건국대학교	서울
		삼육대학교	
		수원대학교	경기
		한경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
		홍익대학교(조치원)	충남
	게임 관련	공주대학교	충남
		계명대학교	대구
		홍익대학교(조치원)	충남
		동서대학교	부산
		영산대학교	
	미디어 관련	숭실대학교	서울
		안양대학교	경기
		용인대학교	
		한북대학교	
		백석대학교	충남
		홍익대학교(조치원)	
		경운대학교	경북
		경성대학교	

1-4. 미술작가

학 과 명	해 당 학 교	소 재 지
회화 관련	경희대학교	서울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가천대학교(경원)	경기
	경기대학교(수원)	
	대진대학교	
	수원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계명대학교	대구
	한남대학교	대전
	단국대학교(천안)	충남
	충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경북
	대구예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학 과 명	해 당 학 교	소 재 지
	영남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조소 관련	경희대학교	서울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가천대학교(경원)	경기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대진대학교	
	수원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중앙대학교(안성)	
	경북대학교	대구
	목원대학교	대전
	단국대학교(천안)	충남
	충남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북
	동아대학교	부산
	부산대학교	
판화관련	추계대학교	서울
	홍익대학교	

학 과 명	해 당 학 교	소 재 지
사진영상 애니메이션 매체 관련	건국대학교	서울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목원대학교	대전
	공주대학교	충남
	남서울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경일대학교	경북
	대구대학교	
	경성대학교	부산
	동명대학교	
공예 관련	건국대학교	서울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경기대학교(수원)	경기
	경희대학교(국제)	
	단국대학교(죽전)	

학 과 명	해 당 학 교	소 재 지
	계명대학교	대구
	배재대학교	대전
	단국대학교(천안)	충남
	충남대학교	
	동양대학교	경북
	경성대학교	부산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통합	건국대학교	서울
	고려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백석대학교	충남

1-5. 사진작가

학 과 명	학 교	소 재 지
사진학과	서울예술대학	서울
	중앙대학교(안성)	경기
	상명대학교(천안)	충남
	계명대학교	대구
사진예술학과	계원조형디자인대학	경기
사진영상과	가천대학교(경원)	경기
	대구예술대학교	대구
	경일대학교	경북
영상미술학과	한서대학교	충남

1-6. 영화감독 겸 미술작가

학 과 명	학 교	소 재 지
영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방송영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영상이론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멀티미디어 영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영상비즈니스	추계예술대학교	서울
영화영상	용인대학교	경기
영상영화	홍익대학교	충남
디자인영상학부	백석대학교	충남

1-7. 보존수복전문가

학 과 명	학 교	소 재 지
문화재 보존과학	명지대학교(대학원)	서울
	중앙대학교(대학원)	
	용인대학교	경기
	공주대학교	충남
	한국전통문화학교	
	한서대학교	
	경주대학교	경북
고고미술사학	서울대학교	서울
미술사학	명지대학교	서울
문화재학과	경주대학교	경북
문화재관리학	단국대학교(대중문화예술대학원)	서울
	한국전통문화학교	충남
분석과학	충남대학교(기술대학원)	대전

1-8. 미술 심리치료사_대학원 과정

학 과 명	학 교	소 재 지
미술치료	서울불교대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임상심리학 박사과정)	
	한양대학교(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기
	평택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순천향대학교(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충남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원)	대구
	영남대학교(환경보건대학원)	경북
예술치료학과	동국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	서울
	명지대학교(사회교육대학원)	
	한양대학교(교육대학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보건대학원)	경기
	대전대학교(보건스포츠대학원)	대전
	원광대학교(동서보완의학대학원)	전북
보건미술심리치료	영남대학교(환경대학원)	대구
멀티테라피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서울
임상미술학	가천의과대학교(보건대학원)	경기
	포천중문의대(보건복지대학원)	
표현예술학과	서울여자대학교(특수치료 전문대학원)	서울

음악 분야별 개설대학 및 학과 안내

1. 서양음악 및 국악 관련학과

학교	학과(부)명	세부 전공	소재지
가톨릭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오르간	경기
강남대학교	음악학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경기
강릉원주대학교	음악과	관현악, 피아노, 성악, 작곡	강원
강원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강원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피아노, 성악, 관악, 현악, 작곡	서울
경남대학교	음악교육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경남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대구
	국악과	기악, 성악, 이론 및 작곡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경남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부산
경원대학교	성악과		경기
	관현악과		
	피아노과		
	작곡과		
경희대학교	작곡과		서울
	성악과		
	기악과		
계명대학교	관현악과		대구
	성악과		
	피아노과		
	작곡과		
	오르간과		
고신대학교	기악과		부산
	교회음악과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음악교육과		충남
관동대학교	음악과	관현악·성악, 피아노, 성악	강원
광신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관·현·타악,	광주

		지휘, 오르간, 음악이론, 작곡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광주
광주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광주
국립공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충남
국민대학교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작곡, 관현악	서울
군산대학교	음악과	관현악, 피아노, 성악	전북
그리스도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	서울
김천대학교	음악학과	클래식 전공	경북
나사렛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 관현악	충남
남부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관현악, 성악, 작곡, 지휘, 국악, 피아노교수법	광주
단국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관악, 현악, 작곡, 국악	경기
대구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대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성악과		경북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대구예술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관악, 피아노교수학, 한국음악	대구
대불대학교	음악학과	건반, 현악, 관악, 성악, 타악	전남
대진대학교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경기
동덕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서울
	성악과		
	관현악과		
동아대학교	음악학과		부산
	기악학과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관현타악,, 작곡	부산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 성악, 작곡, 음악학	경기
목원대학교	성악,뮤지컬학부	성악, 뮤지컬	대전
	작곡,재즈학부		
	관현악학부	관악, 현악	
	건반악학부	피아노, 오르간, 반주	
	한국음악학부		

목포대학교	음악과	성악, 관현악, 피아노	전남
배재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및 뮤지컬, 관현악, 작곡	대전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음악학, 한국음악	부산
	예술문화영상학과		
삼육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관현악, 피아노, 작곡	서울
상명대학교	피아노과		서울
	성악과		
	관현악과		
서경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 성악, 관현악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서울
서울기독대학교	음악학과		서울
서울대학교	성악과		서울
	기악과	피아노, 현악, 관악	
	작곡과		
	국악과		
서울시립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작곡	서울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경기
서울장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경기
서원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충북
	한국음악과		
성결대학교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작곡, 교회음악	경기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서울
	기악과	피아노, 관현타악기	
	작곡과		
세종대학교	음악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서울
수원대학교	성악과		경기
	피아노학과		
	관현악과		
	작곡과		
	국악과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		서울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		
순천대학교	피아노학과		전남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관현악, 성악	부산
안동대학교	음악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경북
안양대학교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관현악	경기
연세대학교	성악과		서울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영남대학교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관현악	경북
	국악과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음악학부	음악	전북
우석대학교	국악과		전북
울산대학교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관현악	울산
용인대학교	국악과	가야금,거문고,아쟁,피리,대금,해금,타악,성악	경기
원광대학교	예술학부	음악	전북
		국악(기악, 이론, 작곡, 성악)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학부	건반악기, 관현악, 성악, 작곡	서울
		한국음악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경남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서울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	전남
	국악과	기악, 성악	
전북대학교	음악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전북
	한국음악학과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전북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관현악, 성악, 작곡	전북
제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제주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제주
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광주

중부대학교	뮤지컬·음악학과	음악(피아노, 관현악, 성악,작곡)	충남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관현악, 성악, 피아노, 작곡	경기
	전통예술학부	음악예술	
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경남
창원대학교	음악과	작곡, 관현악, 피아노, 성악	경남
청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충북
청주대학교	음악교육과		충북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추계예술대학교	음악학부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 국악	서울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원
충남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성악, 작곡, 음악학	충남
	관현악과	관악, 현악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대전
카톨릭대학교	음악과	피아노, 오르간, 관현악, 성악	경기
평택대학교	음악학과	건반악기, 성악, 관현악, 작곡	경기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충북
한국교통대학교 (구 충주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관·현·타악	충북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서울
	기악과		
	작곡과		
	지휘과		
	음악학과		
	전통예술원	음악과, 한국예술학과	
한세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 오르간, 성악, 관현악, 작/편곡, 음악학	경기
한양대학교	성악과		서울
	작곡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국악과		
한영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서울
한일장신대학교	음악·교회음악학		전북
협성대학교	음악학부	피아노, 성악, 합창지휘,	경기

		관현악, 작곡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오르간, 관현악	광주
호서대학교	음악학과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충남

2. 실용/대중음악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소속	학과명	소재지
경기대학교	예술학부	전자디지털음악학과	서울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경기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뮤직프로덕션과	대구
관동대학교	스포츠예술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강원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보컬	광주
김천대학교	예체능계열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CCM기독음악전공	경북
나사렛대학교	방송콘텐츠학부	방송미디어학전공	충남
	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남부대학교		음악학과 실용음악 전공	충남
단국대학교	(천안) 예술대학	생활음악과	충남
대구예술대학교	음악 계열	실용음악전공, 교회실용음악전공	대구
대불대학교	실용음악학부	뮤지컬학과	전남
대신대학교	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서울
동신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실용음악학과	전남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전공	부산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과 실용음악, 컴퓨터음악 전공	부산
목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뮤지컬 학부 작곡·재즈 학부	대전
백석대학교	기독교문화예술학부	기독교실용음악전공	충남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예술문화영상학과	부산
상명대학교	음악대학	뉴미디어작곡과	서울
서남대학교	예체능학부	컴퓨터음악 전공	
선교청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실용음악학전공, 종합예술학전공	충남
신라대학교	예술학부	음악학과 컴퓨터음악전공	부산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뮤지컬전공	전북
중부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실용음악학과	충남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작곡/실용음악	

청운대학교	방송예술대학	실용음악과, 방송음악과, 공연기획경영학과, 멀티미디어학과	충남
초당대학교	예체능계열	실용음악학과	전남
칼빈대학교		실용음악과	경기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방송연예학과	경기
한서대학교	예술학부	실용음악과	충남
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실용음악학과	경기
호서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충남
호원대학교	방송예술계열	실용음악학부	전북

2-3년제 대학	학과명	소재지
경민대학교	실용음악과	경기
경복대학교	음악예술학부 실용음악과	경기
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학부	대구
공주영상대학	실용음악과, 음향제작과	충남
국제대학	예술체육학부 실용음악과	경기
김포대학	생활예술학부 생활음악과	경기
대경대학	실용음악과, 뮤지컬과	경북
동아방송예술대학	예술학부, 미디어경영학부, 영상음악	경기
동주대학	실용음악과	부산
명지전문대학	예술체육학부 실용음악과	서울
백석문화대학	예체능계열 실용음악학부	충남
백석예술대학	음악학부	서울
백제예술대학	실용음악과, 미디어음악과	전북
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부산
서울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경기
서울종합예술학교	음악예술학부, CCM학부, 실용음악예술학부, 공연제작예술학부	서울
성덕대학	음악계열 실용음악전공	경북
수원과학대학	음악계열	경기
수원여자대학	예술학부 대중음악과	경기
신흥대학	예체능계열 기독실용음악과	경기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음악공연예술과	경기
우송정보대학	실용음악과	대전
원광보건대학	실용음악과	전북
인천재능대학교	실용음악과	인천
전남과학대학	음악과	전남
제주한라대학교	음악과 실용음악전공	제주
주성대학	문화예술학부, 실용음악과	충북
창신대학	음악과(CCM실용음악, 작곡·컴퓨터음악)	경남
한국재활복지대학	예체능계열 멀티미디어음악과	경기
한양여자대학	실용음악과	서울